

조선시대 『옥추보경』(玉樞寶經) 중의 신장(神將)에 관한 연구

인즈화(尹志華)

중국도교협회부연구원 · 국제부부주임

1. 만법교주(萬法教主)
2. 동화교주(東華教主)
3. 대법천사(大法天師)
4. 신공묘제허진군(神功妙濟許眞君);
7. 정양허진군(旌陽許眞君)
5. 홍제구천사(弘濟丘天師)
6. 허정장천사(許靜張天師)
8. 해경백진인(海淸白眞人)
9. 낙양살진인(洛陽薩眞人)
10. 주뢰등천군(主雷鄧天君)
11. 판부신천군(判府辛天君); 14. 통현교주
신조사(洞玄教主辛祖師)
12. 비첩장천군(飛捷張天君)
13. 월패주천군(月孛朱天君)
15. 청미교주조원군(淸微教主祖元君)
16. 청미교주위원군(淸微教主魏元君)
17. 통현전교마원군(洞玄傳敎馬元君)
18. 혼원교주노진군(混元敎主路眞君)
19. 혼원교주갈진군(混元敎主葛眞君)
20. 신소전교종리진선(神霄傳敎鍾離眞仙)
21. 신소전교여진선(神霄傳敎呂眞仙)
22. 화덕사천군(火德謝天君)
23. 옥부유천군(玉府劉天君)
- 24~25. 영대천군(甯大天君), 임대천군
(任大天君)
26. 뇌문구원수(雷門苟元帥)
27. 뇌문필원수(雷門畢元帥)
28. 영관마원수(靈官馬元帥)
29. 도독조원수(都督趙元帥)
- 30~31. 호구왕원수(虎丘王元帥), 호구
고원수(虎丘高元帥)
32. 혼원방원수(混元龐元帥); 45. 통신
유원수(洞神劉元帥)
33. 인성강원수(仁聖康元帥)
34. 태세은원수(太歲殷元帥)
35. 고교당원수(考校党元帥)
36. 풍도맹원수(鄧都孟元帥)
37. 익령은원수(翊靈溫元帥)
38. 규찰왕부수(糾察王副帥); 46. 활락
왕원수(豁落王元帥)
39. 선봉이원수(先鋒李元帥)
40. 맹렬철원수(猛烈鐵元帥)
41. 풍륜주원수(風輪周元帥)
42. 지기양원수(地祇楊元帥)
43. 낭령관원수(朗靈關元帥)
44. 충정장원수(忠靖張元帥)
47. 신뢰석원수(神雷石元帥)
48. 감생고원수(監生高元帥)

『옥추보경』(玉樞寶經)은 송대의 유명한 도교 경전인데, 정식 명칭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설옥추보경(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說玉樞寶經)이다.¹⁾ 『도장』의 기록에 의하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은 고상신소옥청진왕장생대제(高上神霄玉清真王長生大帝)의 화신이다. 『무상구소옥청대범자미현도뇌정옥경』(無上九霄玉清大梵紫微玄都雷霆玉經)에 기록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초에 옥청신모원군(玉清神母元君)은 부려원시천존(浮黎元始天尊)의 부인이었다. 그들의 장자는 옥청원시천존(玉清元始天尊)이고, 아홉째 아들은 고상신소옥청진왕장생대제(高上神霄玉清真王長生大帝)의 신위에 있으며 구소(九霄)의 삼십육천을 관장하였다.”²⁾ 백옥섬(白玉蟾)은 『옥추보경』 주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려원시천존은 아들이 아홉 명 있었는데, 그 중 옥청진왕(玉清真王)은 뇌성보화천존으로 화(化)하였다.”³⁾ 『뇌정옥추유죄법참(雷霆玉樞有罪法懺)』에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높여 구천정명지대성(九天貞明之大聖)이라 부르는데, 그는 옥청진왕의 화신이다.”⁴⁾라는 기록이 있다.

송·원시대 이후 『옥추보경』이 중국의 각 지역에 광범위하게 전해지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명나라의 세종(世宗)과 신종(神宗)은 『옥추보경』을 새로 간행하여 직접 서문을 쓰고 동시에 매우 숭앙하였다. 『옥추보경』의 집주본이 조선에 전해진 시기는 대략 명대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집주본에서는 “해경백진인(海瓊白真人)이 주를 달았고, 조천사(祖天師)인 장진군(張眞君)이 뜻을 풀었으며, 오뢰사자(五雷使者)인 장천군(張天君)이 해석을 하고, 순양부우제군(純陽孚佑帝君)이 이를 보충하였다”고 하였다. 해경백진인은 남송시기 도사인 백옥섬을 말하

1) 『玉樞寶經』에 대한 내용은 任繼愈가 편집한 아래의 저서를 참고하였다. 『道藏提要(修訂本)』(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 pp.17-18; Kristofer Schipper and Franciscus Verellen edited, *The Taoist Canon: A History Companion to the Daozang*, Vol 2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p.1092.

2) 『道藏』(北京: 文物出版社, 上海: 上海書店,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88), 第1册, p.750.

3) 같은 책, 第2册, p.570.

4) 같은 책, 第3册, p.552.

며, 조천사 장진군은 동한시기 도교 교단을 만든 장도릉(張道陵) 천사를 가리킨다. 오녀사자 장천군(雷使者張天君)은 천상에 있는 뇌부 신장 중 일원이며, 순양부우제군은 ‘팔선’(八仙)의 하나인 여동빈(呂洞賓)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전해졌던 『옥추보경』 집주본은 융경(隆慶) 4년(1570)에 전라도 무등산(無等山) 안심사(安心寺)에서 최초로 발간되었다. 관련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관원이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옥추보경』을 한 부 가져 왔는데, 그는 『옥추보경』을 집 안에 숨겨두고 이를 판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성균관의 진사였던 오인(吳訥)이 그를 방문했을 때 이를 우연하게 얻게 되었으며, 오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경서를 안심사에 기증하였고, 안심사에서 이를 발간하여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안심사 판본은 첫 페이지와 경문 중의 또 다른 페이지가 없는 불완전한 판본이었다.⁵⁾ 옹정(擁正) 11년(1733)에 송몽삼(宋夢三), 서두추(徐斗樞) 등의 제안에 따라 영변(寧邊) 묘향산(妙香山) 보현사(普賢寺)에서 『옥추보경』을 새로 간행하게 되었으나 이 또한 전자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판본이었다. 이후 병진년(1736)에 잃어버린 두 페이지를 우연히 찾게 되면서 완전한 판본을 이루게 되었다.⁶⁾ 광서(光緒) 무자년(1888)에 김흡(金滄)이 『옥추보경』을 새로 교정하였고, 계룡산(鷄龍山)에서 이를 다시 간행하였다.⁷⁾

명대의 『도장』에 수록된 『옥추보경』 집주본에는 신장도(神將圖)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⁸⁾ 하지만 조선시대 세 종류의 판본은 모두 신장도(神將圖)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 학자인 미우라 쿠니오(三浦國雄) 교수는 「『옥추경』의 형성과 전파」(『玉樞經』의形成與傳播)⁹⁾라는 글을 통해, 조선시대 간행본과 비슷한 판본으로 영국의 대영도서관 소장본

5) 융경(隆慶) 안심사 간행본 발문.

6) 옹정(擁正) 보현사 간행본 발문.

7) 광서(光緒) 계룡산 간행본, 黃一淵 발문.

8) 『道藏』, 第2冊, pp.569-587.

9) 日本道教學會編：『東方宗教』第105号(2005), pp.1-19.

과 일본 천리대학(天理大學) 도서관의 소장본이 있다고 밝혔다. 필자는 중국 국가 도서관의 고적관에서 신상(神像)이 수록되어 있는 청대의 판본을 본 적이 있다.

홍콩 중문대학(中文大學)의 윤취기(尹翠琪) 교수는 「도교판화연구: 대영도서관 소장 『옥추보경』 사주본의 년대 및 삽화에 대한 고찰」(道敎版畫研究: 大英圖書館藏『玉樞寶經』四注本之年代及插畫考)¹⁰⁾이라는 글을 통해 대영도서관 소장본이 명대 영락(永樂) 연간(1403-1424) 혹은 그 이후에 발간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대영도서관 소장본의 경우 45개의 신상을 수록하고 있다. 필자가 본 중국 국가 도서관 고적관에 소장된 청대의 판본 또한 대영도서관의 소장본과 동일하게 45개의 신상을 수록하고 있었다. 필자는 대순종교문화연구소로부터 조선시대 『옥추보경』에 등장하는 48신위¹¹⁾와 대순진리회의 『전경』에 등장하는 48신장이¹²⁾ 동일한 존재인지 확인해 달라는 연구를 의뢰 받으면서 조선시대 『옥추보경』은 세 종류의 판본이 있다고 전해들은 바 있다.¹³⁾ 즉 1570년에 발간된 안심사 판본에는 41명의 신장도가 수록되어 있고, 1733년의 보현사 판본은 47명의 신장도가 수록되어 있으며, 1888년의 계룡산 판본에는 48명의 신장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판본들에 수록된 신장도 수가 왜 각기 다른가에 대해서는 필자 자신도 아직 아는 바가 없다.

명대의 여상두(余象斗)가 펴낸 『북방진무조사현천상제출신지전』(北方眞武祖師玄天上帝出身志傳)[간칭 『북유기(北遊記)』]에서는 현제부장(玄

10) 香港中文大學, 『道敎研究學報』 第2期 (2010), pp.135-183.

11) 용정 보현사 간행본과 광서 계룡산 간행본 『옥추보경』은 신장도와 본문 사이에 48신장을 모두 나열 기재하고 있다. 단 용정 보현사 간행본의 신장도에는 정양허진군(旌陽許眞君)이 누락되어 47명으로 되어 있으며 '48신위'라는 표현도 나타나지 않는다.

12) “그러시다가도 다시 공부를 계속하셨는데 어느 날 시루봉에서 진법주(眞法呪)를 외우시고 오방신장(五方神將)과 四十八장과 二十八장 공사(公事)를 보셨도다.”, “四十八장을 늘어세우고 옥추문을 열 때에는 정신을 차리기 어려우리라.” 『典經』 中文本, 金勳 역 (大巡眞理會出版部, 2010 第一版), p.20, 342.

13) 조선시대의 『옥추보경』에 대한 연구의 권위자인 구중희의 연구를 본 연구에 참고하고자 하였지만 중문을 구할 수 없고 필자의 한국어 수준으로는 원본을 볼 수 없어 구중희의 연구를 참고하는 것을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帝部將)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옥추보경』에 수록된 신장들과 동일한 신장들의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북유기』 제4권에서는 옥제가 진무조사(眞武祖師)를 혼원옥천만법교주옥허사상현천상제탕마천존(混元六天萬法教主玉虛師相玄天上帝蕩魔天尊)에 봉하였는데, 그는 삼십육 명의 천장(天將)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옥제에 의해 현재부장(玄帝部將)으로 봉해진 신명은 다음과 같다. 신공묘제허진군(神功妙濟許眞君), 해경백진군(海琮白眞君), 동화교주(東華教主), 제미전교조원군(濟微傳教祖元君)[濟微傳教祖元君이 정확함], 통현교주신진군(洞玄教主辛眞君), 청미교주위원군(淸微教主魏元君), 혼원교주로진군(混元教主路眞君), 수화이장(水火二將)에 봉해진 거북과 뱀, 도독금륜여의(都督金輪如意) 조원수(趙元帥), 낭령관원수(朗靈關元帥) 관우(關羽), 구하이원수(苟畢二元帥) 신흥왕(新興王)과 전화(田華), 진충장원수(盡忠張元帥) 장건(張健), 혼기방원수(混炁龐元帥) 방교(龐喬), 규찰부원수(糾察副元帥) 부응(副應), 정일영관마원수(正一靈官馬元帥), 관타불통도주원수(管打不通道朱元帥) 주언부(朱彦夫), 선봉이원수(先鋒李元帥) 이복용(李伏龍), 촉려이장군(催廬二將軍), 향요벽사우원수(降妖辟邪兩元帥) 우전(雨田), 등원수(鄧元帥) 등성(鄧成), 신원수(辛元帥) 신강(辛江), 장원수(張元帥) 장안(張安), 이태보(二太保) 념세과(甯世誇)와 임무별(任無別), 왕부유천군(玉府劉天君) 유후(劉後), 위령온원수(威靈廬元帥) 소경(蕭瓊), 신뇌석원수(神雷石元帥) 석신(石神), 풍륜주원수(風輪周元帥) 광택(廣澤), 화덕사원수(火德謝元帥) 사사영(謝仕榮), 총명이성(聰明二聖) 이루(離婁)와 사광(師曠), 인성강원수(仁聖康元帥) 강석(康席), 강생고원수(降生高元帥) 고원(高員), 풍도장원수(豐都孟元帥) 맹산(孟山), 호구왕(虎丘王) 고이원수(高二元帥) 왕철(王鐵)과 고동(高銅), 구주활락왕원수(九州豁落王元帥) 왕오(王惡), 구천벽력대장군(九天霹靂大將軍) 녀공(雷公), 지기양원수(地祇楊元帥) 양표(楊彪), 지사태세은원수(地司太歲殷元帥) 은고(殷高), 맹렬철원수(猛烈鐵元帥) 철두(鐵頭), 뇌부뇌모(雷部雷母) 주패낭(朱佩娘), 월패천군(月孛天君) 주패낭(朱孛娘).¹⁴⁾ 이와 비교하여 소설에서는 ‘당귀적(當歸籍)을 고교당원수(考校黨元帥)’로 봉했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¹⁵⁾

대영도서관 소장본, 안심사·보현사·계룡산의 판본, 중국 국가 도서관 소장 판본 및 『북유기』에 기록된 신장을 도표로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대영도서관 소장본 (45신장)	안심사 판본(1570) (41신장)	보현사 판본(1733) (47신장)	계룡산 판본(1868) (48신장)	중국국가도서관 소장 청대 판본(45신장)	북유기(명대)
1. 만법교주 萬法教主	1. 만법교주 萬法教主	1. 만법교주 萬法教主	1. 만법교주 萬法教主	1. 만법교주 萬法教主	만법교주 萬法教主
2. 동화교주 東華教主	2. 동화교주 東華教主	2. 동화교주 東華教主	2. 동화교주 東華教主	2. 동화교주 東華教主	동화교주 東華教主
3. 대법천사 大法天師	3. 대법천사 大法天師	3. 대법천사 大法天師	3. 대법천사 大法天師	3. 대법천사 大法天師	
4. 신공묘제허진군 神功妙濟許眞君	4. 신공묘제허진군 神功妙濟許眞君	4. 신공묘제허진군 神功妙濟許眞君	4. 신공묘제허진군 神功妙濟許眞君	4. 신공묘제허진군 神功妙濟許眞君	신공묘제허진군 神功妙濟許眞君
		5. 홍제구천사 弘濟丘天師			
			6. 허정장천사 許靜張天師		
		6. 정양허진군 旌陽許眞君	7. 정양허진군 旌陽許眞君		
5. 해경백진인 海鏡白真人	5. 해경백진인 海鏡白真人	6. 해경백진인 海鏡白真人	5. 해경백진인 海鏡白真人	5. 해경백진인 海鏡白真人	해경백진인 海鏡白真人
6. 낙양살진인 洛陽薩真人	6. 낙양살진인 洛陽薩真人	8. 낙양살진인 洛陽薩真人	9. 낙양살진인 洛陽薩真人	6. 낙양살진인 洛陽薩真人	
7. 주위등천군 主雷鄧天君	7. 주위등천군 主雷鄧天君	7. 주위등천군 主雷鄧天君	10. 주위등천군 主雷鄧天君	7. 주위등천군 主雷鄧天君	등원수(등성) 鄧元帥(鄧成)
8. 신(판부신천군) 辛(判府辛天君)	8. 판부신천군 判府辛天君	10. 판부신천군 判府辛天君	11. 판부신천군 判府辛天君	8. 판부신천군 判府辛天君	신원수(신강) 辛元帥(辛江)
9. 비침장천군 飛捷張天君	9. 비침장천군 飛捷張天君	11. 비침장천군 飛捷張天君	12. 비침장천군 飛捷張天君	9. 비침장천군 飛捷張天君	장원수(장안) 張元帥(張安)
10. 월패주천군 月季朱天君	10. 월패주천군 月季朱天君	12. 월패주천군 月季朱天君	13. 월패주천군 月季朱天君	10. 월패주천군 月季朱天君	월패천군(주패왕) 月季天君(朱季嬭)
11. 동현교주신조사 洞玄教主辛祖師	11. 동현교주신조사 洞玄教主辛祖師	13. 동현교주신조사 洞玄教主辛祖師	14. 동현교주신조사 洞玄教主辛祖師	11. 동현교주신조사 洞玄教主辛祖師	동현교주신진군 洞玄教主辛眞君
12. 청미교주조원군 淸微教主祖元君	12. 청미교주조원군 淸微教主祖元君	14. 청미교주조원군 淸微教主祖元君	15. 청미교주조원군 淸微教主祖元君	12. 청미교주조원군 淸微教主祖元君	제이전교주조원군 濟微傳教祖元君
13. 청미교주위원군 淸微教主魏元君	13. 청미교주위원군 淸微教主魏元君	15. 청미교주위원군 淸微教主魏元君	16. 청미교주위원군 淸微教主魏元君	13. 청미교주위원군 淸微教主魏元君	청미교주위원군 淸微教主魏元君
14. 동원교주마원군 洞玄傳教馬元君	14. 동원전교마원군 洞玄傳教馬元君	16. 동원전교마원군 洞玄傳教馬元君	17. 동원전교마원군 洞玄傳教馬元君	14. 동원교주마원군 洞玄傳教馬元君	
15. 혼원교주노진군 混元教主路眞君	15. 혼원교주노진군 混元教主路眞君	17. 혼원교주노진군 混元教主路眞君	18. 혼원교주노진군 混元教主路眞君	15. 혼원교주노진군 混元教主路眞君	혼원교주노진군 混元教主路眞君
16. 혼원교주갈진군 混元教主葛眞君	16. 혼원교주갈진군 混元教主葛眞君	18. 혼원교주갈진군 混元教主葛眞君	19. 혼원교주갈진군 混元教主葛眞君	16. 혼원교주갈진군 混元教主葛眞君	
17. 신소전교종려진선 神霄傳教鍾呂眞仙	17. 신소전교종려진선 神霄傳教鍾呂眞仙	19. 신소전교종려진선 神霄傳教鍾呂眞仙	20. 신소전교종려진선 神霄傳教鍾呂眞仙	17. 신소종려이진선 神霄鍾離二眞仙	
18. 신소전교종려진선 神霄傳教鍾呂眞仙	18. 신소전교종려진선 神霄傳教鍾呂眞仙	20. 신소전교종려진선 神霄傳教鍾呂眞仙	21. 신소전교여진선 神霄傳教呂眞仙	18. 신소종려이진선 神霄鍾離二眞仙	
19. 화덕사천군 火德謝天君	19. 화덕사천군 火德謝天君	21. 화덕사천군 火德謝天君	22. 화덕사천군 火德謝天君	19. 화덕사천군 火德謝天君	화덕사원수(사사영) 火德謝元帥(謝仕榮)

14) 余象斗 編 『北方眞武祖師玄天上帝出身志傳』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pp.225-227.

15) 같은 주(注), p.164.

20. 옥부류천군 玉府劉天君	20. 옥부류천군 玉府劉天君	22. 옥부류천군 玉府劉天君	23. 옥부류천군 玉府劉天君	20. 옥부류천군 玉府劉天君	옥부류천군(유후) 玉府劉天君(劉後)
21. 영임이대천군 禱任二大天君	21. 영임이대천군 禱任二大天君	23. 영임이대천군 禱任二大天君	24. 영대천군 禱大天君	21. 영임이대천군 禱任二大天君	영우별 任無別 녕세과 寧世誇 이대보 二太保
22. 영임이대천군 禱任二大天君	22. 영임이대천군 禱任二大天君	24. 영임이대천군 禱任二大天君	25. 영대천군 任大天君	22. 영임이대천군 禱任二大天君	"
23. 뇌문구원수 雷門苟元帥	23. 뇌문구원수 雷門苟元帥	25. 뇌문구원수 雷門苟元帥	26. 뇌문구원수 雷門苟元帥	23. 뇌문구원수 雷門苟元帥	구원수(신흥왕) 苟元帥(新興王)
24. 뇌문필원수 雷門畢元帥	24. 뇌문필원수 雷門畢元帥	26. 뇌문필원수 雷門畢元帥	27. 뇌문필원수 雷門畢元帥	24. 뇌문필원수 雷門畢元帥	필원수(진화) 畢元帥(田華)
25. 영관마원수 靈官馬元帥	25. 영관마원수 靈官馬元帥	27. 영관마원수 靈官馬元帥	28. 영관마원수 靈官馬元帥	25. 영관마원수 靈官馬元帥	정일영관마원수 正一靈官馬元帥
26. 도독조원수 都督趙元帥	26. 도독조원수 都督趙元帥	28. 도독조원수 都督趙元帥	29. 도독조원수 都督趙元帥	26. 도독조원수 都督趙元帥	도독금륜어의조원수 都督金輪義的趙元帥
27. 호구왕고이원수 虎丘王高二元帥	27. 호구왕고이원수 虎丘王高二元帥	29. 호구왕고이원수 虎丘王高二元帥	30. 호구왕원수 虎丘王元帥	27. 호구왕고이원수 (왕철, 고동) 虎丘王高二元帥 (王鐵, 高銅)	호구왕고이원수 (왕철, 고동) 虎丘王高二元帥 (王鐵, 高銅)
28. 호구왕고이원수 虎丘王高二元帥	28. 호구왕고이원수 虎丘王高二元帥	30. 호구왕고이원수 虎丘王高二元帥	31. 호구고원수 虎丘高原帥	28. 호구왕고이원수 虎丘王高二元帥	"
29. 혼원방원수 混元龐元帥	29. 혼원방원수 混元龐元帥	31. 혼원방원수 混元龐元帥	32. 혼원방원수 混元龐元帥	29. 혼원방원수 混元龐元帥	혼기방원수(방교) 混龍元帥(龐喬)
30. 홍신유원수 洞神劉元帥	38. 홍신유원수 洞神劉元帥	44. 홍신유원수 洞神劉元帥	45. 홍신유원수 洞神劉元帥	30. 홍신유원수 洞神劉元帥	
31. 활락왕원수 豁落王元帥	39. 활락왕원수 豁落王元帥	45. 활락왕원수 豁落王元帥	46. 활락왕원수 豁落王元帥	31. 활락왕원수 豁落王元帥	활락왕원수(왕오) 豁落王元帥(王惡)
32. 신뢰석원수 神雷石元帥	40. 신뢰석원수 神雷石元帥	46. 신뢰석원수 神雷石元帥	47. 신뢰석원수 神雷石元帥	32. 신뢰석원수(석신) 神雷石元帥(石神)	신뢰석원수(석신) 神雷石元帥(石神)
33. 감생고원수 監生高原帥	41. 감생고원수 監生高原帥	47. 감생고원수 監生高原帥	48. 감생고원수 監生高原帥	33. 감생고원수 監生高原帥	항생고원수(고원) 降生高原帥(高員)
34. 풍륜주원수 風輪周元帥	42. 풍륜주원수 風輪周元帥	48. 풍륜주원수 風輪周元帥	49. 풍륜주원수 風輪周元帥	34. 풍륜주원수 風輪周元帥	풍륜주원수(광택) 風輪周元帥(廣澤)
35. 지기양원수 地祇楊元帥	41. 지기양원수 地祇楊元帥	42. 지기양원수 地祇楊元帥	42. 지기양원수 地祇楊元帥	35. 지기양원수 地祇楊元帥	지기양원수(양표) 地祇楊元帥(楊彪)
36. 낭령관원수 朗靈關元帥	42. 낭령관원수 朗靈關元帥	43. 낭령관원수 朗靈關元帥	43. 낭령관원수 朗靈關元帥	36. 낭령관원수(관우) 朗靈關元帥(關羽)	낭령관원수(관우) 朗靈關元帥(關羽)
37. 충정장원수 忠靖張元帥	43. 충정장원수 忠靖張元帥	44. 충정장원수 忠靖張元帥	44. 충정장원수 忠靖張元帥	37. 충정장원수 忠靖張元帥	진충정장원수(장건) 盡忠張元帥(張健)
38. 인성강원수 仁聖康元帥	34. 인성강원수 仁聖康元帥	32. 인성강원수 仁聖康元帥	33. 인성강원수 仁聖康元帥	38. 인성강원수 仁聖康元帥	인성강원수(강석) 仁聖康元帥(康席)
39. 태세은원수 太歲殷元帥	35. 태세은원수 太歲殷元帥	33. 태세은원수 太歲殷元帥	34. 태세은원수 太歲殷元帥	39. 태세은원수 太歲殷元帥	지사태세은원수(은교) 地司太歲殷元帥(殷高)
40. 고교당원수 考校黨元帥	36. 고교당원수 考校黨元帥	34. 고교당원수 考校黨元帥	35. 고교당원수 考校黨元帥	40. 고교당원수 考校黨元帥	고교당원수(당귀적) 考校黨元帥(黨歸積)
41. 풍도맹원수 豐都孟元帥	37. 풍도맹원수 豐都孟元帥	35. 풍도맹원수 豐都孟元帥	36. 풍도맹원수 豐都孟元帥	41. 풍도맹원수 豐都孟元帥	풍도맹원수(맹신) 豐都孟元帥(孟善)
42. 익령온원수 翼靈溫元帥	38. 익령온원수 翼靈溫元帥	36. 익령온원수 翼靈溫元帥	37. 익령온원수 翼靈溫元帥	42. 익령온원수 翼靈溫元帥	익령온원수(손경) 翼靈溫元帥(孫敬)
43. 규찰왕부수 糾察王副帥	31. 규찰왕부수 糾察王副帥	37. 규찰왕부수 糾察王副帥	38. 규찰왕부수 糾察王副帥	43. 규찰왕부수 糾察王副帥	규찰왕부수(부응) 糾察王副帥(副應)
44. 선봉이원수 先鋒李元帥	32. 선봉이원수 先鋒李元帥	38. 선봉이원수 先鋒李元帥	39. 선봉이원수 先鋒李元帥	44. 선봉이원수 先鋒李元帥	선봉이원수(이복응) 先鋒李元帥(李伏應)
45. 맹렬철원수 猛烈鐵元帥	33. 맹렬철원수 猛烈鐵元帥	39. 맹렬철원수 猛烈鐵元帥	40. 맹렬철원수 猛烈鐵元帥	45. 맹렬철원수 猛烈鐵元帥	맹렬철원수(철두) 猛烈鐵元帥(鐵頭)
					수화이장(귀사) 水火二將(龜蛇)
					관타불신도주원수(주언부) 管陀佛新道主元帥(朱彦夫)

					최려이장군 催慮二將軍
					황오벽시우원수(우전) 降妖辟邪雨元帥(雨田)
					총명이성(이루, 사광) 聰明二室(離妻, 師曠)
					구천벽력대장군홍도장 원수(보공) 九天霹靂大將軍鄕都章 元帥(雷公)
					뇌부전모(주패낭) 雷部電母(朱佩娘)

조선시대 『옥추보경』에 등장하는 48장과 대순진리회의 『전경』에 등장하는 48장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대순진리회의 신앙체계와 『옥추보경』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추후 도교적 관점의 대순진리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본문에서 필자는 이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 먼저 계룡산 판본 『옥추보경』에 근거하여 48신장의 내력에 대한 초보적인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대순진리회의 48장에 대해서는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가 없고 추후 활용 가능한 유일한 자료 역시 대순진리회 영대에 봉안된 48장 신상도로 파악된다. 따라서 추후의 비교 연구를 위해 각 신위들의 형태적 특징에도 주목하였다. 비교 연구는 대순진리회의 48신상도가 입수된 이후에 진행하고자 한다.

계룡산 판본은 발행인을 쓰는 곳에 ‘용문 귀의 신 조복진 편집’(龍門 歸依 臣 趙複振 編輯)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진도(全眞道) 용문파(龍門派)로부터 전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복’(複)자는 전진도 용문파의 14대를 가리킨다.

필자는 『옥추보경』 중의 신장을 전법조사(傳法祖師)와 뇌부장수(雷部將帥)로 분류하고자 한다. 전법조사는 주로 도교신소파(道教神霄派)와 청미파(清微派)의 신선과 역사적 인물들을 말하는데, 만법교주(萬法教主) 진무대제(眞武大帝), 대법천사(大法天師) 장도릉천사(張道陵天師), 신공묘제허진군(神功妙濟許眞君) 허손(許遜), 해경백진인(海瓊白真人) 백옥섬(白玉蟾), 낙양살진인(洛陽薩真人) 살수견(薩守堅), 청미교주위원군(清微教主魏元君) 위화존(魏華存) 등이 이에 속한다. 『옥추보경』

집주본은 전진도가 매우 흥성했던 원대에 간행되었으므로, 전진도의 조사인 동화교주(東華敎主)[동화제군(東華帝君) 왕현보(王玄甫)를 말함]와 종려진선(鐘呂眞仙)[종리권(鐘離權)과 여동빈(呂洞賓)]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옥추보경』 중에 거론된 대부분의 뇌부장수(雷部將帥)는 도교 경전인 『도법회원』(道法會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유기』는 당시 매우 큰 영향을 끼쳤는데, 주된 내용은 선이 악을 제압한다는 명제 하에 진무대제가 책 중에 거론된 모든 신장들을 굴복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소설에 불과할 뿐 도교적 사실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신장의 내력을 분석하는데 있어 소설 중의 내용을 근거로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둔다.

1. 만법교주(萬法敎主)

만법교주(萬法敎主)는 곧 진무대제(眞武大帝)를 말한다. 진무대제는 현천상제(玄天上帝)라고도 하는데 ‘만법교주’라는 명칭은 명대의 『도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미신열비법』(淸微神烈秘法)에서는 만법교주를 ‘만법교주옥허사상자황태일천군’(萬法敎主玉虛師相紫皇太一天君)이라 하고,¹⁶⁾ 『제사성단충거작헌의』(諸師聖誕沖舉酌獻儀)에서는 ‘만법교주옥허사상현천상제’(萬法敎主玉虛師相玄天上帝)라 일컫는다.¹⁷⁾ 이 외에도 『도법회원』 41권에서는 만법교주를 ‘만법교주자황천일천군현천상제’(萬法敎主紫皇天一天君玄天上帝)¹⁸⁾라 하고, 82권에서는 ‘만법교주자황천원성인위상제’(萬法敎主紫皇玄天元聖仁威上帝)라 말한다.¹⁹⁾

16) 『道藏』, 第4册, p.152.

17) 같은 책, 第9册, p.65.

18) 같은 책, 第29册, p.27.

19) 같은 책, 第29册, p.321.

진무(眞武)의 본명은 현무(玄武)라고 하는데, 이는 천상이십팔수 중 북방칠수(北方七宿)의 총칭이다. 현무는 후에 북방흑제(北方黑帝)의 상징이 되었다.²⁰⁾ 중국 고대의 방위와 오행을 결합하는 관념에 의하면, 북방은 물에 속하므로 현무는 곧 수신(水神)이다. 송나라 진종(眞宗) 대중상부(大中祥符) 5년(1012)에 송나라 성조(聖祖)인 조현량(趙玄朗)의 명휘(名諱)와 동일한 글자를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무’를 ‘진무’라 고쳤다.²¹⁾ 송대에는 진무와 천봉(天蓬), 천유(天猷), 흑살(黑煞)[의성(翊聖)을 말함]을 ‘사성(四聖)이라 부르고 사대호법신(四大護法神)으로 받들었다. 진종(眞宗) 천희(天禧) 2년(1018)에는 진무를 ‘진무영응진군’(眞武靈應眞君)에 봉하였다.²²⁾ 이후 휘종(徽宗) 대관(大觀) 2년에 진무를 다시 ‘우성진무영응진군’(佑聖眞武靈應眞君)²³⁾에 봉하였고, 함종(欽宗) 정강(靖康) 원년(1126)에는 ‘우성조순진무령응진군’(佑聖助順眞武靈應眞君)²⁴⁾에 봉하였다. 원대 유도명(劉道明)의 『무당복지총진집』(武當福地總眞集) 하권에서는 송나라때 24자로 이루어진 “북극진천진무우성조순영응복덕인제정열협운보화진군”(北極鎮天眞武佑聖助順靈應福德仁濟正烈協運輔化眞君)이라는 봉호가 진무에게 주어졌다고 전하고 있다.²⁵⁾ 원의 성종(成宗) 대덕(大德) 7년(1303)에 진무는 다시 ‘원성인위현천상제’(元聖仁威玄天上帝)에 봉해졌으며,²⁶⁾ 이후 진무는 ‘진무대제’ 혹은 ‘현천상제’로 불려졌다.

『도장』에는 『원시천존설북방진무묘경』(元始天尊說北方眞武妙經)이 수록되어 있는데, 옛날 정락국(淨樂國)의 태자가 왕위 계승을 거부하여 42년간 입산수도 하였고, 득도하여 하늘에 올라 옥제의 명을 받들어 북

20) 한대의 위서 『河圖』에는 “북방의 흑제(黑帝)인 신의 이름은 섭광기(葉光紀)인데 현무(玄武)에 정통하였다”, “북방흑제의 몸은 현무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21) 李燾, 『續資治通鑒長編』, 卷七十九.

22) 『宋大詔令集』, 卷一百三十六; 李燾, 『續資治通鑒長編』, 卷九十二.

23) 『眞武靈應眞君增上佑聖尊號禮文』, 『道藏』, 第18册, p.42.

24) 馬端臨, 『文獻通考』, 卷九十.

25) 『道藏』, 第19册, p.658.

26) 『元史·成宗本紀』

방을 수호하게 되었으며, 후에 진무의 자리에 올라 천하의 사악한 요괴들을 물리쳤음을 전하고 있다.²⁷⁾ 『태상설현천대성진무본진신주묘경』(太上說玄天大聖眞武本傳神咒妙經)에서는 진무대제가 태상노군의 82번째 화신이라 말한다.²⁸⁾ 이 외에도 『동진군실록』(董眞君實錄)에서는 옥제가 진무를 태상자황천일진인(太上紫皇天一眞人), 옥허사상현천상제(玉虛師相玄天上帝)로 봉하여 구천탐방사의 직무를 맡겼다고 전한다.²⁹⁾

2. 동화교주(東華敎主)

동화교주(東華敎主)의 이름은 왕현보(王玄甫)인데, 그는 전진교(전진도라 칭하기도 함)에서 받드는 조사이다.

『도장』에는 진지안(秦志安)이 쓴 『금련정종기』(金蓮正宗記, 1241년에 저술되었다)가 수록되어 있다. 『금련정종기』의 서언에는 전진교의 “시조는 동화(東華)[동화제군]이고, 중양(重陽)[왕중양(王重陽)]이 도맥을 계승한 후, 다시 장춘파(長春派)[구처기(丘處機)]에게로 도맥이 전수되었다”³⁰⁾고 기록되어 있다. 『금련정종기』 제1권에 수록된 『동화제군전』(東華帝君傳)에서는 제군(帝君)의 성이 왕(王)이며, 자는 현보(玄甫)이고, 도호(道號)는 동화자(東華子)라 소개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화제군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생김새가 특이하였으며, 유년시절부터 신선을 동경하였다. 어느 날 신선이 구름 위에서 왕현보를 보고 천상의 신선이 하계에 태어난 것이라 하며 입산을 권유하였으며, 왕현보는 이를 계기로 도법을 전수받게 되었다. 입산 후

27) 『道藏』, 第1册, p.813.

28) 같은 책, 第18册, p.38.

29) 『太上說玄天大聖眞武本傳神咒妙經注』, 『董眞君實錄』, 『道藏』, 第17册, p.91.

30) 『道藏』, 第13册, p.344.

왕현보는 삼 년 동안 수련에 정진하여 묘법을 체득하였다. 그는 세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백 년 이상을 살았으므로 세인들이 그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했다. 후에 왕현보가 정양진인(正陽真人) 종리권(鐘離權)을 제자로 받아들이며서 전진의 도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므로 전진교에서는 왕현보를 시조로 받들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접할 수 있는 동화제군 왕현보의 생애에 관한 초기의 기록들이다.³¹⁾

원대의 도사인 조도일(趙道一)이 저술한 『역세진선체도통감』(曆世眞仙體道通鑒, 1294) 제20권에는 왕현보전(王玄甫傳)이 수록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선(上仙)의 성은 왕(王)이며 이름은 현보(玄甫)이고 한대(漢代)의 동해(東海) 사람이다. 스승께서는 구름 위의 진인으로부터 도를 전수받아 호를 화양진인(華陽真人)이라 하였다. 6월 15일에 강세하여, 10월 16일에 하늘로 승천하였는데 당시 어떤 왕조였는지는 알 수 없다. 후에 종리를 제자로 받아들여 그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종리는 곧 정양자(正陽子) 종리권(鐘離權)을 말한다.”³²⁾

동화교주는 원(元) 세조(世祖) 6년(1269)에 동화자부소양제군(東華紫府少陽帝)에 봉해졌으며, 원 무종(武宗) 3년(1310)에 다시 동화자부보원입극대제군(東華紫府輔元立極大帝君)에 봉해졌다.³³⁾

3. 대법천사(大法天師)

대법천사(大法天師)는 동한(東漢)시기에 도교 교단을 창립한 장도릉(張道陵) 천사를 말한다. 진대(晉代)의 갈홍(葛洪)은 『신선전』(神仙傳)에서 장도릉 천사에 대해 말하길, 자는 보한(輔漢)이며 패국(沛國)의

31) 같은 책.

32) 같은 책, 第5冊, p.215.

33) 『金蓮正宗仙源像傳』, 『道藏』, 第3冊, pp.366-367.

충현(豐縣)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 장도룡은 원래 태학(太學)의 서생이었으며 오경(五經)에 능통하였는데, 말년에 이르러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아는 원래의 지식은 장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므로 나이 오십에 이르러 장생의 도를 배우게 되었다”. 장도룡은 『황제구정단경』(黃帝九鼎丹經)을 얻게 되어 자양산(繁陽山)에서 수련에 정진하였으며, 후에 만산석실(萬山石室)에서 은서(隱書)와 비문(秘文)을 얻어 산악신(山嶽神)들을 제압하는 술(術)을 터득하게 되었다. 장도룡은 육십에 이르러 도를 이루었고, 촉나라의 민심이 순박하고 명산이 많다는 말을 듣고 촉나라에서 민심을 교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제자들을 이끌고 촉에 이르러 학명산(鶴鳴山)에 은거하였다. 또한 이 때 태상노군을 만나 도법을 전수 받았다. 이 시절 장도룡은 사천성 내 24지역의 마귀들을 물리쳐 다스리면서 그곳을 복정(福庭)이라 정하였다.³⁴⁾

『삼국지·장로전』(三國志·張魯傳)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장로(張魯)의 자(字)는 공기(公琪)이며 패국(沛國)의 풍현(豐縣) 사람이다. 그의 조부인 장도룡은 촉에 머물다 곡명산(鶴鳴山)에 은거하여 수도하였으며 이때 도서(道書)를 지어 백성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입도를 한 자로부터 다섯 말의 쌀을 받았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미적(米賊, 쌀 도둑)이라 불렀다.” ‘미적’이라는 말은 당시 통치자들이 민간에서 흥기한 종교를 비하하여 쓴 말이다.

당나라 때 도사인 맹안배(孟安排)는 『도교의주』(道教義樞) 제2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한나라 말에 천사 장도룡이 서촉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때 태상노군이 인세에 하강하였다. 한안(漢安) 원년(142) 5월 1일에 태상노군이 장도룡에게 삼천정법(三天正法)을 전수하고, 그를 천사로 명명하였으며, 정일도(正一道)의 과의(科儀)와 법술(法術)을 알려 주고 법문을 하사하였다. 같은 해 7월 7일에 태상노군은 장도룡에게 『정일맹위묘경』(正一盟威妙經)을 하사하고 삼업육통지결

34) 葛洪撰, 胡守注, 『神仙傳校釋』(北京: 中華書局, 2010), pp.190-191.

(三業六通之訣)을 전수하였으며 장도룡을 다시 삼천법사(三天法師), 정일진인(正一真人)이라 명하였다.³⁵⁾

후에 도문의 사람들이 장도룡을 받드는 의미로 그를 가리켜 “삼천 부교대법사정일보현정응진군”(三天扶教大法師正一輔玄靜應眞君)이라 하였다.³⁶⁾

4. 신공묘제허진군(神功妙濟許眞君);

7. 정양허진군(旌陽許眞君)

신공묘제허진군(神功妙濟許眞君)과 정양허진군(旌陽許眞君)은 동일한 신선으로 도교 정명파(淨明派)에서 신앙하는 조사인 허손(許遜)을 말한다.

도교서의 기록에 의하면, 허손의 자(字)는 경지(敬之)이며, 진대(晉代) 남창(南昌) 사람이다. 그는 젊은 시절에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어느 날 산에서 새끼를 밴 어미노루를 활로 쏘게 되었다. 어미노루가 배에 화살을 맞고 쓰러지자 새끼노루가 상처를 뚫고 어미의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 때 어미는 죽어가면서도 새끼 노루를 정성껏 핏아 줌으로써 새끼 노루가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본 허손은 깊이 감동 받아 활을 버리고 수도에 정진하였다. 후에 효렴(孝廉) 과시(科試)에 합격하여 진(晉)나라 태강 원년(太康 元年, 280)에는 정양(旌陽)을 덕으로 다스렸다. 당시 전염병이 크게 돌아 대부분의 지역민들이 죽게 되자 허손은 부적과 주문을 함께 쓰는 신방(神方)으로 사람들을 치료하여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였다. 이후 허손은 진나라 왕실이

35) 『道藏』, 第24册, p.815.

36) 『道門定制』, 卷三, 『道藏』, 第31册, p.685.

부패함을 개탄하며 관직을 버리고 동쪽의 남창(南昌) 지역에서 효도(孝道)의 법을 전파하였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허손의 교단에는 수백 명의 신도가 있었는데, 주된 인물은 12인이었으며 후에 사람들은 이들을 십이진군(十二眞君)이라 불렀다. 그들에 관한 이야기로는 마을에 재해를 끼치는 교룡과 큰 뱀을 죽여 백성을 돌보았다는 전설이 있다. 영강(甯康) 2년(374) 허손은 온가족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였는데 이 때 집안의 닭과 개들도 모두 그를 따라 승천하였다고 전해진다.³⁷⁾

도문에서는 허손을 높여 “구주도선태사고명대사지도현응신공묘제진군”(九州都仙太史高明大使至道玄應神功妙濟眞君)이라 칭한다.³⁸⁾

5. 홍제구천사(弘濟丘天師)

구홍제 천사(丘[邱]弘濟 天師)라는 이름은 명대 소설인 『서유기』(西遊記)에 나오는데 장도릉(張道陵), 갈현(葛玄), 허손(許遜)과 함께 ‘사대천사’(四大天師)라 불린다. 『서유기』 제 1회에는 “구홍제 진인이 천존께 ‘천존이시여, 동해용왕(東海龍王) 오광(敖廣)이 천존을 배알하고자 통명전(通明殿) 밖에 이르러 천존의 하교를 받고자 합니다.’고 아뢰었다.”는 구절이 있다. 또한 제 6회의 “보살을 맞이하기 위해 사대천사는 물론 맨 발로 달려 온 신선들이 통명전 앞에서 있었는데, 이 때 옥제는 요괴를 잡으러 간 천계의 병사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었다. 보살이 말하기를 ‘옥제를 뵈고자 하오니 옥제께 이를 전해 주십시오’라 하였다. 이에 천사 구홍제가 영소보전(靈霄寶殿)에 들어가 보살이 옥제를 알현하기를 청함을 고하였다.”는 내용과 31회

37) 『雲笈七籤』, 卷一百零六, 『許遜眞人傳』(『道藏』, 第22册, p.727) 참조, 白玉蟾撰, 『旌陽許眞君傳』(『修真十書』, 卷三十三에 수록된 『玉隆集』 참조, 『道藏』, 第4册, pp.755-761), 『許眞君仙傳』(『道藏』, 第6册, pp.809-814).

38) 『神功妙濟眞君禮文』, 『道藏』, 第9册, p.801.

의 “사대천사인 장도릉, 갈현, 구홍제, 허손이 물었다. ‘대성(大聖)은 언제 오시는가?’”라는 내용이 있다. 이 외에도 87회의 “구홍제, 장도릉, 갈현, 허손의 네 진인을 영소전(靈霄殿)으로 안내하였다”라는 구절이 있다.

장도릉, 갈현, 허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구홍제 천사는 어떤 사람인가? 필자는 도경을 필독하면서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신선으로 알려진 부구공(浮丘公)이라는 사람이 존재했었음을 알게 되었다. 원대의 도사인 진지허(陳致虛)[자는 관오(觀吾)이며 호는 상양자(上陽子)]는 『태상통현령보무량도인상품묘경주(太上洞玄靈寶無量度人上品妙經注)』 하권에서 “높은 덕을 갖춘 천사(天師), 정양(旌陽), 부구진군(浮丘眞君)은 모두 금궐(金闕)의 신하이다”³⁹⁾라 하였다. 진지허가 이들을 모두 천상 궁정의 신하라 함을 볼 때, 부구공을 천사 장도릉, 허손과 동일한 지위를 지닌 이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진지허는 『상양자금단대요』(上陽子金丹大要) 8권에서 “칠진과 오조는 모두 자비로 중생을 구하고자 하였는데 장도릉, 갈현, 허손과 부구공 조사 또한 때가 이르면 천제의 명을 받들어 승천할 것이다”⁴⁰⁾라 하였다. 이렇듯 장도릉, 갈현, 허손, 부구의 지위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서유기』의 관련 내용과 그 의미가 일치한다. 이 외에도 『무상구소옥청대법자미현도뇌정옥경(無上九霄玉清大梵紫微玄都雷霆玉經)』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원시천군이 태청무상원군(太清無上元君)에게 칙령을 내려 구주도선태사고명대사(九州都仙太史高明大使)[허손]가 뇌정태성(雷霆泰省)의 일을 보도록 하였으며, 태상옥경태극좌궁선옹(太上玉京太極左宮仙翁)[갈현]이 뇌정현성(雷霆玄省)의 일을 보게 하였고, 삼천부교보원대법사(三天扶教輔元大法師)[장도릉]가 뇌정도성(雷霆都省)의 일을 보게 하였으며, 부구대선(浮丘大仙)이 뇌정삼성(雷霆三省)의 일을 판결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일을 맡도록 하였다.”⁴¹⁾

39) 『道藏』, 第2册, p.432.

40) 같은 책, 第24册, p.29.

『태청도덕현화』(太淸道德顯化儀)에서는 장도룡, 갈현, 허손, 부구를 가리켜 “태현상상장진군(泰玄上相張眞君), 천기상상갈진군(天機上相葛眞君), 천추상상허진군(天樞上相許眞君), 첨서상상부구진군(僉書上相浮丘眞君)”⁴²⁾이라 하였다. 『도법회원』 40권에는 또한 “삼천성사태현상상정일진군(三天聖師泰玄上相正一眞君)[장도룡], 태극선공충응부우진군(太極仙公沖應孚佑眞君)[갈현], 구주도선태사신공묘제진군(九州都仙太史神功妙濟眞君)[허손], 구천장록상경부구진군(九天掌祿上卿浮丘眞君)”⁴³⁾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부구공이 장도룡, 갈현, 허손과 동일한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로써 ‘홍제구천사(弘濟丘天師)가 곧 부구공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홍제’라는 호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는 필자도 아직 아는 바가 없다.

부구공은 왕자교(王子喬)라는 유명한 신선의 스승이다. 『열선전』(列仙傳)에서는 “왕자교는 주나라 영왕(靈王)의 태자인 진(晉)이다. 진은 생황을 연주하는 것과 봉황의 울음소리를 내는 것에 능하였다. 유인(游伊)과 낙(洛)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도사 부구공이 진을 데리고 송고산(嵩高山)으로 들어갔다.”⁴⁴⁾

43대 천사인 장우초(張宇初)는 영락(永樂) 5년(1407)에 『화개산삼선사실서』(華蓋山三仙事實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구는 용성자(容成子), 황제(黃帝)와 벗하여 유람한 적이 있으며, 또한 주대(周代)말 영왕(靈王)의 태자인 진(晉)에게 도술을 전수하였고, 한대(漢代)에 신공(申公)에게 시를 주었다. 또한 초나라 원왕(元王)과 벗하였으며, 왕보(王褒)를 수도의 길로 이끌어 신선이 되게 하였다.”⁴⁵⁾

41) 같은 책, 第1冊, p.752.

42) 같은 책, 第18冊, p.265.

43) 같은 책.

44) 같은 책, 第5冊, p.68.

45) 『華蓋山浮丘王郭三眞君事實』, 『道藏』, 第18冊, p.44.

6. 허정장천사(許靜張天師)

허정장천사(許靜張天師)는 사실 ‘허정장천사’(虛靖張天師)로 불려야 하는데 그는 30대 천사 장계선(張繼先)을 가리킨다.

장계선(1092-1127)의 자(字)는 준정(遵正)[자를 가문(嘉聞)이나 도정(道正)이라 하기도 함]이며, 한대 장도릉 천사의 후예로서 북송말의 이름난 도사이다. 장계선은 9살에 가문의 업을 계승하였다. 그는 매우 과묵하였으며 야위고 피부가 희었다. 송 휘종 때 네 번에 걸쳐 수도에 초빙되어, 궁중의 초제를 지냈는데 휘종은 그에게 허정(虛靖)[虛靜이라고도 함]선생이라는 호와 함께 “양평치도공인(陽平治都功印)”이라고 각인된 곤옥(昆玉)을 하사 하였다. 황제는 또 조서를 내려 개봉(開封)의 동쪽에 송도관(崇道觀)을 지어 장계선이 묵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휘종은 용호산(龍虎山)의 상청궁(上清宮)을 보수하도록 장계선에게 자금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장계선은 수도에서 부수(符水)를 사용하여 백성들의 병을 고쳤다. 휘종이 사자를 파견하여 도의 요결을 묻자 장계선은 휘종에게 『대도가』(大道歌)를 지어 올렸다. 이후 그는 대관(大觀) 2년(1108)에 다시 입산하여 촉, 진나라를 다녔다. 정미(丁未, 1127)년에 이르러 궁정으로 돌아오라는 흠종(欽宗)의 명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 사주(泗州)에 이르러 운명하였는데 당시 향년 36세였다.⁴⁶⁾ 장계선의 행적과 관련된 글로 『삼십대천사허정진군어록』(三十代天師虛靖眞君語錄)이 전해지고 있다.⁴⁷⁾

남송시기 누약유(樓鑰有)는 『공제휘종사장계선어시』(恭題徽宗賜張繼先禦詩)에서 가정(嘉定) 5년(1212)에 태일궁(太一宮)을 관리하는 역여(易如)라는 사람이 송 휘종이 장계선에게 준 친필 시편을 소장하고 있

46) 元代 張雨, 『玄扈錄』, 卷五(『道藏』, 18册), p.139; 趙道一, 『曆世眞仙體道通鑿』, 卷十九(『道藏』, 第5册), pp.211-212; 『漢天師世家』, 卷三(『道藏』, 第34册), pp.826-828 참조. 『漢天師世家』, 卷三(『道藏』, 第34册), pp.826-828 참조.

47) 『道藏』, 第32册, pp.368-389.

던 중 자신에게 시편의 발문을 쓰게 하였다고 하였다. 누약유는 당시 장계선을 숭배하여 발문에 “한나라의 천사는 촉(蜀)에서 성도(成道)하여, 용호산(龍虎山)에서 도의 가르침을 전파하였다. 삼십 대에 와서 허정(虛靖)이 출세 하였는데, 그는 신선의 용모를 하고 있었으며 도술 또한 뛰어났다. 천사가 다시 부활한 것이라 하여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⁴⁸⁾라고 하였다.

8. 해경백진인(海琮白眞人)

해경백진인은 남송의 도사 백옥섬을 말한다. 백옥섬은 실제로 도교 금단파(金丹派)의 창시인이며, 전진도(全眞道) 남오조(南五祖)의 일인이기도 하다.

원대(元代)의 도사 조도일(趙道一)의 『역세진선체도통감』(曆世眞仙體道通鑿) 49권에는 『백옥섬전』(白玉蟾傳)이 수록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생의 성은 백인데 그의 모친은 아이의 이름을 옥섬이라 하라는 꿈을 꾸었다. 자(字)는 열중포(閱衆甫) 혹은 여회(如晦)이다. 본적은 복건(福建)이지만 조부가 경주(瓊州)[지금의 해남도(海南島)]에서 관직에 있을 때 그 곳에서 태어났으므로 스스로 호를 해경자(海瓊子)라 하였다. 소년시기에 수재(秀才)에 합격하였으나 성년이 된 후 과거를 포기하고 각지를 다녔다. 후에 금단파(金丹派)를 세상에 전한 진남(陳楠)[호는 취허(翠虛) 혹은 니환(泥丸)]을 스승으로 삼았다. 당시의 사대부들은 특수인재를 채용하는 명목으로 그를 관직에 추천하고자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백옥섬은 꾸밈이 없는 소박한 모습으로 나부산(羅浮山), 무이산(武夷山) 등의 명산을 다니며

48) 樓鑰, 『攻媿集』, 六十九卷.

심신을 도야하였다. “백옥섬은 유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지녔음과 동시에 선학의 이치에도 능통하였다. 뛰어난 가르침을 지니고 있었으며, 글을 지을 때에는 특별한 수식을 하지 않았다. 비록 몸은 가난하였으나 그가 남긴 글은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였다.” 백옥섬은 도교부록 중의 하나인 상청록(上淸籙)의 법을 전수받아 뇌법(雷法)에 정통하였다.⁴⁹⁾

『도법회원』(道法會元) 147권에는 통현옥추뇌정대법(洞玄玉樞雷霆大法)이 수록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진인(白真人) 종사(宗師)는 해경(海瓊) 사람으로 원래의 성은 제갈(諸葛)이며 이름은 맹(猛)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고 성인이 된 후에도 매우 특별하였다. 어느 날 백옥섬은 인생이란 것이 부식돌이 일으키는 불꽃처럼 찰나에 불과하며, 말이 잠시간의 거리를 달리는 것과 같이 짧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부귀영화를 저버리고 신선의 길을 택했으며, 조용히 은거하기 위해 자신의 본명을 감추고 스스로 백옥섬이라 하였다.” 『통현옥추뇌정대법』(洞玄玉樞雷霆大法)에서는 백옥섬이 길에서 신천군(辛天君)을 만나 그로부터 ‘통현옥추뇌법’ (洞玄玉樞雷法)을 전수받았다 하였으며, “백옥섬은 진니환, 신천군으로부터 도법을 전수받았는데 이렇듯 신선들로부터 도법을 전수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⁵⁰⁾라 하였다.

백옥섬의 제자인 유원장(留元長)은 『해경문도집서』(海瓊問道集序)에서 정축년(丁丑年) 봄에 “해경백진인을 만났는데 그의 성씨는 백(白)이고, 휘는 옥섬(玉蟾)이며, 운해남인(雲海南人)인 듯한데, 아마도 양면(襄沔)에 본가가 있는 것 같다.”⁵¹⁾라 하였다. 백옥섬의 또 다른 제자로 알려진 팽사(彭耜)는 『해경옥섬선생사실』(海瓊玉蟾先生事實)에서 “선생의 성은 갈(葛)이고, 휘는 장경(長庚)이며, 자는 백수(白叟)이다.

49) 『道藏』, 第5册, pp.385-386.

50) 같은 책, 第29册, pp.763-764.

51) 같은 책, 第33册, p.140.

백옥섬의 선조는 복건성의 민청(閩淸) 사람이다.”⁵²⁾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백옥섬의 본명에 대한 제자들의 견해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백옥섬은 신소뇌법(神霄雷法)의 중요한 전수인이다. 그는 『옥추보경』과 신소파(神霄派)의 시조인 왕문경(王文卿)이 쓴 『현주가』(玄珠歌)에 주를 달았고,⁵³⁾ 또한 왕문경이 전한 『왕화사뇌정오지』(汪火師雷廷奧旨)에 서문을 썼다.⁵⁴⁾ 백옥섬 본인은 『뇌정삼수심록』(雷霆三帥心錄) 등을 저술하였다.⁵⁵⁾ 그는 또 『도천대뇌옥서』(都天大雷玉書)를 팽사(彭耜)에게 물려주기도 하였다.⁵⁶⁾ 백옥섬은 제자인 유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도천대뇌(都天大雷)는 신소옥추(神霄玉樞)에서만 볼 수 있어 경소대뇌(景霄大雷)라 한다. 경소(景霄)는 비록 신소에 부속되어 있으나, 원래는 임금이 출행 시에 머물던 곳이었다. 하늘의 진인이 낭야맹리뇌부관관신한신(狼牙猛吏雷部判官辛漢臣)을 파견하여 나의 스승인 진취허에게 도법을 전수하게 하였고, 진취허가 나에게 도법을 전수해 주었으며, 지금에 이르러 내가 너에게 도법을 전하니 이에 도법을 비밀에 부치고 잘 지켜야 할 것이다.”⁵⁷⁾

9. 낙양살진인(洛陽薩真人)

낙양살진인(洛陽薩真人)은 송대의 도사인 살수견(薩守堅)을 말하는 데, 이름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낙양’(洛陽)이 ‘분양’(汾陽)으로 오인되기도 하였다.

52) 『白真人集』, 一卷, 蕭天石主編, 『道藏精華』(臺北: 自由出版社, 1980), 第10集之二上, p.29.

53) 『道法會元』, 七十卷, 『道藏』, 第29册, pp.234-239.

54) 『道法會元』, 七十六卷, 『道藏』, 第294册, p.262.

55) 『雷霆三帥心錄』, 『道藏』, 第29册, pp.328-330.

56) 『靜余玄問』, 『道藏』, 第32册, p.411.

57) 『海瓊白真人語錄』, 一卷, 『道藏』, 第33册, p.115.

원대의 도사인 조도일(趙道一)이 쓴 『역세진선체도통감속편』(曆世眞仙體道通鑒續編) 4권에는 『살수견전』(薩守堅傳)이 수록되어 있는데, 살진인(薩真人)은 이름이 수견(守堅)이며 남화(南華)의 서하(西河) 사람으로 자칭 분양살객(汾陽薩客)이라 하였다. 원래 의학을 공부하였으나 실수로 약을 잘못 써서 환자가 죽게 되자 의술을 버리고 수도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30대 천사 장계선과 임영소, 왕문경이 수도한 경지가 매우 높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였다. 사천에서 섬서성까지 이르렀을 때 여비가 이미 바닥나 돌 위에 주저앉아 상심하고 있는데 우연히 세 명의 도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 중 한 도사가 살진인에게 주조술(呪棗術)을 가르쳐 주면서 대추 하나를 사용하여 주문을 외우면 7전(錢)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또 다른 한 도사가 살진인에게 종려나무 부채를 건네주며 병자에게 부채를 부쳐 주면 곧 병이 나을 것이라 하였다. 마지막 도사는 그에게 뇌법을 전수해 주었다. 살진인이 신주(信州) 용호산(龍虎山) 천사부(天師府)에 이르렀을 때, 천사가 승천하였으나 당시 그는 천사가 친필로 쓴 편지를 전해 받았다. 사실 그가 길에서 만난 도사가 곧 장계선, 임영소, 왕문경이었다. 살수견은 산 사람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지내는 성황묘를 불태워 없앤 적이 있는데,⁵⁸⁾ 성황묘의 신인 왕선(王善)이 이에 앙심을 품고 12년간 살수견을 쫓아 다니며⁵⁹⁾ 살수견이 계율을 어기는 때를 틈타 보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살수견이 계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왕선은 보복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살수견의 성심에 감동을 받게 되어 살수견의 호법부장이 되었다.⁶⁰⁾ 왕선은 후에 도관에서 모시는 호법신(護法神)인 왕령관(王靈官)이 되었다.

58) 『繪圖三教源流搜神大全』에서는 사당의 신에게 동남동녀를 산 제물로 바쳤다고 되어 있다.

59) 원각에서는 ‘3년’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12년’을 ‘3년’으로 잘못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白玉蟾의 『道法九要』에 수록된 ‘持戒第四’에서는, 薩真人이 사당을 불태운 뒤 사당의 신이 12년간 진인을 따라 다녔으나 진인은 조금도 죄를 짓는 법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道法會元』, 一卷)

60) 『道藏』, 第5册, p.438.

『도법회원』 241권부터 243권에 걸쳐 ‘뇌정삼오화차영관왕원수비법’(雷霆三五火車靈官王元帥秘法), ‘활락영관비법’(豁落靈官秘法)과 ‘남극화뇌영관왕원수비법’(南極火雷靈官王元帥秘法)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모두 살수건을 도법을 전하는 조사(祖師)로 기록하고 있다.

10. 주뢰등천군(主雷鄧天君)

주뢰등천군(主雷鄧天君)은 뇌정삼수(雷霆三帥)[등(鄧), 신(辛), 장(張)] 중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도경에서는 주뢰등천군을 뇌정홍화율령대신염제등천군(雷霆歛火律令大神炎帝鄧天君)이라 칭하며, 이름은 섭(燮), 자는 백은(伯溫)이라 하였다. 『도법회권』 80권에서는 주뢰등천군의 형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붉은 머리에 금관을 썼으며, 눈은 세 개이며 얼굴은 푸르다. 봉황의 입과 날개를 지녔으며, 왼손에는 송곳을 오른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있다. 붉은 몸에 구슬을 두르고 있으며, 손과 발이 다섯 개이며, 금 귀고리를 하고 있다. 붉은 치마를 입고, 허리에는 녹색의 풍대(風帶)를 둘렀으며, 날개 아래로 두 개의 머리가 있는데 왼쪽 날개 아래의 머리는 바람을 다스리고 오른쪽 날개 아래에 있는 머리는 비를 다스린다. 타고르는 불길이 전체 형상을 감싸고 있으며 붉은 용을 타고 있다.”⁶¹⁾ 이 외에도 『법해유주』(法海遺珠) 24권에 기록된 형상은 다음과 같다. “푸른 몸과 푸른 얼굴에 봉황의 부리가 있으며, 치아는 은빛이고 머리카락은 붉다. 키가 백장(百丈)에 이르며, 오른손에는 뇌추(雷錘)를, 왼손에는 뇌 송곳을 들고 있다. 양쪽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고, 눈에서는 빛을 뿜어내며 발에는 용의 발톱이 있다. 삼계(三界)를 날아다니며 귀신을 잡아먹는다.”⁶²⁾

61) 같은 책, 第29冊, p.300.

『도법회원』 제56권, 57권에 기록된 등천군의 내력은 다음과 같다. 황제 시기의 등백온(鄧伯溫)은 군사를 통솔하여 황제가 치우(蚩尤)를 이기는데 공을 세워 하남장군(河南將軍)에 봉해졌다. 후에 황제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관직을 버리고 무당산(武當山)에서 수행하였다. 그러나 인육을 먹은 적이 있어 승천할 수 없었는데 상제가 이를 가엾게 여겨 무당산을 지키도록 명하였다. 이 때 등천군은 세인들이 불충하고 불효함은 물론, 서로 해치고 업신여기며, 강한 자가 약자를 무시하고, 귀한 자가 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갈수록 심해짐을 보게 되었다. 이에 그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자신이 신뢰(神雷)가 되어 하늘을 대신하여 악인들을 소탕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끊임없이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그가 노기충천하자 갑자기 몸이 박쥐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고, 봉황의 부리와 은색 치아를 갖게 되었으며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날개가 자라고 손발에는 용의 발톱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몸이 변한 등천군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며 요괴와 정령을 잡아먹고 요사스런 용을 퇴치하였다. 이에 상제는 그를 율령신에 봉하였으며 신뢰에 속하도록 하였다. 이후 5월 5일 오시(午時)에 남궁화령(南宮火鈴)의 집에서 신뢰(神雷)가 뺨어 올라갔다.⁶³⁾

『도법회원』에서는 등천군은 위력이 대단하여 그가 위엄을 떨칠 때는 두 날개로 사해의 물을 휘저어 곤륜산이 잠기게 하며 산화와 대지를 무너뜨린다고 하였다.⁶⁴⁾ 이 외에도 『도법회원』에서는 “이 신은 거위 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므로 등천군의 형상이 있는 그림을 걸어 놓고 거위 피로 그를 공양하도록 한다. 정심으로 기도하면 매우 영험하다. 만약 기도 시 거위 피가 없으며 양 피로 대신한다. 신부(神符)를 불사르면 귀신이 물러가고 갖은 병을 고칠 수 있으며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다. 그의 형상을 출입문이나 대청에 걸어놓으면 집안의 재액

62) 같은 책, 第26册, p.861.

63) 같은 책, 第29册, p.139, 153.

64) 같은 책, 第29册, p.153.

이 소멸되고 모든 악재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였다.⁶⁵⁾

11. 판부신천군(判府辛天君); 14. 통현교주신조사(洞玄教主辛祖師)

판부신천군(判府辛天君)과 통현교주신조사는 동일한 신신이다. ‘뇌정삼수’(雷霆三帥)의 하나이자 통현뇌법(洞玄雷法)을 인세에 전한 사람이기도 하기에 조사(祖師)라 불린다.

신천군(辛天君)은 도경(道經)에서 뇌정정령청제신천군(雷霆正令靑帝辛天君), 뇌정정령도독상서신천군(雷霆正令都督尙書辛天君), 장뇌정화광은아요목제점삼계철필연법대판관(掌雷霆火光銀牙耀目提點三界鐵筆演法大判官), 부풍맹리(負風猛吏)라 불리는데 이름은 한신(漢臣)이고 일명 충의(忠義)라고도 한다. 『도법회원』 81권에서는 그의 형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이(牛耳) 두건을 쓰고 있으며, 머리카락은 붉고 얼굴은 청동 빛이다. 치아는 마치 검(劍)과 같은 은빛을 발하는데, 비취색의 갓옷을 걸치고 붉은 신발을 신고 있다. 왼손에 뇌부의 장부를 들고 있고 오른손에 뇌부의 붓을 들고 있으며 머리 위로 붉은 광채가 발하고 있다.”⁶⁶⁾ 『청미원강대법』(淸微元降大法) 13권에서는 그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푸른 얼굴에 우이 두건을 쓰고 금 갓옷을 입었다. 금빛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지녔으며, 눈은 광채를 발한다. 이는 은빛이고 녹색 도포를 입었으며 검은 장화를 신었다. 왼손에는 장부를 오른손에는 화필(火筆)을 들고 있다.”⁶⁷⁾

65) 같은 책, 第29冊, p.154.

66) 같은 책, 第29冊, p.315.

67) 같은 책, 第4冊, p.214.

12. 비첩장천군(飛捷張天君)

비첩장천군(飛捷張天君)은 뇌정삼수[등(鄧), 신(辛), 장(張)] 중의 세 번째 서열에 속한다. 도경에서는 그를 뇌정행령비첩보응장천군(雷霆行令飛捷報應張天君), 화뢰비첩보응사자(火雷飛捷報應使者), 직부비첩보응사자(直符飛捷報應使者)라 기록하고 있다. 이름은 아(亞)이며, 일명 각(珪)이라고도 불리는데 자는 원백(元伯)이다. 『도법회원』 81권에서는 그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천정관(天丁冠)을 썼으며 푸른 얼굴에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다. 붉은 옷을 입고 금빛 갑옷을 걸쳤으며 붉은 신을 신고 도끼를 들고 있다.” 90권에서는 또 “머리에 빨이 있고, 날개가 있으며, 머리와 몸이 모두 붉다. 봉황의 발톱을 지녔고, 천정관을 썼으며 허리에는 풍대를 둘렀다. 왼손에는 뇌기(雷旗)를, 오른손에는 뇌도끼를 들고 흑룡을 타고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법해유주』 제40권에서의 묘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붉은 얼굴에 교각두건을 쓰고 있는데 이마 부분은 황색을 띠고 있다. 황금 갑옷, 소매가 좁은 도포와 바지를 입었으며 비대를 두르고 푸른 장화를 신고 있다. 쇠도끼를 들고 벼락의 불길을 타고 있다.”⁶⁸⁾

『무상현원삼천옥당대법』(無上玄元三天玉堂大法) 24권에서는 장원백(張元伯)에 대해 오부귀수(五部鬼帥) 중의 일인이었으나, 후에 조천사(祖天師) 장도룡에게 굴복하여 바른 길을 걷게 되었으며, 충심으로 일에 임했으므로 뇌부직부사자(雷府直符使者)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전한다.⁶⁹⁾

『여청귀율』(女靑鬼律) 6권에는 오방귀주(五方鬼主)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방청기귀주(東方靑炁鬼主)의 성은 유(劉)이며, 이름은 원달(元達)이다. 많은 귀신을 통솔하며 풍습병을

68) 같은 책, 第26冊, p.948.

69) 같은 책, 第4冊, p.89.

다스린다. 남방청기귀주(南方靑炁鬼主)의 성은 장(張)이며 이름은 원백(元達)이다. 많은 귀신을 통솔하며 열사병을 다스린다. 서방백기귀주(西方白炁鬼主)의 성은 조(趙)이며 이름은 공명(公明)이다. 많은 귀신을 통솔하고 신병을 다스린다. 북방흑기귀주(北方黑炁鬼主)의 성은 종(鐘)이며 이름은 사계(士季)이다. 많은 귀신을 통솔하고 광란에 의한 복통을 다스린다. 중앙황기귀주(中央黃炁鬼主)의 성은 사(史)이며 이름은 문업(文業)이다. 많은 귀신을 통솔하며 악성 증기를 다스린다.” 오방귀주(五方鬼主)는 조천사 장도릉에게 사로잡힌 이후 바른 길을 걷게 되었으며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갖은 전염병을 다스리게 되었다.⁷⁰⁾

송대의 유명한 도사인 왕문경[신소과 조사]이 쓴 『화뇌서』(火雷序)에서는 뇌정삼수(雷霆三帥) 모두가 원시의 기에 의해 탄생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첩장각(飛捷張珪)은 화뇌(火雷)의 기에 의해 형체가 만들어졌으며, 현기(玄炁)이고 통신(洞神)이며 존신(尊神)이다. 일(一)에서 이(二)가 생겨나고, 삼기(三氣)에서 형체가 생기는데, 그 이름을 홀화등섭(歛火鄧燂)이라 한다. 그는 원시의 기이고 통진(洞眞)의 존신(尊神)이다. 삼신(三神)은 원래 하나의 신인데, 세 개의 형체로 분리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⁷¹⁾

백옥섬의 『뇌정삼수심록』(雷霆三帥心錄)에서는 삼수(三帥)가 모두 복희의 후예라 기록하고 있다. 태호복희씨의 성은 풍(風)이며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 중 장남 축융(祝融)은 자(字)를 백용(伯庸)이라 하였는데 그는 곧 지금의 남두화궁(南斗火宮)이다. 차남 옥광(郁光)은 자(字)를 백온(伯溫)이라 하였는데 그가 곧 홀화대신등수(歛火大神鄧帥)이다. 등수(鄧帥)는 공을 세워 등허(鄧墟)에 봉해졌는데 원래 성이 풍씨였으므로 풍후온(風後溫)이라 하였다. 복희, 신농, 황제의 시기를 거쳐 제곡고신씨(帝嚳高辛氏)에 이르러서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을 혜(僖)라 하고 차남을 융연(隆延)이라 하였다. 신수(辛帥)는 융연의 둘

70) 같은 책, 第18册, p.250.

71) 『道法會元』, 八十四卷, 『道藏』, 第29册, p.342.

째 아들이다. 고신씨(高辛氏) 이후에 조상의 성인 신씨(辛氏)를 사용하였다. 용연의 첫째 아들이 부풍(扶風)이고, 부풍의 아들은 지수명(摯收明)인데 그가 곧 장수(張帥)이다. 왕이 그의 공을 치하하여 장지(張地)를 하사해 주었으므로 성씨를 장(張)으로 하였다. 백옥섬은 뇌정삼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뇌정삼수는 원래 한 집안사람이다. 현재에 이르러 수장을 홍화등백온(淸火鄧伯溫)이라 하고, 판관(判官)을 부풍신한신(負風辛漢臣)이라 하며, 사자를 직부장원백(直符張元伯)이라 한다.”⁷²⁾

13. 월패주천군(月孛朱天君)

도경에서는 월패주천군을 가리켜 태을월패유광주천군(太乙月孛流光朱天君), 태을옥현원수화음유광주천군(太乙玉玄元帥華陰流光朱天君), 태을월패유광충원부사(太乙月孛流光沖元符使), 구천비강착승홍뇌체전태을월패뇌군(九天飛罡捉崇轟雷掣電太乙月孛雷君)이라 칭한다. 『도법회원』 148권에서는 그의 형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피부가 백옥 같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다. 세 개의 눈에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신을 신고 있다. 머리에 관을 쓰고 있으며 손에 금월부(金鉞斧)를 들고 있다. 혹은 월광이 비추이는 가운데 검을 들고 있다.”⁷³⁾ 그리고 215권에서는 “성은 주(朱)이고 휘는 광(光)이며 천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머리를 풀어헤친 전라의 모습이며 검은 구름이 배꼽 부분을 가리고 있다. 붉은 신을 신고 왼손에는 가뭄을 일으킨다는 전설상의 괴물인 한발(旱魃)의 머리를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검을 잡고 옥룡을 타고 있다. 변신을 한 또 다른 모습은 푸른 얼굴에 송곳니를 지닌

72) 『道藏』, 第29冊, pp.328-329.

73) 같은 책, 第29冊, p.768.

홍악한 생김새에 붉은 옷을 입고 검을 들고 있으며 꿈을 타고 있다.”⁷⁴⁾라 하였다. 『청미원항대법』(淸微元降大法)에서는 월패주천군을 주흥(朱興)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25권에서 형상을 묘사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금빛의 봉황 날개를 지녔고 투구를 썼으며 푸른 얼굴을 하고 있다. 눈은 세 개이며, 머리카락은 붉고, 보름달과 같은 모습에 황금빛 갑옷을 입었으며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신을 신고 있다. 왼손에는 불구슬을 들고 오른손에는 미늘창을 들고 있다.”⁷⁵⁾

월패는 도교에서 숭배하는 성수신(星宿神)인 ‘십일대요(十一大曜)’ [일(日), 월(月), 오성(五星), 나후(羅睺), 계도(計都), 자기(紫炁), 월패(月孛)]의 하나로서 ‘태일월패성군’(太一月孛星君)이라 불린다. 이사충(李思聰)이 엮은 『통원집』(洞淵集) 7권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태일월패성군은 구천 아래 일체의 흥살을 주관하여 막는다. 성군(星君)은 성관(星冠)을 쓰고 있으며 붉은 신을 신고 오묘한 노을과 학이 수놓인 예복을 입고 있다. 오간(五簡)을 잡고 칠성보검(七星寶劍)을 들고 있으며, 허리에 둥근 백옥패를 늘어뜨리고 있다. 잘못된 길을 가면 불행이 오고 옳은 길을 가면 행운이 따를 것이니 역행하는 자에게 벌을 내린다.”⁷⁶⁾

『태상삼통신주』(太上三洞神呪) 6권에는 ‘소월패주천군주’(召月孛朱天君呪)라는 주문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극한 음의 정기로 금목(金木)이 화생하게 한다. 옥추에서 칙명을 내리면 태일뇌군(太一雷君)이 발가벗은 몸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유롭게 삼계를 활보한다. 손에는 보검을 들고 전광석화와 같이 민첩하게 움직인다. 뇌정(雷霆)이 그 명을 받들고 만령(萬靈)을 부린다. 신검(神劍)을 한 번 내리 치면 사악한 귀신이 형체도 없이 사라진다.”⁷⁷⁾

74) 같은 책, 第30册, p.335.

75) 같은 책, 第4册, p.274.

76) 같은 책, 第23册, p.849.

77) 같은 책, 第2册, p.95.

15. 청미교주조원군(淸微敎主祖元君)

청미교주조원군(淸微敎主祖元君)은 도교 청미파(淸微派)의 창시자인 조서(祖舒)를 말한다. 『청미선보』(淸微仙譜)에서는 조서를 수도(遂道)라고도 하는데, 자(字)는 방중(昉仲)이다. 월패성신의 화신으로 당(唐)나라 소종(昭宗)때 인세에 강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청미교주조원군은 광서(廣西)의 영릉군(零陵郡) 사람이다. 검붉은 얼굴에 눈이 크고 신장이 7척에 이르렀다. 어려서부터 영민하면서도 특이하였고, 입도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부모도 막을 수 없었는데, 입도 후에 명산을 두루 편력하였다. 계양군(桂陽軍) 강저석(江渚石) 부근에 이르렀을 때 명대 원비(元妃)의 화신인 영광성모(靈光聖母)를 만나 청미자연선천(淸微自然先天)의 오묘한 법을 전수받았다. 계속 이동하다가 서경(西京) 부근의 산속에서 태청태현문원군(泰淸太玄文元君)을 만나 상청(上淸), 영보(靈寶), 도덕(道德), 정일(正一)의 뜻과 취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로써 조서는 도교오파(道敎五派)의 오묘한 법을 터득하게 되어 뇌정(雷霆)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는 청미동조부(淸微洞照府)를 다스리고 교법(敎法)을 주재한다. 도경에서는 조서를 존칭하여 “청미시원상신현도총진구기원령부인(淸微侍元上宸玄都總眞九氣元靈夫人), 태황경명동양금필소응묘도보선원군(太皇景明洞陽金闕昭凝妙道保仙元君)”⁷⁸⁾이라 한다.

16. 청미교주위원군(淸微敎主魏元君)

청미교주위원군(淸微敎主魏元君)은 도교 상청파(上淸派)의 창시자인 위화존(魏華存)을 말한다. 청미파(淸微派)에서는 조원군(祖元君)을 종사(宗師)로, 위

78) 같은 책, 第3冊, pp.330-331.

원군(魏元君)을 조사(祖師)로 받들며 ‘청미교주교원신조태초원군’(清微教主高元宸照太初元君)이라 높여 부른다.

위화존(魏華存, 251-334)의 자(字)는 현안(賢安)이며, 진대(晉代)의 여도사인데 도교에서는 그녀를 자허원군(紫虛元君), 남악위부인(南嶽魏夫人)이라 부른다. 위화존은 산둥(山東)의 임성(任城)에서 사도(司徒)라는 직책을 맡은 관리였던 위서(魏舒)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도를 좋아하였고 조용한 성품에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타인을 대했다. 신선이 되고자 하여 늘 검은 참깨, 복령환(茯苓丸)을 먹었으며 토납(吐納)으로 양생에 힘썼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수도에 정진하고자 하였으나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다. 24세가 되던 해에 부모가 강제로 위화존을 태보(太保)를 맡은 관리이며 남양(南陽)사람인 유문(劉乂)[자(字)는 유언(幼彦)]에게 시집보냈다. 그녀는 시집을 가서 두 아이를 낳았는데 장남은 박(璞)이고 차남은 하(瑕)이다. 후에 유문이 수문현(修武縣)의 현령이 되자 부인도 그 뒤를 따라 수문현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두 아들이 장성한 후에 위화존은 남편과 별거하며 조용한 곳에서 홀로 수련에 정진하였다. 진(晉)나라 성제(成帝) 때에 이르러 청허진인왕포(淸虛真人王褒) 등의 신선들이 인세에 하강하여 위화존에게 31권의 『상청경』(上淸經)을 하사하고 도법을 전수하였다. 그 후 함화(咸和) 9년(334)에 승천하였다. 위화존은 흥녕(興寧) 2년(364)에 인세에 하강하여 『양희상청경록』(楊羲上淸經錄)을 세상에 전했다.⁷⁹⁾

17. 통현전교마원군(洞玄傳教馬元君)

통현전교마원군(洞玄傳教馬元君)의 이름은 사청(士淸)이고 백옥섬의 제자이다. 통현전교마원군과 연관하여 『도법회원』 147권에는 다음과

79) 『太平廣記』, 五十八卷에 수록된 『魏夫人傳』, 『太平御覽』 六百七十八卷에 수록된 『南嶽魏夫人內傳』, 『雲笈七籤』 四卷에 수록된 『上淸源統經目注序』 및 『上淸經述』 참조.

같은 기록이 있다. 천주(泉州)의 마거사(馬居士)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성년이 되었으나 출가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어려서부터 향을 피우고 재계하며 지인(至人)을 만나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정성에 감복한 백옥섬 진인이 나타나 그녀에게 통현지법(洞玄之法)을 전수하였다. 원(元) 18년(1281)에 천주(泉州)에 큰 가뭄이 들어 중서좌승(中書左丞) 포수경(蒲壽庚)이 도승으로 하여금 하늘에 기도하게 하였으나 효험이 없었다. 이 때 포수경의 문객이 “시박사마거사(市舶司馬居士)의 딸이 도법에 능하니 그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 볼 것”을 청하였다. 이에 포좌승이 부하 관리인 옹법건(翁法建)에게 명하여 제단을 만들어 시박사마거사의 딸에게 기우제를 올리게 하였다. 당시 마원군은 기도로 3일 내에 비가 내리게 할 것이라 하였는데, 과연 3일 내에 비가 내렸다. 포좌승은 마원군에게 비단을 주며 감사의 뜻을 표했으나, 마원군은 선물을 받지 않았으며 하늘의 뜻을 받들어 옹법건을 제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였으므로 포좌승이 이를 허락하였다. 이후 마원군은 옹법건에게 도법을 전수하였는데 옹법건은 다시 설사순(薛師淳), 조국존(趙菊存), 정송은(丁松隱) 등에게 도법을 전하였다.⁸⁰⁾

『법해유주』(法海遺珠) 1권에서는 통현뇌법(洞玄雷法)을 전수하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통현교주묘행진인신소옥추청령뇌정천군 신충의(洞玄教主妙行真人神霄玉樞青靈雷霆天君 辛忠義) → 태미시신통현고명군 백옥섬(太微侍宸洞玄高明君 白玉蟾) → 자하부풍통현원명군 마사청(紫霞扶風洞玄元明君 馬士清) → 통현통명중시경 옹법건(洞玄通明中侍卿 翁法建) → 통현원명송시경 설사순(洞玄元明崇侍卿 薛師淳).⁸¹⁾

명대의 정진(鄭眞)은 『형양외사집』(滎陽外史集) 50권에 수록된 『통현전종화상찬』(洞玄傳宗畫像贊)에서 세간에서는 통현뇌법(洞玄雷法)의 시조를 유진군(劉眞君)이라 하며 뒤이어 백옥섬(白玉蟾)과 마현군(馬

80) 『道藏』, 第29冊, p.764.

81) 같은 책, 第26冊, pp.725-726.

玄君)이 그 뒤를 승계하였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현군(玄君)은 마태수(馬太守)의 딸인데 홀로 바다를 건너도 죽지 않았으며, 눈을 감고 바람을 타고 천주(泉州)에 이르렀고 구천(叩泉)의 도관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곳은 그녀의 고택이었다. 백옥섬을 제자로 받았으며, 이후 왕뇌일(汪雷日), 설통현(薛洞玄), 정송은(丁松隱), 예료연(倪了然) 등의 일곱 명에게 도법을 전하였다.”라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마현군(馬玄君)은 ‘마원군(馬元君)을 잘못 기록한 것이며, 유진군(劉眞君)은 옥부(玉府)의 유천군(劉天君)을 말한다.

18. 혼원교주노진군(混元教主路眞君)

혼원교주노진군(混元教主路眞君)은 노대안(路大安)을 말한다. 원대의 도사인 조도일이 쓴 『역세진선체도통감』(曆世眞仙體道通鑿) 21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진인의 성은 노(路)이고 이름은 광(光)이며 대안(大安)이라고도 하는데, 서촉(西蜀) 대녕군(大寧軍)의 황현(黃縣) 사람이며 후에 무주(婺州)로 이사하였다. 한(漢)의 순제(順帝) 원년(142) 9월 15일에 태어났다. 경사(經史)에 두루 통하였고 삼국(三國)으로 정권이 분리됨을 겪었는데, 진(晉)나라에서 새롭게 가세를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벼슬길에 순탄하지 못하자 집을 떠나 수도의 길로 들어섰다. 진(晉) 무제(武帝) 태강(太康) 5년(284)에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 『육천여의대법경록』(六天如意大法經錄)을 전해 받았다. 후에 태상노군이 옥동(玉童)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약시십사(鑰匙十事)를 하사하도록 명하는 꿈을 꾸었다. 영강(永康) 원년(元年, 300)에 역병이 돌자 진인은 부수(符水)를 뿌리고 혼원등(混元燈)을 켜 역병을 제압하였는데 30일이 조금 지난 후 역병이 자취를 감추었다. 다음해에 야수들이 성내로 침입하자 진인은 다시 혼원법(混元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에

황제가 그 공을 기려 금과 비단을 하사하였으나 진인은 이를 사양하고 화산(華山)으로 들어가 기거하면서 정의(丁義)에게 혼원록(混元籙)을, 곽박(郭璞)에게 혼원경(混元經)을, 허손(許遜)에게 혼원법(混元法)을, 주도추(朱桃椎)에게 혼원침구법(混元針灸法)을 전수하였다. 태안(太安) 원년(元年, 302) 8월 12일에 세상을 떠났으나 혼원법(混元法)은 지금도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⁸²⁾ 도경에서는 노대안(路大安)을 높여 혼원개교 대자보혜노진군(混元開教大慈普惠路眞君), 혼원개교조사노진군(混元敎祖師路眞君)이라 부른다.

19. 혼원교주갈진군(混元敎主葛眞君)

혼원교주갈진군(混元敎主葛眞君)은 도교 영보파(靈寶派)의 조사인 갈현(葛玄)을 말한다.

갈홍(葛洪)의 『신선전』(神仙傳) 제8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갈현의 자는 효선(孝先)이며 단양(丹陽)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매우 출중하였으며 거의 모든 경전(經傳)과 자사(子史)를 읽었을 정도로 영리하고 명석하였다. 열 살에 부모를 잃고 명산의 도사들을 찾아 가르침을 구하러 다녔다. 그러던 중 좌자(左慈)라는 신선으로부터 『구단금액선경』(九丹金液仙經)을 전해 받았다. 갈현이 정성을 다해 수도에 힘쓰자 태상노군과 태극진인이 이에 감명을 받아 천태산(天臺山)에 하강하여 그에게 『영보경』(靈寶經), 『통현경』(洞玄經), 『대통경』(大洞經)을 전해 주었으며, 상청(上清), 영보(靈寶), 통신(洞神), 태일(太一), 도탄제재법(塗炭諸齋法)을 전수하였다. 오나라의 대제 손권(孫權)이 그를 접견하고 오나라에 머물기를 원했으나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다.⁸³⁾

82) 같은 책, 第5冊, pp.219-220.

83) 葛洪撰, 胡守注, 『神仙傳校釋』, pp.269-270.

갈홍(葛洪)의 『포박자내편·금단』(抱朴子內篇·金丹)에서는 갈현이 『포박자』를 제자인 정은(鄭隱)에게 전했고, 정은이 다시 갈홍에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다. 도경에서는 갈현을 존칭하여 태극좌궁선공충응부우진군(太極左宮仙公沖應孚佑眞君)이라 한다.

20. 신소전교종리진선(神霄傳敎鐘離眞仙)

신소의 법을 전한 종리진선(鐘離眞仙)은 도교 전진파 북오조(北五祖)의 하나인 종리권을 말하는데, 세간에서는 그를 가리켜 팔선 중 일인이라고도 한다.

원대의 도사인 조도일이 쓴 『역세진선체도통감』(曆世眞仙體道通鑑) 31권에는 종리권전(鐘離權傳)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인의 성은 종리(鐘離)이고 이름은 권(權)인데, 후에 각(覺)이라 개명하였다. 자(字)를 적도(寂道), 호(號)를 화곡자(和穀子), 정양자(正陽子), 운방선생(雲房先生)이라 하였다. 연태(燕台) 사람이지만 경조인(京兆人)이라고도 불린다. 매우 건장하고 힘이 장사였으므로 대장군으로 임명되어 병사를 이끌고 서북지역의 토번(土蕃)으로 출정하기도 하였다. 군사가 접전하고 있던 중 갑자기 뇌성이 울리고 번개가 치며 비바람이 몰아쳐 앞뒤를 분간할 수 없어 군사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다. 이 때 진인도 혼자 말을 타고 산 속으로 도망치던 중 길을 잃고 말았는데 우연히 승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승려의 안내로 마을로 도착한 진인은 긴 백발에 사슴가죽 옷을 입은 호승(胡僧)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노인은 다름 아닌 동화제군(東華帝君) 왕현보(王玄甫)였다. 진인이 왕현보에게 성도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자 노인이 진인에게 장생진결(長生眞訣)을 전수해 주었다. 이후 천하를 주유하던 진인은 여동빈을 만나 그를 수도의 길로 이끌게 되었

다. 종리권과 여동빈이 선인의 법을 공부할 때 문답했던 내용을 모아 시견오(施肩吾)가 『종려전도집』(鐘呂傳道集)을 펴내었다.⁸⁴⁾

원(元) 세조(世祖) 6년(1269)에 왕이 종리권을 정양개오전도진군(正陽開悟傳道眞君)에 봉하였으며, 원 무종(武宗) 지대(至大) 3년(1310)에 이르러 다시 명에 의해 정양개오전도수교제군(正陽開悟傳道垂教帝君)에 봉해졌다.⁸⁵⁾

21. 신소전교여진선(神霄傳教呂眞仙)

여진선(呂眞仙)은 진진과 북오조의 하나인 여동빈(呂洞賓)을 말하는 데, 그는 신소의 법을 전파하였다. 여동빈은 ‘팔선’ 중에 가장 유명한 신선이기도 하다.

관련 기록에 의하면 여진선의 이름은 암(岩)이요 자는 동빈(洞賓)인데 호를 순양자(緇陽子)라 하였으며 자칭 회도인(回道人) 혹은 회산인(回山人)이라 하였으므로 회선(回仙)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여동빈은 관중(關中)[지금의 섬서성(陝西省) 하중부(河中府) 영락(永樂) 지역, 현재는 산서(山西) 예성현(芮城縣)에 속함]에서 출생하였으며 당나라 때 예부시랑(禮部侍郎)을 지냈던 여위(呂渭)의 자손이라는 설이 있다. 그가 여러 차례 거사나 진사의 시험에 낙방하였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당(唐) 문종(文宗) 개성(開成) 연간(836-840) 혹은 당(唐) 경종(敬宗) 보력원년(寶曆元年, 825)에 진사(進士)에 합격하였다는 설도 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여동빈이 장안의 주막에서 종리권을 만나 ‘황량일몽’(黃粱一夢)을 통해 유학을 버리고 수도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한다. 후에 여동빈은 화룡진인(火龍眞人)을 만나 천둔검법(天遁劍法)을 전수

84) 『道藏』, 第5册, pp.276-277.

85) 『金蓮正宗仙源像傳』, 『道藏』, 第3册, pp.366-367.

받았으며, 고죽진인(苦竹真人)으로부터 귀신을 제압하는 술법을, 그리고 최희범(崔希范) 진인(真人)으로부터 내단술을 전수 받았다. 득도 후에는 도를 널리 전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에 뜻을 두었다. 여동빈은 속세에 자주 출현하여 사람들을 접하고 도를 전하며 그들을 제도하였다.⁸⁶⁾ 북송시기에 여동빈에 관한 이야기 중 가장 많이 전해진 것이 두 편 있는데, 하나는 여동빈이 악양루(岳陽樓)를 방문하였을 때 성남(城南)의 고목정령만이 유일하게 그가 신선임을 알아보았다는 이야기⁸⁷⁾이고, 다른 하나는 오흥(吳興) 침동(沈東)의 고향집에 들러 술을 마시고 시를 지었다는 이야기⁸⁸⁾이다.

여동빈은 원 세조(世祖) 지원(至元) 6년(1269)에 이르러 왕명에 의해 순양연정경화진군(純陽演正警化眞君)에 봉해졌으며, 원(元) 무종(武宗) 지대(至大) 3년(1310)에 이르러서는 순양연정경화부우제군(純陽演正警化孚佑帝君)에 봉해졌다.⁸⁹⁾

22. 화덕사천군(火德謝天君)

화덕사천군(火德謝天君)은 태을화령대장유금비화사신군(太乙火鈴大將流金飛火謝神君), 유금화령사대선화(流金火鈴謝大仙火), 창아벽력대선사선화(蒼牙霹靂大仙謝仙火)라고도 불린다. 『법해유주』(法海遺珠) 11권에서는 “사선화(謝仙火)라는 신선은 72부의 풍화(風火)를 관장하는 총사령관이다”⁹⁰⁾라 하였다. 『도법회원』 122권에서는 그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호랑이를 닮은 머리에 곰의 귀, 코끼리의 이

86) 南宋吳曾, 『能改齋漫錄』, 卷十八, 元代秦志安, 『金蓮正宗記』 卷一, 元代 趙道一, 『曆世眞仙體道通鑿』, 三卷十一 참조.

87) 王鞏, 『聞見近錄』, 范致明, 『岳陽風土記』, 張舜民, 『畫墁集』, 葉夢得, 『岩下放言』 등 참조

88) 阮閱, 『詩話總龜後集』, 卷三十九; 胡仔, 『茗溪漁隱叢話後集』, 卷三十八.

89) 『金蓮正宗仙源像傳』, 『道藏』, 第3册, pp.366-367.

90) 『道藏』, 第26册, p.787.

빨, 새의 부리, 용의 발톱, 노루의 뿔을 가졌다. 이마에 작은 양머리가 달려 있고, 용의 거죽으로 온 몸을 감싸고 있다. 그의 손발을 감고 있는 네 마리의 뱀들은 입에서 불을 토하고 있다.”⁹¹⁾ 『도법회원』 148 권에서는 화덕사천군을 사염(謝炎)이라 칭하고 그 형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검은 얼굴, 검은 수염에 노한 얼굴을 하고 있다. 눈은 세 개이고 옥관을 썼으며,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신을 신고 있다. 한 손에는 옥월부(玉鉞斧), 다른 한 손에 검을 들었는데 둥근 해가 그의 형상을 비추고 있다.”⁹²⁾

‘사선화’(謝仙火)라는 이름은 송대에 광범위하게 알려졌다. 구양수(歐陽修)가 쓴 『집고록』(集古錄) 10권에서는 악주(岳州) 화용현(華容縣)에 위치한 옥진궁(玉眞宮)의 기둥에 ‘사선화’라는 글귀가 거꾸로 쓰여져 있었다고 전한다. 어떤 이가 형산(衡山)의 하선고(何仙姑)에게 ‘사선화’가 누구인지를 묻자, 하선고가 사선은 뇌부의 귀신인데 사선 부부의 키는 삼척이고, 용모가 매우 수려하고 세간의 불을 관장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후에 어떤 사람이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도장을 찾아보니 실제로 사선이 불을 관장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말이 있다. 왕득신(王得臣)의 주사(塵史) 제2권에는 악주(岳州)의 태수 등종량(滕宗亮)[자(字)는 자경(子京)]이 영주(永州)의 하선고에게 사선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데, 하선고가 말하길 사선이 뇌부의 신이며, 사선 형제의 키가 삼척이라는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삼교원류수신대전』(三教源流搜神大全)에서는 사천군(謝天君)의 행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천군의 성은 사(謝)이고 이름은 사영(仕榮), 자는 뇌행(雷行)이며 당(唐) 정관(貞觀) 초에 출생하였다. 성격이 급하고 험악하게 생겼으며 매우 난폭하다. 사영이 산음(山陰)의 현령을 지낼 때 상사가 천금의 뇌물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은 상사가 사영이 뇌물을 받았다고 관에 거짓 신

91) 같은 책, 第29冊, p.583.

92) 같은 책, 第29冊, p.768.

고를 하였다. 상사는 갖은 방법으로 사영을 괴롭혔으며 심지어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았지만 사영은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변론에 능하게 되며, 위험이 클수록 공 또한 커지는 법이다.” 그 충성심에 옥제가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며 사영에게 화덕진군(火德眞君)의 직책을 하사하였다. “화덕진군은 손에 금 채찍을 들었으며 불 바퀴가 달린 마차를 타고 있는데, 머리에는 도관을 쓰고 근엄한 모습으로 명을 내린다”.⁹³⁾

23. 옥부유천군(玉府劉天君)

옥부유천군(玉府劉天君)은 옥부주수구양상장차아철면 유천군(玉府主帥九陽上將蒼牙鐵面 劉天君), 구두양망류금화령위뇌부광 유천군(九斗陽芒流金火鈴威雷浮光 劉天君), 화령대장(火鈴大將), 통현삼오소양철면 신왕(洞玄三五少陽鐵面 神王), 통현구양창아철면 신왕(洞玄九陽蒼牙鐵面 神王)이라 불린다. 유천군의 이름은 유명(劉明) 혹은 유구(劉矩)이고 자(字)는 신광(神光)이다. 『도법회원』 148권에서는 그 형상을 두 가지 형태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고 젊은 얼굴에 화난 모습을 하고 있으며 붉은 옷을 입었는데 붉은 머리 카락을 어지럽게 늘어뜨리고 있다. 금 채찍을 들고 금 갑옷을 입었는데 발로 물수레를 밟고 있고 손으로 불 수레를 들고 있다.⁹⁴⁾ 또 다른 유천군의 형상은 다음과 같다. 검고 나이든 얼굴에 푸른 치아, 붉은 머리카락을 지녔으며 붉은 도포와 금 갑옷을 입고 붉은 신을 신고 있다. 손에는 미늘창을 들고 있고 발로 불 수레를 밟고 서 있다.⁹⁵⁾

93) 『繪圖三教源流搜神大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p.181.

94) 『道藏』, 第29冊, p.768.

95) 같은 책, 第29冊, p.769.

유천군은 통현뇌법주장(洞玄雷法主將)이다. 『도법회원』 147권에 기록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옥섬이 신천군(辛天君)을 우연히 만났을 때 “신천군이 상을 세 번 두드리면 유수(劉帥)가 곧바로 나타난다. 신천군이 말하기를 ‘이 신장은 뇌정의 풍우와 두 개의 추기(樞機)를 관장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옥제가 출입할 때 그를 수호한다. 곤경에 빠진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대소사를 막론하고 부르면 곧 응한다. 오늘 백옥섬 자네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다’ 유천군의 직책은 상전 권렴대장군(上殿捲簾大將軍), 구천운로호가사(九天雲路護駕使), 추기이데절제사(樞機二台節制使), 신소옥추통현집울창아철면유신군(神霄玉樞洞玄執律蒼牙鐵面劉神君)이며 그가 운용하는 법은 통현옥추뇌법(洞玄玉樞雷法)이다.”⁹⁶⁾

『삼교원류수신대전』(三教源流搜神大全) 중의 유천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천군의 이름은 후(後)이고 동진(東晉) 사람이며 경자(庚子)년 8월 12일에 민강(岷江)의 어도(漁渡)에서 태어났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강변에서 물을 길고 있는데 유후(劉後)가 모친의 등에서 떨어져 강에 빠지게 되었으나 물 위에 떠다니는 나무 조각에 의지하여 익사를 면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강에 빠졌던 유후가 목숨을 건진 것을 매우 신기한 일로 여겼다. 유후의 집안이 매우 가난하였으므로 그 부모가 유후를 나진인(羅真人)의 시동으로 보내어 나진인의 시중을 들며 수학하게 하였는데, 유후는 배움에 힘써 오뢰장결(五雷掌訣)에 정통하였다. 유후가 비가 오기를 빌거나 날이 맑기를 기도하면 영험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위해 사당을 지었다. 황제는 유후의 공덕을 기려 그를 현화자제진군(玄化慈濟眞君)으로 봉했으며, 옥제는 유후가 옥부(玉府)를 관장하도록 명을 내렸다.⁹⁷⁾

96) 같은 책, 第29冊, p.763.

97) 『繪圖三教源流搜神大全』, p.196.

24~25. 영대천군(甯大天君), 임대천군(任大天君)

영대천군(甯大天君)과 임대천군(任大天君)의 이대천군은 도경에서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도법회원』 147권에서는 이대천군을 양광벽력녕신군(陽光霹靂甯神君), 음정정열임신군(陰精霆烈任神君)이라 칭한다.⁹⁸⁾ 『도법회원』 148권에서는 영천군(甯天君)을 좌원운뇌양광원명대장(左垣運雷陽光元命大將)이라 불렀다. 이름은 열(烈)이고 자(字)는 중자(中慈)라 말한다. 형상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푸른 얼굴에, 이리의 이빨을 갖고 있으며 머리에 화관(火冠)을 쓰고 있다. 검은 옷에 금 갑옷을 입었으며 뇌도끼와 송곳을 들고 있다. 임천군(任天君)은 우원운뇌음정원응대장(右垣運雷陰精元應大將)이라 불린다. 이름은 충(忠)이고 자는 거인(居仁)이다. 그는 붉은 얼굴에 이리의 이빨을 갖고 있으며, 화관을 쓰고 붉은 옷, 금 갑옷을 입었으며 붉은 신을 신고 뇌도끼와 송곳을 들고 있다.⁹⁹⁾

『법해유주』(法海遺珠) 1권에서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양광승위굉화대신영열(陽光勝威轟火大神甯烈)은 청홍 빛을 띤 얼굴에 이리의 이빨을 갖고 있으며 붉은 머리카락에 화관(火冠)을 쓰고 있다. 붉은 옷과 금 갑옷을 입었으며 뇌도끼를 들고 있다. 현정화령흑울대신임충(玄精火鈴黑律大神任忠)은 푸른 얼굴에 머리카락이 붉으며 붉은 옷을 입고 화검(火劍)을 들고 있다. 푸른 얼굴에 이리의 이빨을 지녔고 붉은 옷 금 갑옷을 입고 뇌부찬(雷斧鑕, 뇌도끼와 송곳)을 들고 있다.¹⁰⁰⁾

26. 뇌문구원수(雷門苟元帥)

98) 『道藏』, 第29册, p.765.

99) 같은 책, 第29册, p.769.

100) 같은 책, 第26册, p.725.

뇌문구원수(雷門苟元帥)는 양뇌신군(陽雷神君), 신열양뇌 구천군(神烈陽雷 苟天君), 상청주화운양적령신열 구천군(上淸主火運陽赤靈神烈 苟天君), 뇌문좌벌마사지남극천추원사총할뇌정도사일부이원삼사사구원수(雷門左伐魔使知南極天樞院事總轄雷霆都司一府二院三司事 苟元帥)라 불린다. 이름은 유길(留吉)이며 일명 익충(翌沖)이라고도 한다.

청미파(淸微派)에서는 구원수를 높여 행법주수(行法主帥)라 부른다. 『청미신열비법』(淸微神烈秘法)에서는 구원수를 ‘청미주수상청신열양뇌신군구유길’(淸微主帥上淸神烈陽雷神君苟留吉)이라 하고 그 형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검은 얼굴에 금관을 썼는데 눈이 세 개 이다. 붉은 머리에 금 갑옷과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신발을 신고 있으며 손에 쇠망치를 들고 있다”¹⁰¹⁾ 『청미원항대법』(淸微元降大法) 24권에 서의 그의 형상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붉은 머리카락에 금관을 쓰고 있고 얼굴은 푸르다. 붉은 옷과 금 갑옷을 입었고, 금 저울과 송곳을 지니고 이만 명의 부하를 통솔한다.¹⁰²⁾ 『도법회원』 46권에서는 그에 대해 “푸른 얼굴에 붉은 머리와 수염을 지니고 금관을 썼다. 붉은 옷을 입고 손에는 도끼를 들고 있다”¹⁰³⁾고 기록하고 있다. 146권에서는 “불귀신과 닮은 얼굴에 날개는 없다. 푸른 얼굴에 입이 날카롭지 않고 붉은 천의(天衣)를 입고 자색의 결건(結巾)을 쓰고 있는데 불귀신의 발 모양에 뇌송곳을 들고 있다.”¹⁰⁴⁾고 하였다.

『삼교원류수신대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고옹주(古雍州)에는 신뢰산(神雷山)이 있는데, 매년 2월 경칩일에 뇌성이 발했다. 가을이 되자 땅 속에 감추어져 있던 뇌의 기운이 닭의 형상으로 변하여 암석 위에 올라앉았다. 그해 8월이 되자 성이 신(新)이고 이름이 흥(興)이며 자(字)가 진우(震宇)인 사람이 집안이 빈한하여 산에서 뭍나 무를 베어 어머니를 봉양하던 중에 암석 위에 있는 다섯 마리의 닭을

101) 같은 책, 第4册, p.136.

102) 같은 책, 第4册, p.272.

103) 같은 책, 第29册, p.58.

104) 같은 책, 第29册, p.759.

잡아 어머니께 갖다 드렸다. 어머니는 아들이 가져온 다섯 마리의 닭 중에 네 마리를 닭장에 넣고 나머지 한 마리를 요리해 먹고자 하였다. 이 때 닭이 말하길 자신이 뇌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여인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닭을 잡아먹으려 하다가 그만 벼락을 맞아 죽고 말았다. 얼마 후 신흥이 땀나뭇을 판 돈으로 술을 사서 집으로 돌아 왔는데 어머니가 벼락을 맞고 죽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 신흥은 죽은 어머니를 보고 통곡하여 울면서 닭장 속에 있는 네 마리의 뇌계(雷雞)를 망치로 때려죽이려 하였다. 이때 뇌계들은 벼락을 쳐서 위험을 모면하려 하였으나 신흥의 어머니가 자신의 옷으로 닭장 위를 덮어 놓았으므로 뇌계들은 벼락을 칠 수 없었다. 뇌신이 효성스러운 신흥을 가없이 여겨 도사로 변신한 후 신흥의 집으로 가서 그가 원하는 바를 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신흥은 뇌신이 그에게 준 십이화단(十二火丹)을 먹고 요괴의 얼굴에 새의 부리를 갖게 되었고 양쪽 어깨에 날개를 달게 되었다. 천제 또한 신흥의 효성에 감동하여 그를 뇌문구원수(雷門苟元帥)에 봉하였다.¹⁰⁵⁾

27. 뇌문필원수(雷門畢元帥)

뇌문필원수는 음뇌신군(陰雷神君), 신화음뇌 필천군(神化陰雷 畢天君), 상청주수운음흑령신화 필천군(上淸主水運陰黑靈神化 畢天君), 뇌문우벌마사지북극구사원사주관뇌정도사군할사 필원수(雷門右伐魔使知北極驅邪院事主管雷霆都司軍轄事 畢元帥)라 불린다. 이름은 종원(宗遠)이며 일명 산칙(山則)이라고도 한다.

청미과에서는 뇌문필원수를 행법주수(行法主帥)라 높여 부른다. 『청미신열비법』(淸微神烈秘法)에서는 뇌문필원수를 ‘청미주수상청신열음

105) 『繪圖三教源流搜神大全』, pp.230-231.

뇌신군필종원(淸微主帥上淸神烈陰雷神君畢宗遠)이라 칭하고 그 형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풀어헤친 머리, 붉은 얼굴에 붉은 옷, 금 갑옷을 입었다. 맨발에 손에는 철간(鐵簡)이라는 병기를 들고 있다.”¹⁰⁶⁾ 『청미원항대법(淸微元降大法)』 24권에서는 그 형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약간 검고 수염이 조금 난 얼굴에 옥관을 쓰고 있다. 금 갑옷, 붉은 옷을 입었고 도끼를 들고 있다.”¹⁰⁷⁾ 『도법회원』 46권에서는 뇌문필원수의 형상에 대해 “붉은 얼굴에 검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붉은 옷을 입었으며 금과 철로 만들어진 문서를 들고 있다”¹⁰⁸⁾고 말한다. 그리고 146권에서는 뇌문필원수가 “불을 관장하는 귀신인 홀화(焮火)와 닳은 발을 가졌으며, 푸른 얼굴에 붉은 옷을 입고 손에는 도끼와 쇠망치를 들고 있다”¹⁰⁹⁾고 하였다.

『삼교원류수신대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땅 속에 감춰진 뇌가 천년이 된 석유(石乳)라는 나무에 응하여 사람으로 탄생하였다. 그가 성년이 된 후에는 스스로 전필(田畢)이라 하였으며 법로암(法瀘岩) 아래에서 수련에 힘썼다. 그는 여와씨(女媧氏)를 도와 돌로 구멍 난 하늘을 메우기도 하였고, 또 현원황제를 도와 치우를 물리치기도 하였다. 현원씨가 전필에게 용사(龍師)의 직책을 주었으나, 전필이 응하지 않고 화서(華胥)에 은거하였으므로 그를 전화(田華)라 부르기도 하였다. 당요시대에 열 개의 해가 출현하여 붉은 빛이 천리에 미치자 상제가 전화를 천상으로 불러 이를 해결하도록 명하였는데, 이후 인세에는 좋은 날씨가 계속되었다. 한말에 사악한 귀신과 요괴들이 출몰하자 옥제가 전필을 뇌문필원수(雷門畢元帥)에 봉하여 십이뇌정(十二雷霆)을 관장하게 하였다. 이에 전필은 현천상제를 도와 돌림병을 막고 귀신을 퇴치하는 한편, 천지의 가뭄을 없애고 도깨비들을 평정하였으며 인의(仁義)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자들을 징벌하였다.¹¹⁰⁾

106) 『道藏』, 第4册, p.136.

107) 같은 책, 第4册, p.272.

108) 같은 책, 第29册, p.58.

109) 같은 책, 第29册, p.759.

110) 『繪圖三教源流搜神大全』, p.200.

28. 영관마원수(靈官馬元帥)

영관마원수는 도천강주정일영관횡천 마원수(都天罡主正一靈官橫天馬元帥), 정일괴신영관 마원수(正一魁神靈官 馬元帥), 혼원도통영관 마원수(混元都統靈官 馬元帥), 금비원광화서대선정일영관 마원수(金臂圓光火犀大仙正一靈官 馬元帥), 남궁도통다원수절도화부두사병마삼계방어대장군염령적명진군 마원수(南宮都統大元帥節度火府斗司兵馬三界防禦大將軍炎靈赤明眞君 馬元帥)로 불린다. 이름은 승(勝)이며 자는 덕선(德先)이다.

『도법회원』 제36권에는 마원수의 형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한다. “푸른 얼굴 붉은 머리카락을 하고 백사의 관을 쓰고 있다. 눈이 세 개이고 금 갑옷과 붉은 옷을 입고 있으며 푸른 신을 신고 있다. 불을 담은 표주박과 검을 매고 있으며 백사가 그의 뒤를 따르고 있다.”¹¹¹⁾ 224권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세 개의 머리, 아홉 개의 눈, 여섯 개의 팔을 지녔고, 푸른 몸을 하고 있다. 양 손에 불 방울과 불 밧줄을 들고 있고, 또 다른 양 손에 금으로 된 창과 금으로 된 벽돌을 갖고 있는가 하면, 나머지 양 손에는 두결(斗訣)과 장검(仗劍)을 들고 있다. 푸른 얼굴에 붉은 수염, 붉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 금으로 된 승모를 쓰고, 이마에 붉은 칠을 한 채, 붉은 옷에 금 갑옷을 입고 있다. 허리에는 옥대를 매고 신발에는 녹색 끈을 매었으며 발로 화륜을 밟고 있는데 백사가 바퀴를 감고 있고 입에서 불을 뿜어내고 있다. 마원수는 등에 불을 담은 표주박을 매고 있고, 불 까마귀떼와 열두 명의 부장이 그를 따르고 있다. 그가 곧 남방화제(南方火帝)이다.¹¹²⁾

『도법회원』 제222권, 224권에서는 오늘날 법관에 속하는 영관(靈

111) 『道藏』, 第29册, p.1.

112) 같은 책, 第30册, p.392.

官)의 성은 마(馬)이고 이름은 승(勝)임을 알 수 있을 뿐 그 원류를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영관은 사실 하늘의 신장인데 하늘의 신장이 어찌 이름이 있을 수 있겠는가? 모습이 흩어지면 기가 되고 기가 모이면 형체를 이룬다. 영관은 남쪽에 있는 불의 정령이고 불의 왕이며, 불 속에서 그 기가 매우 왕성해진다. 남쪽은 오(午)에 속하며 오는 마(馬)이므로 영관은 자신의 성을 마(馬)라 하였다. 남두(南斗)에는 여섯 개의 별이 있는데 여섯 번째 별은 귀승(鬼勝)이라 불리므로 이것이 곧 영관의 이름이 되었다. 이 외에도 오상월(午上月)은 승선(勝先)을 뜻하므로 이름을 ‘승’(勝)이라 하고 자를 덕선(德先)이라 하였다는 설이 있다. 옥제는 마원수가 매우 강직하다고 여겨 ‘욱’(旭) 자를 그의 휘(諱)로 하사하였는데 옥자는 양이 극에 달함을 뜻한다.¹¹³⁾

『삼교원류수신대전』에는 마원수가 인세에 세 번 태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원수는 원래 지묘길상여래(至妙吉祥如來)의 화신인데 귀혼(鬼魂)을 불로 태워버리는 자비롭지 못한 행동을 하여 마씨금모(馬氏金母)에게 잉태되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마원수는 눈이 세 개이므로 삼안영광(三眼靈光)이라 불린다. 태어날 때부터 세 개의 눈을 지니고 있어 동해용왕을 물리쳤으며 이로써 수재를 잠재웠다. 이후 마원수는 자미대제(紫微大帝)의 금창(金槍)을 훔친 이유로 다시 화마왕(火魔王)의 공주(公主) 아들로 태어나 영요(靈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또한 대혜진자묘락천존(大惠盡慈妙樂天尊)으로부터 삼각금전(三角金磚)의 법을 전수받아 자유자재로 변화하였다. 이 외에도 마원수는 옥제의 명을 받아 요괴들을 물리쳐 백성들의 안위를 도왔으며, 옥제로부터 인장과 검을 하사 받아 왼손에는 인장, 오른손에는 검을 지니고 남천(南天)의 일을 관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화연(瓊花宴)에 참석했을 때 금룡(金龍)의 태자인 오모(傲侮)가 마원수의 화를 돋우자 마원수는 오모를 불로 태워 남천에 가두고 말았다. 마원수는 오모를 해한 죄로 다섯 쌍둥이의 하나로

113) 같은 책, 第30册, p.376, 392.

다시 인세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별인 소동으로 풍도(豐都)를 어지럽혔다. 그러나 여래불(如來佛)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마원수는 난관을 벗어나게 되었고, 옥제는 그를 현재 부장(玄帝部將)에 봉하였다.¹¹⁴⁾

마원수는 화광천왕(華光天王)으로도 불리며, 화광천왕에 대한 이야기는 명대의 여상두(余象斗)가 펴낸 『오현영관대제화광천왕전』(五顯靈官大帝華光天王傳)[남유기]를 통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29. 도독조원수(都督趙元帥)

도독조원수(都督趙元帥)는 정일현단 조원수(正一玄壇 趙元帥), 금륜집법 조원수(金輪執法 趙元帥), 신소여의현단 조원수(神霄如意玄壇 趙元帥), 정일용호현단금륜여의집법 조원수(正一龍虎玄壇金輪如意執法 趙元帥), 구천뇌로신첩상장현단 조원수(九天雷路神捷上將玄壇 趙元帥)로 불린다. 도독조원수의 전칭(全稱)은 고상신소옥부대도독(高上神霄玉府大都督) 오방순찰사(五方巡察使) 구주사령도대제점(九州社令都大提點) 직전대장군(直殿大將軍) 주령뇌정부원수(主領雷霆副元帥) 북극시어사(北極侍御史) 삼계대도독(三界大都督) 응원조열후(應元昭烈侯) 장사정명장설사(掌事定命帳設使) 이십팔수도총관(二十八宿都總管) 상청정일현단비호금륜집법 조원수(淸正一玄壇飛虎金輪執法 趙元帥)이다.¹¹⁵⁾

『도법회원』 232권 『조원수록』(趙元帥錄)에서는 원수의 성은 조(趙)이고 이름은 낭(朗)이며 일명 창(禳)이라고도 하는데 자는 공명(公明)이고 종남산인(終南山人)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원수는 진나라 때 산에서 은거하며 수도에 정진하며 많은 공덕을 쌓아 옥제가 그를 신소부

114) 『繪圖三教源流搜神大全』, pp.220-221.

115) 『道法會元』, 卷二百三十二, 『道藏』, 第30册, pp.445-446.

수(神霄副帥)에 봉하였다. 동한시기에 이르러 조천사 장도룡이 용호산(龍虎山)에서 단을 수련할 때, 상제에게 수련에 임하고 있는 자신을 용명한 장군이 보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상제가 조공명을 정일현단원수(正一玄壇元帥)에 봉하여 장도룡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장도룡 천사는 승천 이후 지속적으로 용호산을 다스리고 있다.¹¹⁶⁾

『조원수록』(趙元帥錄)에서는 조원수는 공평한 매매에 준하여 재운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게 기도하면 만사여의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말하고 있다.¹¹⁷⁾ 그러므로 민간에서는 예로부터 조공명(趙公明)을 재신으로 받들고 있다.¹¹⁸⁾

『여청귀율』(女靑鬼律)에 의하면 조공명은 원래 오방귀주(五方鬼主)의 하나로서 서방의 백기귀주(白炁鬼主)에 속한다.¹¹⁹⁾ 『무상현원삼천옥당대법』(無上玄元三天玉堂大法) 24권에서는 조공명은 오부의 귀신이었으나, 조천사 장도룡에게 서약한 후 정도(正道)에 귀의하게 되었으므로 위직충현단대장(威直充玄壇大將)이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¹²⁰⁾

『도법회원』 188권에서는 조공명에 대해 “얼굴이 검고 수염이 나 있으며, 검은 신을 신고 붉은 옷에 금 갑옷을 입고 손에는 철 채찍을 들고 있다”¹²¹⁾고 묘사하고 있다.

30~31. 호구왕원수(虎丘王元帥), 호구고원수(虎丘高元帥)

116) 『道藏』, 第30册, p.445.

117) 같은 주(注).

118) 趙公明을 재신으로 받드는 내용은 劉仲宇, 『正逢時運: 接財神與市場經濟』(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5), pp.9-16을 참조하기 바란다.

119) 『道藏』, 第18册, p.250.

120) 같은 책, 第4册, p.89.

121) 같은 책, 第30册, p.192.

왕(王)과 고(高) 이원수(二元帥)는 도경에서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왕원수는 좌원대장왕원수(左垣大將王元帥)라 불리고, 이름은 진(眞)이며, 고원수는 우원대장고원수(右垣大將高元帥)라 불리며 이름은 만(萬)이다.¹²²⁾

『삼교원류수신대전』에서는 왕원수의 이름이 철(鐵)이고 고원수의 이름은 동(銅)인데 모두 복주(福州)의 남쪽에서 태어났고 주(周)나라 여왕(厲王) 시대의 사람이라 말하고 있다. 두 사람은 낙양(洛陽)에서 만나 금란지교(金蘭之交)를 맺은 사이가 되었다. 또한 두 사람은 함께 한왕(韓王)을 모셨으나 그들의 간언을 한왕이 듣지 않자 사직하였다. 어느 날 왕철(王鐵)이 고동(高銅)이 호랑이가 사는 동굴이 있는 남령(南嶺)으로 떠난다는 말을 듣고 매우 놀라 그를 구하기 위해 남령으로 떠났다. 왕철이 남령으로 간지 얼마 되지 않아 고동이 돌아왔는데 왕철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남령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왕철을 쫓아갔다. 당시 길에서 호랑이를 만난 왕철은 완력으로 호랑이를 물리쳤다. 이후 왕철과 고동이 서로 만나게 되어 서로를 찾은 이유를 설명하며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이들이야말로 변치 않는 깊은 우정을 쌓은 사람들이라 생각하였고 옥제는 두 사람을 호구장(虎丘長)에 봉하였다.¹²³⁾

32. 혼원방원수(混元龐元帥); 45. 통신유원수(洞神劉元帥)

방원수(龐元帥)와 유원수(劉元帥)는 도경에서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혼원방원수(混元龐元帥)는 도경에서 팔괘통신천혼정장(八卦洞神天魂正將), 상청팔괘통신주법대원수(上淸八卦洞神主法大元帥), 묘도광제

122) 『道法會元』, 卷二百三十六, 『道藏』, 第30册, p.471.

123) 『繪圖三教源流搜神大全』, p.197.

진군(妙道廣濟眞君)이라 불리는데 이름은 영(靈)이다. 혼원방원수가 주원수라면 유원수(劉元帥)는 부원수인데 그는 팔괘통신지백부장(八卦洞神地魄副將), 상청팔괘통신장법부원수(上淸八卦洞神掌法副元帥), 묘도현제진군(妙道顯濟眞君)으로 불리며 이름은 통(通)이다.

『도법회원』 195권에서는 방원수(龐元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방원수는 “중궁(中宮)을 관할하고, 팔괘장리(八卦將吏)를 통솔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신명이다. 그를 찾아서 길흉을 고하면 그가 판단한 뒤에 일을 행한다.” 유원수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주장수를 보좌하여 중궁을 수호하고 팔장(八將)을 관리한다. 윗전의 신에게 장표(章表)를 올릴 때 먼저 유원수를 찾아야 하고 그는 의지에 맞춰 일을 행한다.” 주장수는 현제(玄帝)와 닮은 모습으로 맨발에 머리를 풀었으며 방원수는 붉은 도포를 유원수는 검은 도포를 입고 장검을 들고 있다.”¹²⁴⁾ 이외에도 『도법회원』 197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주장수인 방원수에게 기도하면 매우 영험하다. 그는 푸른 얼굴과 남색의 몸을 갖고 있으며, 붉은 도포와 치마를 입고 허리에는 선대(仙帶)를 매고 있다. 왼손에는 두인(斗印)을 쥐고 오른손에는 장검을 들고 있으며, 청룡을 타고 있는데 구름이 그를 따르고 있다. 부장수인 유통(劉通)은 얼굴과 몸이 검고, 검은 도포에 청색 치마를 입고 선대를 매고 있다. 유통은 왼손으로 뇌국(雷局)을 행하고 오른손에는 뇌추(雷槌)를 들고 있으며 백호(白虎)를 타고 있는데 바람이 그를 따르고 있다.”¹²⁵⁾

『삼교원류수신대전』에서는 ‘혼원방원수’(混元龐元帥)를 ‘혼기방원수’(混炁龐元帥)라 하며 성은 방(龐)이고 이름은 교(喬), 자는 장청(長淸)인데 한구(漢口) 사람이고 한대(漢代)에 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뱃사공을 업으로 하였다. 중앙일에 한 사람이 급히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 있어 서두르다가 그만 황금 백 냥을 배에 두고 내리게

124) 『道藏』, 第30册, p.235.

125) 같은 책, 第30册, p.248.

되었다. 다음 날 그가 돈을 찾기 위해 방원수를 찾자 방원수는 한 푼의 차이도 없는 원래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었다. 또한 설날 그믐날을 이틀 앞둔 어느 날, 관음보살이 한 여인으로 변신하여 강을 건너고자 하였다. 당시 방교(龐喬)가 매우 바빴으므로 그의 부친이 방교를 대신하여 노를 저었는데 그만 풍랑에 의해 배가 뒤집히고 말았다. 이 때 방교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물에 뛰어들어 부친을 구했다. 당시 여러 신들이 자신이 머물 육신을 찾고 있었는데, 그리하여 방교는 수부의 정기와 혼일하여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그의 효심에 감동한 옥제는 방교를 혼기원수(混炁元帥)에 봉하였다. 그는 손에 금도(金刀)를 들고 음계의 마귀와 양계의 악을 퇴치하였다.¹²⁶⁾

33. 인성강원수(仁聖康元帥)

인성강원수(仁聖康元帥)는 도경에서 급보무녕원수(急報無佞康元帥), 영우멸은충열원수(靈佑滅瘟忠烈元帥), 광령소혜사(廣靈昭惠使)로 불린다. 이름은 응(應)이고 일명 보예(保裔)라고도 불리는데 동악십태보(東嶽十太保)의 한명이다.

『도법회원』 155권에서는 온옥(溫玉)[온경溫瓊], 이진(李眞), 철승(鐵勝), 유기(劉琦), 요정(姚正), 장온(張蘊), 강응(康應), 악승(岳勝), 맹운(孟雲), 위언(韋彦)이 동악십태보(東嶽十太保)라 말한다.¹²⁷⁾ 하지만 258권에서는 동악십태보를 온옥(溫玉), 이문진(李文眞), 철승(鐵勝), 유중(劉仲), 양문귀(楊文貴), 강응(康應), 장온(張蘊), 악호(岳昊), 맹운(孟雲), 위언경(韋彦卿)으로 보고 있다.¹²⁸⁾ 『동악대생보참』(東嶽大生寶懺)에서는 십

126) 『繪圖三教源流搜神大全』, pp.189-190.

127) 『道藏』, 第29冊, p.821.

128) 같은 책, 第30冊, p.584.

태보를 익령소무사 온원수(翊靈昭武使 溫元帥), 순령소화사 이원수(順靈昭化使 李元帥), 협령소제사 철원수(協靈昭濟使 鐵元帥), 진령소찬사 유원수(鎭靈昭贊使 劉元帥), 통령소우사 양원수(通靈昭佑使 楊元帥), 선령소경사 장원수(宣靈昭慶使張元帥), 광령소혜사 강원수(廣靈昭惠使 康元帥), 안령소응사 악원수(安靈昭應使 岳元帥), 현령소리사 맹원수(顯靈昭利使 孟元帥), 영령소조사 위원수(永靈昭助使 韋元帥)라 이른다.¹²⁹⁾

남송 오자목(吳自牧)이 편집한 『몽량록』(夢梁錄) 권14에 동악십태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광령묘(廣靈廟)는 석당포(石塘壩)에 있다. 동악온장군(東嶽溫將軍)을 모시고 있는데 조정에서 편액을 하사하였다. 온장군(溫將軍) 이외의 나머지 아홉 명에게는 후작(侯爵)의 칭호가 내려졌다. 그들은 온봉정우(溫封正佑), 리봉부우(李封孚佑), 철봉령우(鐵封靈佑), 류봉천우(劉封顯佑), 양봉순우(楊封順佑), 강봉안우(康封安佑), 장봉광우(張封廣佑), 악봉협우(嶽封協佑), 맹봉소우(孟封昭佑), 위봉위우(韋封威佑)이다.”라 하였다.

강원수(康元帥)는 원래 동악대제(東嶽大帝)의 좌신(佐神)으로 강사인(康舍人)으로 불린다. 『송회요집고』(宋會要輯稿)에는 아래와 같은 관련 기록이 있다. “위제선리부응왕묘(威濟善利孚應王廟)는 강남 동로(江南 東路) 신주(信州)의 익양현(弋陽縣) 동악행궁(東嶽行宮)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좌신(佐神)인 강사인(康舍人) 위제공(威濟公)의 사당이 있었다. 광요황제(光堯皇帝)[송(宋) 고종(高宗)] 건염(建炎) 2년(1128) 9월에 강사인을 위제왕(威濟王)에 봉하였다. 건염(建炎) 4년(1130) 12월 다시 ‘선리(善利)에 봉하여졌고 사귀들을 제압하여 그 공적이 컸으므로 도통(都統)인 신기종(辛企宗)이 그에게 소임을 맡기기도 하였다. 소흥(紹興) 26년(1156) 정월에 현재의 호를 얻게 되었다.”¹³⁰⁾ “영렬왕묘

129) 같은 책, 第10册, p.5.

130) 『宋會要輯稿』, 禮二之一二〇, p.860. 관련 내용은 책의 禮二〇之一六, p.772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책에는 ‘佐神’이 ‘佑神’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英烈王廟)는 익양현(弋陽縣) 위제선리부응왕(威濟善利孚應王)의 사당이다. 강원수는 경원(慶元) 2년(1196) 6월에 위제선리부응영열왕(威濟善利孚應英烈王)에 봉해졌다.”¹³¹⁾ 『지기상장온태보전』(地祇上將溫太保傳)에는 『송회요집고』에서의 기록과 비교하여 한 글자 차이가 나는 ‘위제선리부혜영열왕’(威濟善利孚惠英烈王)이라는 강응(康應)의 봉호가 기록되어 있다. 『지기상장온태전』(地祇上將溫太保傳)에서는 강응이 “성황묘의 가장 큰 신인 도대성황(都大城隍)의 명을 받들어 역병을 관장하고 선악을 감찰한다”라 말하고 있다. 허정 천사 장계선은 강원수를 지기십장 중의 여섯 번째 신장으로 임명하였다.

명대 주사득(周思得)의 『상청영보제도대성금서』(上淸靈寶濟度大成金書) 제35권에서는 동악대제 좌신(東嶽大帝 佐神)이 ‘충현위제선리부응소열왕’(忠顯威濟善利孚應昭烈王)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곧 강원수(康元帥)이다.¹³²⁾

『삼교원류수신대전』(三教源流搜神大全)에는 아래와 같은 관련 기록이 있다. 강원수(康元帥)는 용마(龍馬)의 정령을 다스리는 일을 하기 위해 인황(仁皇) 염덕(炎德) 9년에 황하 유역에서 태어났다. 강원수의 아버지는 강구(康衢)이고 어머니는 금씨(金氏)이다. 어려서부터 자비롭고 지혜로웠으므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태중에 있는 것과 어린 생명을 해치지 않았다. 그리고 고아나 과부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생명을 중시하여 작은 벌레조차도 쉽게 죽이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커다란 매 한마리가 황새의 새끼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을 보고 황새의 새끼를 구하여 우유를 먹여 주었는데, 후에 황새가 강원수에게 장생초를 갖다 주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였다. 강원수의 인자함은 하늘에까지 알려지게 되어 천제가 그를 인성강원수(仁聖康元帥)에 봉하여 사방사령(四方社令)을 다스리게 하였다.¹³³⁾

131) 같은 책, 禮二之一二, p.856.

132) 『藏外道書』(成都: 巴蜀書社, 1994), 第17册, p.465.

133) 『繪圖三教源流搜神大全』, p.240.

남송 후기에 북송의 명장수인 강보예(康保裔) 또한 강원수(康元帥)로 존칭되어 강응(康應)과 동일인으로 인식되었다. 『송사·충의전』(宋史·忠義傳)에 의하면 강보예(康保裔)는 하남(河南) 낙양(洛陽) 사람이다. 조부와 부친이 모두 전장에 목숨을 바친 장수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근면하고 예를 중시하여 빈객들을 잘 모셨고 기마와 활쏘기에 능하였다. 세습제로 장군이 되어 주(周)나라 후기에 전장에서 여러 번 공을 세웠다. 또한 개보(開寶) 연간에 많은 장수들과 함께 석령관(石嶺關)에서 거란족을 무찌르기도 하였다. 수차례 전직을 하다가 고양관(高陽關) 도독으로 임명되었다. 함평(咸平) 2년(999)에 거란족이 침입하자 강보예가 병사들을 이끌고 참전하였다가 적군들에 의해 포위되었다. 당시 수하들이 그에게 변장하여 포위망을 뚫고 도망치기를 권하였으나 보예가 말하길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했는데 구차하게 도망쳐 생을 도모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이렇게 말을 마친 강보예는 병사들과 함께 이틀간에 걸쳐 적과 접전하여 수많은 적들을 살상하였다. 그 후 식량이 떨어지고 지원군이 오지 않아 결국 전군이 전멸하고 말았다. 송 진종(眞宗)은 대명(大名)에 주둔하던 중에 강보예가 전사하였다는 말을 듣고 매우 애통해 하여 이틀간 사람들의 알현을 받지 않았으며 죽은 강보예를 시중(侍中)에 임명하였다.

강보예가 순직한 이후 그의 충성심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민간에서는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많은 사묘(祀廟)를 지었다. 강보예에 관한 이야기가 알려지기 전 민간에는 이미 강왕(康王)[동악태보 강원수(東嶽太保康元帥)]에 대한 신앙이 존재하였으므로 강왕과 강보예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동일시되었다. 남송의 구양수도(歐陽守道)가 편찬한 『영보묘기』(靈佑廟記)에서는 강왕과 강보예를 동일인으로 말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왕이 칙령을 내려 영우묘위현선리영응영렬왕(靈佑廟威顯善利靈應英烈王)에게 영우묘를 하사하셨는데, 그의 성은 강(康)이고 휘(諱)는 보예(保裔)이며, 송초에 북방의 유명한 장군이였다.” 구양수도는 강보예가 낙양사람이며, 영주에서 죽었고 강

남에 간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송나라가 수도를 남쪽으로 옮긴 후 강보예의 영혼이 강남을 떠돈다는 설이 있다. 이에 구양수도는 강보예가 생전에 나라에 충성을 다한 인물이었다고 죽어서도 그의 영혼이 송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고자하여, 중원이 함락되어 송나라가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을 때 강보예의 영혼도 강남으로 향했다고 여겼다.¹³⁴⁾

34. 태세은원수(太歲殷元帥)

태세은원수(太歲殷元帥)는 도경에서 도천태세지덕 은원수(都天太歲至德 殷元帥), 지사맹리 은원수(地司猛吏 殷元帥), 상청무춘맹리태세지덕존신(上清武春猛吏太歲至德尊神), 천심지사기살맹리태세 은원수(天心地司起煞猛吏太歲 殷元帥), 북극어전현령체도조법굉정멸마지사맹리태세대위력지덕원수(北極御前顯靈體道助法畿精滅魔地司猛吏太歲大威力至德元帥), 상청북제지사태세대위덕신왕지덕주수 은원수(上清北帝地司太歲大威德神王至德主帥 殷元帥)로 불린다.

은원수의 이름은 교(郊)이며 은(殷) 주왕(紂王)의 아들이다. 원(元) 경인(庚寅, 1290) 연간에 팽원태(彭元泰)는 『천심지사대법』(天心地司大法)의 후기에서 은원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삼천규찰사(三天糾察使)이며 상고시대 왕의 아들이다. 도를 깨닫고 진실하게 수행하였으며 공덕이 큰 만큼 무한히 변화할 수 있었다. 상제는 그가 신통력으로 성살(星煞)을 물리쳐 백성들을 널리 구제하도록 하였다.”¹³⁵⁾

『법해유주』 제30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지사태세은교장군(地司太歲殷郊將軍)은 천인(天人)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청록색의

134) 歐陽守道, 『巽齋文集』, 卷十六.

135) 『道法會元』, 卷二百四十六, 『道藏』, 第30册, p.520.

얼굴빛에 목에는 열두 개의 해골을 걸고 있다. 붉은 도포를 입고 허리에 검은 띠를 매고 있으며, 맨발을 하고 왼손에는 황월(黃鉞)을 오른손에는 금종(金鐘)을 들고 있다.”¹³⁶⁾ 『도법회원』 37권에 묘사된 형상은 다음과 같다. “푸른 얼굴에 머리카락을 정수리에 틀어 올리고 있다. 붉은 수염에 붉은 옷을 입고 있다. 정수리에 해골 하나가 있고 목에 아홉 개의 해골을 걸고 있으며, 왼손에는 금종(金鐘), 오른손에는 황월(黃鉞)을 들고 머리가 아홉 개인 금우를 타고 있다.”¹³⁷⁾ 246권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두 쪽으로 갈라 빗어 올린 머리에 푸른 얼굴을 하고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얼굴에 목에 아홉 개의 해골을 걸고, 이마에 해골 하나를 달고 있다. 상반신은 별거벗은 채로 허리에 풍대를 매고 맨 발에 붉은 치마를 입었다. 오른손에는 황월, 왼손에는 금종을 들고 있다.”¹³⁸⁾ 『도법회원』 247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푸른 얼굴, 푸른 몸, 붉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으며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붉은 도포를 입고 허리에 교찰(絞紮)을 매고 있으며 위쪽에 있는 왼손으로 해를 오른손으로 달을 받치고 있으며, 아래에 있는 오른손으로 월부를 왼손으로 금종을 들고 있다. 또한 목에 열두 개의 해골을 걸고 오방(午方)의 오색구름 중에 있다.”¹³⁹⁾

『삼교원류수신대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은원수는 주왕(紂王)의 황후인 강씨(姜氏)의 소생으로 태아가 육구(肉球)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출생하여 주왕이 총애하던 달기가 괴물이라 여겨 외딴 곳에 버렸다. 길을 가던 신진인(申眞人)이 아기를 발견하고 신선이 속계에 태어난 것이라 여겨 자신의 거처로 데려갔다. 신진인(申眞人)은 아기의 범명을 금정노(金叮奴)라 지었고, 금나타(金哪吒)라는 정식 이름도 지어 주었다. 또한 외딴 곳에 버려진 일이 있다하여 유명(乳名)을 은교(殷郊)라 하였다. 은교가 일곱 살이 되던 해에 그의 유모가 은교의

136) 『道藏』, 第26册, p.893.

137) 같은 책, 第29册, p.7.

138) 같은 책, 第30册, p.518.

139) 같은 책, 第30册, p.521.

출신에 대해 말해 주었다. 은교는 달기가 자신의 어머니를 해한 것을 알자 복수를 결심하였다. 신진인은 그의 효심에 감복하여 팔보 동굴에서 보물을 선택하라 하였는데 은교는 황월과 금종을 선택하였다. 그는 먼저 해마를 타고 산을 내려가 이신장을 굴복시켰으며, 다시 소추산(掃帚山)으로 향하여 십이상문곡귀(十二喪門哭鬼)를 멸하여 그 해골을 목에 걸었다. 후에 은원수는 무왕(武王)을 도와 주왕(紂)을 멸하였고 도끼로 달기를 베어 어머니의 원수를 갚았다. 옥제는 그를 지사구천유역사지덕태세살벌위권 은원수(地司九天游奕使至德太歲殺伐威權 殷元帥)로 봉하였다.¹⁴⁰⁾

35. 고교당원수(考校党元帥)

필자는 도경에서 고교당원수(考校党元帥)에 대한 출처를 찾을 수 없었다. 『지부십왕발도역』(地府十王拔度儀)에서는 풍도대악부(酆都岱岳府)에 고교죄혼사(考校罪魂司)가 있다고 전한다.¹⁴¹⁾

『삼교원류수신대전』에서는 당원수(党元帥)의 이름은 귀적(歸籍)이고 회주인(懷州人)이라 하였다. 아버지는 이름은 하(何)이며 어머니는 진씨(陳氏)였다. 그는 얼굴이 검었으나 마음은 한없이 선량하였다. 당원수는 소찰사(昭察使)를 지냈고, 청렴하고 정직하여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없게 하였으므로 백성들도 원망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올곧은 성품을 찬양하여 다음과 같은 민요를 만들었다. “당씨 성을 가진 관원은 사리사욕이 없고, 오장육부를 훤히 들여다보듯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네. 어떤 소송도 공정하고 무사하게 처리한다네. 얼굴이 검고 험악하니 죄지은 이는 사람과 귀신을 막론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떨며 눈물

140) 『繪圖三教源流搜神大全』, pp.236-237.

141) 『道藏』, 第3冊, p.596.

흘리네. 재상의 집안에서 백성의 부모와 같은 관원이 났구나” 옥제가 당원수로 하여금 부정당함을 바로잡고 선악을 감찰하게 하였다.¹⁴²⁾

36. 풍도맹원수(豐都孟元帥)

풍도맹원수는 도경에서 풍도거천역사맹원수(豐都巨天力士孟元帥), 풍도거천역사추섭행형원수(豐都巨天力士追攝行刑元帥), 전옥국감사자(典獄鞫勘使者), 고귀대장(拷鬼大將)이라 불린다. 이름은 악(鑿)이며, 풍도 ‘비천팔장(飛天八將) 혹은 ‘내단팔장(內壇八將)의 하나이다.¹⁴³⁾

『도법회원』 261권에서는 그의 형상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붉은 대추와도 같은 얼굴빛에 눈은 둥글다. 네모난 입에 수염이 있으며, 자방건(紫方巾)을 쓰고 있고 푸른 저고리위에 검은 도포, 철갑옷을 입고 있다. 장화를 신고 짧은 치마를 입었으며 팔각대철추(八角大鐵槌)를 들고 있다.¹⁴⁴⁾ 『도법회원』 262권에서의 묘사는 아래와 같다. “황색 두건을 썼으며 얼굴은 붉고 머리는 희다. 자주색의 삿갓을 쓰고 미투리를 신었으며, 흰 도포와 은 갑옷을 입고 손에는 철 방망이를 들고 있다.”¹⁴⁵⁾ 『도법유주』 39권에서 묘사한 형상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형상이지만 악귀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수염이 있고 황포건(黃包巾)을 쓰고 있다. 검은 도포에 철갑옷을 입었는데 흰 띠로 바지를 묶었다. 황색의 가죽신을 신고 손에는 짧은 손잡이가 있는 금추(金錘)를 들었는데, 불과 같은 광채를 내뿜고 있다.”¹⁴⁶⁾

『삼교원류수신대전』의 관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맹원수(孟元

142) 『繪圖三教源流搜神大全』, p.206.

143) 『道法會元』, 卷二百六十、卷二十六十二, 『道藏』, 第30册, p.594, p.602.

144) 『道藏』, 第30册, p.600.

145) 같은 책, 第30册, p.602.

146) 같은 책, 第26册, p.942.

帥)의 이름은 산(山)이고 무신년(戊申年) 8월 12일 생이다. 옥관(獄官)을 지냈는데, 연말에 죄수들이 친족을 그리워함을 가없이 여겨 12월 25일에 죄수들을 석방하여 귀가시켜 주면서 정월 초닷새가 되면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라 하였다. 이 때 그가 석방한 죄수 800명 중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가 없었다. 이후 맹산(孟山)은 죄를 뉘우치고 선한 마음을 갖는 죄수들을 모두 석방해 주었다. 상사가 이 사실을 알고 맹산으로 하여금 죄수들을 모두 찾아 데려오게 하였는데,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800명 죄수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였다. 맹원수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창으로 자신을 찔러 자살을 시도하는데 마침 천신(天神)이 나타나 옥제가 그를 풍도원수(豐都元帥)에 봉했음을 알렸다.¹⁴⁷⁾

37. 익령온원수(翊靈溫元帥)

익령온원수(翊靈溫元帥)는 도경에서 지기상장 온태보(地祇上將 溫太保), 지기상장항금소무현덕원수(地祇上將 亢金昭武顯德元帥), 동악지기의령소무사정우후 온원수(東嶽地祇 翊靈昭武使正佑侯 溫元帥), 지기사의령소무현덕상장화아만뇌사자일기 온원수(地祇司 翊靈昭武顯德上將 火鴉蠻雷使者一炁 溫元帥)라 불린다. 익령온원수는 또한 동악십태보(東嶽十太保)의 수장이다.

『지기상장온태보전』(地祇上將溫太保傳)에 의하면, 익령온원수의 성은 온(溫)이고 이름은 경(瓊), 자는 자옥(子玉)이며, 유명(乳名)은 탁랑(卓郎)이고 온주평양현(溫州平陽縣) 사람이다. 신장이 구척(九尺) 이촌(二寸)에 이르고 매우 용맹하여 곽자의(郭子儀) 대장군을 따라 출전하여 군의 선봉에서 진두지휘를 맡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출전하였을

147) 『繪圖三教源流搜神大全』, pp.245-246.

때 여러 번 기이한 천문 현상이 나타나자 괘자의가 그를 없애고자 하였다. 괘자의의 속셈을 알아차린 온경은 태산(泰山)으로 도주하여 소를 잡고 술을 팔아 생계를 도모하였다. 그러던 중 동악대제 삼태자 병령공(東嶽大帝 三太子 炳靈公)이 도인으로 변신하여 그를 수도의 길로 인도하자 이에 감오하여 두 번 다시 소를 도살하지 않았고 동악묘(東嶽廟)에서 삼년 간 탁발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익령온원수는 악봉(岳峰)에서 황의도인(黃衣道人)을 만났는데 도인이 동악대제가 그를 악부태보(岳府太保)로 정해 놓았으므로 익령온원수가 죽게 되면 악부태보(岳府太保)가 될 것이라 하였다. 도인은 또한 익령온원수로 하여금 자신의 상을 세위 사당 앞에 두게 하였고 그는 명을 따랐다. 태보(太保)인 관구휴(灌丘休)가 온원수에게 말하길 온원수 상의 모습이 변하면 악부태보의 일을 맡게 될 것이라 하였다. 어느 날 맹운(孟雲)과 위언(韋彦) 두 사람이 온원수 상의 모습이 변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때 온경(溫瓊)이 사당에 들어서자마자 서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죽어서도 그 육신이 곳곳이 선 채 땅에 넘어지지 않았다. 온경은 신이 된 이후에도 사당의 음식을 먹지 않았고, 조정에서 봉호를 내려 그의 덕을 기리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또한 행동에 과오가 없었으므로 동악대제가 그를 ‘지부명사쟁취인안대전자’(地府冥司爭取人案大典者)에 봉하여 사람의 생사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온원수가 죽은 다음 해에 송태조가 즉위하였는데, 온주(溫州)에 가뭄이 들자 온경이 이를 위해 기도하여 단비를 내리게 하였다. 훗날 온경은 허정천사(虛靖天師) 장계선(張繼先)으로부터 지기정법(地祇正法)을 전수받아 천사가 청성산(青城山)에서 수련할 때 마귀자리대제(魔鬼慈利大帝)가 방해하자 지기정법으로 마귀들을 제압하였으므로 천사가 그 공적을 기려 그에게 ‘조법익령소무대사태보’(助法翊靈昭武大使太保)라는 이름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다시 천사의 제자인 오도현(吳道顯)을 도와 사귀를 물리쳤는데 도현이 이 사실을 동악대제에게 고하자 동악대제가 온원수를 사해도순(四海都巡), 구주검토사(九州檢討使)에 봉하였다. 또한 이후 천하의

신묘(神廟)가 어디인지를 고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¹⁴⁸⁾

『도법회원』 254권 중의 『동악온태보고소비법』(東嶽溫太保考召秘法)에서는 온경(溫瓊)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2세의 그는 성품이 정직하고, 용모가 특이하였다. 세상의 일에 관심이 없었고 집안의 일을 돌보지 않았으나 훑어보지 않은 서적이 없었으며 음양의 조화에 통달하였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내를 맞지 않고 동정을 간직하였다. 어느 날 밤 금 갑옷을 입고 검을 든 신인이 그의 방에 들어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의 성품이 범상치 않아 동악대제가 그대의 일을 천제께 고하였는데, 천제께서는 그대가 동악도통병태보(東嶽都統兵太保)를 맡으라 명하셨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히 동악행궁전(東嶽行宮殿)에 자네의 상을 갖다 두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여야만 신장의 혼신이 그 상과 합치될 수 있을 것이네.” 이에 온경이 신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도공에게 명하여 자신의 상을 만들어 동악행궁전에 갖다 놓게 하였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악대제에게 절을 올렸다. 어느 날 대전에 이르렀을 때 온원수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상이 푸른빛으로 변하고 붉은 머리카락, 금색 눈을 가진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자리에 선 채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공양을 올리고 어려움을 호소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었다. 서촉의 섭천사(葉天師)가 악병(岳兵)의 힘을 빌어 역병을 일으키는 귀신들을 가두자 태보가 그의 눈앞에 현신하여 역병을 일으키는 귀신들을 물리쳐 백성들을 재난에서 구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촉나라 사람들은 역병에서 벗어났으며 병든 몸이 치유되었다. 어느 날 온원수가 다시 섭천사에게 현현하여 말하기를 “천하의 법관을 보좌하고 병을 없애고자 부적과 주문 그리고 비법을 알려 줄 것이니 이를 널리 선양하라.”고 하였다. 섭천사(葉天師)가 그의 명을 받들어 온원수가 전한 법방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수하였다.¹⁴⁹⁾

148) 『道藏』, 第18册, pp.90-94.

149) 같은 책, 第30册, pp.559-560.

명나라 초 사람인 송렴(宋濂)의 『온충정왕묘당비』(溫忠靖王廟堂碑)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온경의 자는 영청(永淸)인데 그는 온주(溫州) 평양(平陽) 사람이다. 당나라 장안(長安) 2년(702) 5월 5일 오시에 출생하였으며 일곱 살 때 우보(禹步)를 배웠다. 또한 온경은 열네 살에 오경(五經)과 제자백가의 이론 및 불교와 도교에 통달하였다. 26세에 진사(進士)에 낙제하자 탄식하며 말하길 “나는 임금을 도와 백성을 돌볼 수 없으니 죽어서 태산신(泰山神)이 되어 천하의 악을 없애리라.” 하였다. 후에 사천의 섭천사(葉天師)가 온경의 부적으로 역병을 없애자 각지에 온원수의 사당이 세워졌다. 온원수는 익령소무장군정우후(翊靈昭武將軍正佑侯)에 봉해졌다가, 송말에 다시 정복현응위열충정왕(正福顯應威烈忠靖王)에 봉해졌다.¹⁵⁰⁾

『도법회원』 254권에서는 온경의 이름을 포(褒)라 하였으며, 그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신장이 구척 이상이며 얼굴과 손이 푸르고 송곳니를 지녔으며 입술과 머리카락, 눈썹이 모두 붉은 색이다. 금빛 눈은 흉악해 보이며, 자색 두건으로 머리에 쓰고 기러기와 꽃이 수놓인 녹색 도포를 입고 있다. 금빛 허리띠를 매고, 검은 띠가 있는 녹색 가죽 장화를 신고 있다. 짐승 가죽을 두른 지팡이와 금골타(金骨朶), 장검을 들고 귀신을 포획한다. 『법해유주』 37권에서는 그 형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¹⁵¹⁾ “푸른 귀신의 얼굴에 금빛 눈, 날카로운 이를 지녔다. 머리에 삼첨모(三尖帽)를 쓰고, 이마에는 붉은 색을 칠했으며 가장자리를 홍색 비단으로 감은 검고 긴 도포를 입었고, 황금 빛 허리띠를 매고 있다. 가슴을 드러낸 채 금갑옷을 입고 있으며, 녹색 장화를 신었다. 손에는 이리 이빨 모양의 지팡이를 들고 있으며 백마를 타고 있는데 많은 신장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¹⁵²⁾

150) 같은 책, 第30册, pp.559-560.

151) 같은 책, 第30册, p.560.

152) 같은 책, 第26册, p.929.

38. 규찰왕부수(糾察王副帥); 46. 활락왕원수(豁落王元帥)

규찰왕부수(糾察王副帥)와 활락왕원수(豁落王元帥)는 아마도 동일한 신장인 왕령관(王靈官)일 것이다. 도경에서는 그를 뇌정도천활락삼오화차규벌영관철면뇌공 왕원수(雷霆都天豁落三五火車糾罰靈官鐵面雷公王元帥), 도천활락맹리적심충랑제귀박신화뇌벽력영관 왕원수(都天豁落猛吏赤心忠良制鬼縛神火雷霹靂靈官王元帥), 남극화뇌적심충랑맹리 왕원수(南極火雷赤心忠良猛吏王元帥)라 부른다.

왕령관(王靈官)은 원래 민간의 악신이었으나 후에 살수견진인(薩守堅眞人)으로 인해 감화되어 악행을 고치고 선(善)을 행하여 뇌부신장(雷部神將)이 되었다. 원대 판본인 『신편연상수신광기』(新編連相搜神廣記)에 기록된 왕령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수견(薩守堅)이 호남(湖南)의 상음현(湘陰縣)에 갔을 때 동남동녀들을 제물로 바쳐 사당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진인이 사악한 신이 있는 사당은 불태워야 한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막을 사이도 없이 곧 벼락이 떨어져 사당이 불타고 말았다. 이 때 사당의 신이 공중에서 살수견에게 “너 또한 오늘날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당은 더 이상 흥성하지 못했다. 진인이 용흥부(龍興府)에 이르러 강변에서 발을 씻고 있을 때 물 속에 신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신은 황건을 쓰고 금 갑옷을 입었으며 왼손으로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채찍을 들고 있었다. 진인이 그에게 “너는 어떤 신인가?”라고 묻자 그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나는 상음묘의 신인 왕선(王善)인데 진인이 사당을 불태운 후 12년간 진인을 따라 다니며 잘못을 저지르는 시기를 틈타 복수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인의 공덕이 높고 행실이 뛰어나 내가 오히려 마음을 바꾸게 되었으니 천상의 요직을 맡고 있는 진인께서 제가 당신의 수하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 하였다. 이에 진인이

말하기를 “너와 같은 흉악한 신을 받아들이면 필히 나의 법에 해가 될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자 왕령관이 결코 진인을 배신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다. 결국 진인은 이 일을 옥제에게 고하여 왕령관을 수하의 신장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왕령관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였다.¹⁵³⁾

『도법회원』 241권에서는 왕선(王善)이 진인에게 맹세한 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살수견진인은 법으로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내가 피로써 많은 중생을 구제할 것을 맹세하니, 어리석고 간악한 행동을 하는 자는 사정없이 멸할 것이며, 아침 저녁로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 앞에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만약 내가 현묘한 가르침을 어긴다면 하늘이 나를 멸하는 별도 달갑게 받을 것이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결코 그의 죄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¹⁵⁴⁾

『도법회원』 241권에서는 그의 형상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얼굴과 머리카락이 모두 붉고 이글이글 불타는 두 눈을 갖고 있다. 붉은 도포를 입고, 녹색 장화를 신었으며 허리에는 풍대를 매고 있다. 왼손에 화차(火車)를 들고 오른손에는 금 채찍을 들고 있는 모습이 매우 흉악해 보인다.”¹⁵⁵⁾ 『도법회원』 242권에서는 “얼굴과 머리카락이 모두 붉고 머리에 황결건(黃結巾)을 쓰고 있으며 붉은 도포에 금 갑옷을 입고 있다. 왼손에 빗줄을 들고 오른손에 철 채찍을 들고 있다. 녹색 장화를 신고 등에 호랑이 가죽 주머니를 매고 있는데 그 형상이 매우 흉악해 보인다.”라고 하였다.¹⁵⁶⁾

153) 『新編連相搜神廣記』, 附于『繪圖三教源流搜神大全』后(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pp.517-518.

154) 『道藏』, 第30册, p.491.

155) 같은 책.

156) 같은 책, 第30册, p.493.

39. 선봉이원수(先鋒李元帥)

선봉이원수(先鋒李元帥)는 도경에서 순령소화사(順靈昭化使)로 불리며, 동약십태보 중 한 명이다. 『삼교원류수신대전』에 있는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이원수의 이름은 봉(封)이고 수제(隋帝) 임오년(壬午年) 5월 5일에 진강구(鎭江口) 유역에 사는 이방(李芳)의 아내에게 잉태되었다. 성품이 강직하였으며 힘이 장사였다. 이원수(李元帥)는 이웃의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 사람을 죽인 후 남해(南海)로 도주하여 역적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신묘(海神廟)에서 강도를 잡았으며 강도가 가둔 남녀들을 풀어 주게 되었다. 또한 바다에서 큰 악어를 죽여 배가 항해하는데 풍랑이 일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그의 공덕을 기려 옥제가 그에게 선봉(先鋒)의 직책을 하사하였다.¹⁵⁷⁾

40. 맹렬철원수(猛烈鐵元帥)

도경에서는 철원수(鐵元帥)를 영웅맹렬 철원수(英雄猛烈 鐵元帥), 협령소제사(協靈昭濟使)라 부른다. 그의 이름은 정(定)이며 동약십태보 중 한 명이다.

『삼교원류수신대전』에서는 이원수에 관해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철원수의 이름은 두(頭)이고 은(殷) 주왕(紂王) 병오년(丙午年) 5월 7일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용맹하였고 기개와 담력이 남달랐다. 마귀를 물리쳐 사당에서 불태워 죽였으며 자허루(紫虛樓)에서 요괴들을 떨하였다. 현제(玄帝)가 그를 천상에 초청하여 맹렬원수(猛烈元帥)에 봉하였다.¹⁵⁸⁾

157) 『繪圖三教源流搜神大全』, pp.192-193.

41. 풍륜주원수(風輪周元帥)

도경에서는 풍륜주원수를 북방풍륜탕사주원수(北方風輪蕩邪周元帥)라 부른다. 이름은 거부(巨夫)이다.

『태상삼통신주』(太上三洞神呪) 4권에는 소풍륜주장군주(召風輪周將軍呪)가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이 혼돈 중에 있던 원시에 처음으로 기가 나누어졌다. 북방에 있는 장군을 일컬어 풍륜(風輪)이라 하는데, 그는 신장이 천장(千丈)에 달하고 철면을 지니고 있다. 풍륜이 구름을 부르고 안개를 토해내면 많은 신장들이 생겨나 도처에서 흉신들을 제거한다. 흉신들은 마귀나 귀신, 혹은 요괴나 요정들이다. 멀거나 혹은 가까운 곳을 막론하고 풍륜이 한 번 지나가면 귀신들은 흔적도 없이 모두 소탕된다. 옥제의 명이니 어찌 소홀히 할 것인가? 신속히 움직여 시비를 분간할 것이다.”¹⁵⁹⁾

42. 지기양원수(地祇楊元帥)

도경에서는 지기양원수(地祇楊元帥)를 풍도주장 양원수(豐都主將 楊元帥), 통령소우사(通靈昭佑使)라 부르는데 그 역시 동악십태보(東嶽十太保) 중 한명이다. 『삼교원류수신대전』 중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원수의 이름은 표(彪)이고, 한대(漢代) 사람으로 경신년(庚申年) 10월 16일에 태어났다. 정위장(廷尉長)을 지냈으며 상부의 명에 굴복하지 않을 정도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였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158) 같은 책, p.233.

159) 『道藏』, 第2册, p.72.

사적인 정에 얽매이지 않았다. 상제가 그의 공을 인정하여 지신(地祇)의 소임을 맡겼고 오방(五方)의 흉살을 감찰하게 하였다. 지기양원수는 횡포한 짓을 일삼는 십이염군(十二閻君)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이 억울한 송사로 감옥에 갇히는 법이 없도록 하였고, 산과 바다를 횡행하는 도깨비들을 감시하였다.¹⁶⁰⁾

43. 낭령관원수(朗靈關元帥)

낭령관원수는 도경에서 낭령의용 관원수(朗靈義勇 關元帥), 풍도괭마 낭령 관원수(豐都馘魔朗靈關元帥), 풍도추섭원수(豐都追攝元帥), 홍뢰섭정청령상위상장관원수(轟雷攝正靑靈上衛上將 關元帥), 뇌부참사사(雷部斬邪使), 흥풍발운상장(興風撥雲上將), 괭마대장(馘魔大將), 호국도통군(護國都統軍), 평장정사(平章政事), 숭녕진군(崇甯眞君)으로 불린다. 그는 곧 삼국시대의 명장 관우(關羽)이다.

관우의 자는 운장(雲長)이고 하동해주(河東解州)[오늘날 산서(山西) 운성(運城)] 사람이다. 유비, 장비와 결의형제를 맺었으며, 형주를 지키던 중 군사에 패하여 생포되어 살해된다. 상세한 내용은 『삼국지·관우전』을 참고하기 바란다.

관우가 큰 공적을 이루려던 시기에 오나라의 장군인 여몽(呂蒙)에 의해 살해되었으므로, 그의 죽음은 원한이 맺혀 있었다. 형주(荊州) 사람들은 울분에 찬 관우의 영혼이 인세에 분노를 터뜨려 해를 입을까 우려하여 곳곳에 사당을 세워 그의 원혼을 위로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주 사람들은 관우가 원한과 분노에 차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사실을 잊게 되었고, 용맹하고 충의로운 관우의 이미지가 형

160) 『繪圖三教源流搜神大全』, pp.214-215.

주의 민간 신앙 중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후 관우는 악을 평정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선신(善神)으로 추앙되었다.¹⁶¹⁾

관우가 언제부터 도교의 신장 체계 속에 유입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는 ‘해주에서 요괴를 평정한’(解州平妖) 이야기로 인하여 신력이 인세에 널리 알려졌다. 북방에 위치한 해주(解州)는 소금의 산지로 유명하다. 원대(元代) 『선화유사』(宣和遺事)의 관련 기록을 보면 송 휘종 승녕(崇寧) 5년(1106) 여름, 해주의 염지(鹽池)에 교룡이 나타나 민간에 해를 끼치고 있었는데, 휘종은 30대 천사 장계선에게 이를 평정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장계선이 열흘을 넘기지 않고 교룡을 제압하자 황제가 그를 불러 교룡이 어떤 요괴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장계선은 옛날 현원 황제가 치우를 죽였으므로, 후세인들이 치우의 사당을 지어 그가 인세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았는데, 이후 치우의 사당이 무너져 없어지면서 치우가 교룡으로 변하여 민간에 해를 끼치니 교룡을 제거할 수 있는 신에게 제를 올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휘종이 어떤 신이 할 수 있는지를 묻자 장계선은 촉의 장군이었던 관우가 교룡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서, 관우가 황제 앞에 현신하도록 하였다.¹⁶²⁾ 사람들이 관우가 교룡을 물리쳤다고 여기는 것은 관우의 고향이 해주인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도법회원』 259권에서는 관우가 황제 앞에 현신하여 “대도를 꺼내 든 채 교룡의 머리를 잡고 물러서지 않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관우가 송 휘종이 자신에게 봉호를 내리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송 휘종은 “관우에게 승녕전(崇寧錢)을 던져 주면서 그를 승녕진군(崇寧眞君)에 봉하였다.” 장계선은 관우가 억지로 봉호를 받은 것을 책망하며 오백년간 풍도(豐都)에서 일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로 인해 관우는 풍도장(豐都將)이라 불리기도 한다.¹⁶³⁾

161) 蔡東洲, 文廷海著: 『關羽崇拜研究』(成都: 巴蜀書社, 2001), pp.54-55.

162) 『宣和遺事』(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p.21.

163) 『道藏』, 第30冊, p.594.

『도법회원』 제259권에서 묘사한 관우의 형상은 다음과 같다. “대추와 같이 붉은 얼굴에 봉황의 눈과 삼각수를 지녔는데 수염의 길이가 일척 팔촌에 이른다. 천청결건(天靑結巾)을 쓰고 붉은 조복을 입었으며, 옥대를 허리에 매고 검은 장화를 신었다. 용두대도(龍頭大刀)를 손에 들고 있으며 적토마가 그를 따르고 있다.”¹⁶⁴⁾

『도장』에 수록된 『태상대성낭령상장호국묘경』(太上大聖朗靈上將護國妙經)에서는 관원수가 상제의 칙령을 받아 삼계를 관장하며 낮에는 세인들의 공과(功過)를 감찰하고 밤에는 명부의 귀신을 재판한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⁶⁵⁾

44. 충정장원수(忠靖張元帥)

계룡산 판본에서는 충정장원수(忠靖張元帥)를 ‘충익장원수’(忠翊張元帥)로 기록하고 있는데 오기이다.

충정장원수는 원래 동악대제(東嶽大帝)를 수호하는 좌신(佐神)으로 장사인(張舍人)으로 불리는데, 후에 당대(唐代)의 충신인 장순(張巡)과 동일인으로 인식되었다. 『도경』에서는 충정장원수를 철도지뇌동평충정왕장원수(鐵轟地雷東平忠靖王張元帥), 통천참사대장동평충정위열원수(通天斬邪大將東平忠靖威烈元帥), 선령소경사(宣靈昭慶使)라 부르는데 동악십태보(東嶽十太保) 중의 한 명이다.

『송요회집고』에 있는 「임정지[충]정왕사」(臨汀志[忠]靖王祠)편에서는 충정장원수가 희을 사람인 장유엄(張有嚴)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 개원(開元) 원년(713) 8월 18일에 출생하였으며, 14년(726) 7월 25일에 열반에 들어 신이 되었는데 이후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제후에 봉

164) 같은 책, 第30冊, p.588.

165) 같은 책, 第34冊, pp.746-747.

해졌다. 송의 태조(太祖)가 태원(太原)에 직접 출정하였을 때 강의 물이 범람하여 걱정하던 차에 갑자기 물이 얼어붙어 순조롭게 강을 건너게 되었다. 또한 이때 하늘로부터 충정장원수와 그의 사자들이 내려와 황제를 보호하였다. 이런 이유로 충정장원수는 희녕(熙寧) 5년(1072)에 제물후(濟物侯)로 승격되었다. 이후 재상인 왕안석(王安石)이 충정장원수와 관련한 영험한 일을 자세히 기록하여 황제에게 올리자 황제는 다시 그를 충의문정무녕가응후(忠懿文定武甯嘉應侯)에 봉하였다. 당시 황제가 남방 순찰에 나섰을 때, 충정장원수가 다시 전당강(錢塘江)가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특히 복건의 해안에서 그 신력이 드러나 여러 번에 걸쳐 동평충정왕(東平忠靖王)에 봉해졌다.¹⁶⁶⁾ 『송요회집고』에서는 원주성(沅州城) 서쪽에 남악장태보(南嶽張太保)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으며, 정화(政和) 2년(1112) 9월에 남악장태보를 영우후(靈佑侯)에 봉했다고 전한다.

충정장원수는 정화(政和) 6년(1116) 시월에 다시 우순령현공(佑順靈顯公)에 봉해졌고, 선화(宣和) 7년(1147) 9월에는 황제는 그의 공덕을 기려 사당을 짓도록 하였다. 이후 충정장원수는 고종(高宗) 건염(建炎) 2년(1128)에 다시 충정왕(忠靖王)에 봉해졌다. 소흥 17년(1147) 10월에 황제는 그의 부인을 협혜부인에 봉하였으며, 22년(1152) 2월에 그를 다시 충정위현왕에 봉하였다. 효종 융흥(隆興) 원년(1163) 7월에 황제는 충정장원수를 충정위현령우왕(忠靖威顯靈佑王)에 봉하였고, 건도(乾道) 7년(1171) 정월에 충정위현령우영제왕(忠靖威顯靈佑英濟王)에 봉하였다.¹⁶⁷⁾

남송의 『함순비릉지』(咸淳毗陵志) 제14권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가응후묘(嘉應侯廟)는 자성사(資聖寺) 뒤쪽에 있는데, 모시는 신은 성이 장(張)씨이고 그 부인은 여씨(呂氏)이다. 처음에는 가응후(嘉應侯)에 봉해졌다가 다시 동평충정부응왕(東平忠靖孚應王)에 봉해졌다. 동

166) 같은 책, 第34册, pp.746-747.

167) 『宋會要輯稿』, 禮二〇之一六, p.772.

약묘(東嶽廟) 서쪽 전(殿)에 신상이 있다.”

송(宋)나라 홍매(洪邁)의 『이현지지』(夷堅支志) 무권(戊卷) 7에 실린 「신주영졸정초」(信州營卒鄭超)편에서의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정초(鄭超)가 꿈에 동악제팔사(東嶽第八司)에 이르렀을 때 한 신이 신전으로 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동평충정왕(東平忠靖王)인데 인세의 생사안(生死案)을 관장하고 정직함과 무사함을 판결한다. 자네가 다시 환속하여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도 무방하다”¹⁶⁸⁾고 하였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신은 곧 장태보(張太保)이다.

명대의 왕오(王鏊)는 『고소지』(姑蘇志) 28권에서 동평충정왕의 사당이 소주(蘇州) 우산(虞山)의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왕오(王鏊)는 충정왕의 생애와 그의 봉호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송요회집고』에 실린 「임정지」(臨汀志)의 내용과 동일하다.

『고금도서집성·박물회편·신이전』(古今圖書集成·博物彙編·神異典) 51권에 수록된 신묘부(神廟部)에서는 ‘소열묘’(昭烈廟)가 옥산현(玉山縣) 치남(治南)에 위치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원의 예중(倪中)은 동평충정왕이 송대에 왕으로 봉해졌으며, 원대의 지정(至正) 4년(1344)에 이르러 호국충정위현경우진군(護國忠靖威顯景佑眞君)에 봉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정 7년(1347)에 왕이 물이 범람한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보호한 공으로 인해 홍제(洪濟)에 봉해졌다. 동평충정왕을 받드는 관원들은 그가 당나라의 어사중승(禦史中丞)을 지냈던 장순(張巡)이라 여겼으며, 채천(蔡薦)이라는 사람만이 그가 장변(張杼)이며 휴양성(睢陽城)이 함락될 때 변을 당했던 36명 중의 한 사람이라 기록하였다.¹⁶⁹⁾

명대 전여성(田汝成)의 『서호유람지』(西湖遊覽志) 12권에는 항주(杭州) 석불산(石佛山) 해회사(海會寺) 근처에 있는 강장(康張)의 사당에 위제선리부응소열강원수(威濟善利孚應昭烈康元帥)와 동평충정홍제경우

168) 『夷堅志』(北京: 中華書局, 2006), 第3册, pp.1104-1105.

169) 『古今圖書集成』(上海: 中華書局影印本, 1934), 第493册, p.51.

장원수(東平忠靖洪濟景佑張元帥)가 모셔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명대 주사덕(周思德)이 편찬한 『상청영보제도대성금서』(上淸靈寶濟度大成金書) 35권에는 동약대제의 좌신이 동평충정위현령우영제왕(東平忠靖威顯靈佑英濟王)이라고 되어 있는데 곧 장원수(張元帥)를 말한다.¹⁷⁰⁾

일부 학자들은 당시의 조정에서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민간에서 신봉하는 장원수에게 제사를 지내자 백성들은 점차적으로 장원수와 당대(當代)에 봉호를 받았던 충신 장순을 동일한 인물로 인식되게 되었을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¹⁷¹⁾

장순(張巡, 709-757)의 원적은 포주(蒲州) 하동(河東)[지금의 산서성(山西省) 예성현(芮城縣)]이며 등주(鄧州)[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등주시(鄧州市)]에서 출생하였다. 천보(天寶) 15년(755)에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장순(張巡)은 진원(眞源)[지금의 안휘성(安徽省) 박주(亳州) 서쪽]의 현령 신분으로 병사들을 일으켜 옹구(雍丘)[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치현(杞縣)]를 지켰다. 지덕(至德) 2년(757)에 휴양(睢陽)[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상구(商丘)]으로 옮겨 태수(太守)인 허원(許遠)과 함께 전장에 참여하였고, 양식이 떨어지고 지원군이 오지 않아 결국 성이 함락되어 적군의 포로로 전락되는 속에서도 충절을 지키다 세상을 떠났다. 그는 단지 몇 천의 병력으로 옹구(雍丘), 영릉(甯陵), 휴양(睢陽) 등의 성을 지키기 위해 고전하였고, 20개월간 수십만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군사적 지략으로 위협에 대처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순국한 장순에게 양주대도독(揚州大都督)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 본전(本傳)에 그의 사적에 관한 기록이 있다.

민간에서는 그의 충의에 감동하는 한편 역병을 물리치기 위해 장순이 죽은 후에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장순이 생전에 악귀가 되어 도적들을 물리친 적이 있다는 설이 있다.)

170) 『藏外道書』, 第17册, p.465.

171) 王健, 「神靈入祀與地方社會: 明代無錫張巡信仰考略」, 『史林』 第4期, 2013.

원래 장순의 사당은 협충묘(協忠廟), 쌍충묘(雙忠廟)[허원(許遠)과 함께 모셔져 있음]로 불렸는데, 동악태보 장원수(東嶽太保張元帥)의 사당은 동평충정왕사(東平忠靖王祠)라 부른다. 그러나 후에 장순이 동평충정왕으로 불리면서 장유엄(張有嚴) 아들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도법회원』 257권에서는 충정장원수가 청귀(靑鬼)의 얼굴에 백번첩전(白翻簷簷) 모자를 쓰고 흰 도포를 입었으며 허리에 옥대를 매고 녹색 장화를 신은 채 장검을 손에 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⁷²⁾

47. 신뢰석원수(神雷石元帥)

『도법회원』 27권에서는 부장(副將) 석원수(石元帥)의 휘(諱)는 원(圓)이고, 김붉은 도포에 관수건을 쓰고 허리에 긴 띠를 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⁷³⁾

『삼교원류수신대전』에는 신뢰석원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석원수(石元帥)의 이름은 신(神)이고 상계(相溪) 사람이며 주선왕(周宣王) 7년 3월 4일에 태어났다. 그가 태어날 때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쳤으며 하늘에 용이 출현하였다. 이에 석원수의 부모는 “아들은 용의 혈통일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는 총명하고 조용한 성품을 지녔으며 오랜 기간 관중(關中)을 여행하였다. 관윤자(關尹子)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미산(眉山)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석씨(石氏)가 간절히 기도를 올리자 곧 큰 비가 내렸는데, 세상을 떠난 후 신이 되었다. 이후 상제가 그를 오너의 대장에 봉하였으며, 인세의 상벌을 주관하게 하였다.¹⁷⁴⁾

172) 『道藏』, 第30册, p.579.

173) 같은 책, 第11册, p.224.

174) 『繪圖三教源流搜神大全』, p.207.

48. 감생고원수(監生高元帥)

초기의 도경에는 ‘감생도명군’(監生度命君)¹⁷⁵⁾, ‘구천감생대신’(九天監生大神)¹⁷⁶⁾이라 하고, 생육을 주관하는 신이라 기록하고 있다. 감생대신(監生大神)은 구천(九天)의 감생사(監生司)를 관장하며 그 수하에 최생(催生), 보산(保產) 등의 신장들이 있다. 그러므로 고원수(高元帥)는 감생사(監生司)에 속한 신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무상황록대제입성의』(無上黃籙大齋立成儀) 56권에는 “최생보산고천정”(催生保產高天丁)¹⁷⁷⁾이라는 말이 있고, 『도법회원』 196권에는 “고원수최생부”(高元帥催生符)¹⁷⁸⁾라는 기록이 있다.

고원수가 ‘천봉신주’(天蓬神呪)에서 언급된 바 있는 ‘고조북옹’(高刁北翁)이라는 일설이 있다. 『도법회원』 155권에는 “최생 보산 천정고조”(催生 保產 天丁高刁)라는 기록이 있다.¹⁷⁹⁾ 『법해유주』(法海遺珠) 제45권에서는 고조북옹(高刁北翁)의 성은 고(高)이고 이름은 백진(伯眞)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¹⁸⁰⁾ 또한 『도법회원』 156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고조북옹 신장의 성은 기(起)이고 이름은 연(淵)인데 그는 삼통천중삼원신왕북도삼살대신(三洞天中三元神王北都三殺大神)이다. 검은 천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으며, 큰 소매가 있는 검은 옷을 입고 있다. 왼손에는 금중(金鍾)을, 오른손에는 옥추(玉鍾)를 들고 있다. 그는 많은 수하들을 이끌고 역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다스린다.”¹⁸¹⁾

『삼교원류수신대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고원수(高元帥)

175) 『赤松子章曆』, 卷六, 『道藏』, 第28册, p.839.

176) 『太上老君說五門金章受生經』, 『道藏』, 第11册, p.418.

177) 『道藏』, 第9册, p.718.

178) 같은 책, 第30册, p.242.

179) 같은 책, 第29册, p.816.

180) 같은 책, 第26册, p.999.

181) 같은 책, 第29册, p.824.

의 이름은 원(員)이며, 시원태을(始元太乙)의 정기를 받아 창주(蒼州)의 고춘공(高春公) 부인인 매씨(梅氏)에게 잉태되어 갑자년(甲子年) 12월 갑자일(甲子日)에 출생하였다. 그가 출생할 때 한 뭉치의 불빛이 해와 같이 밝게 빛났으므로 그 부모가 이를 이상히 여겨 태아를 강에 버렸는데 약사천존(藥師天尊)이 아기를 구하여 자신의 제자로 키웠다. 고원수는 의약에 능통하여 각종의 희귀한 질병도 능히 치료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구멍이 뚫린 선목(仙木) 한 그루에 벌레가 붙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엾게 여겨 살려주려 하였으나 벌레는 나무에 붙은 채로 죽고 말았다. 벌레가 죽은 후 사람의 입을 빌어 고원이 자신을 살리지 못한 것을 질책하자 고원은 회생술을 사용하여 죽은 벌레를 다시 살려 내었다. 옥제가 고원의 인자함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구천향생고원수(九天降生高元帥)에 봉하였다.¹⁸²⁾

이상으로 『옥추보경』에 기록된 48신장의 내력에 대한 초보적인 고찰을 진행하였다. 추후 언어상의 문제로 이번 연구에서는 참조하지 못한 한국의 『옥추보경』 연구 성과와 그 외의 연구를 참고하여 조선 『옥추보경』에 나타나는 신장에 대한 더욱 정확한 분석에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대순진리회의 48장과의 비교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하기를 기대한다.

182) 『繪圖三教源流搜神大全』, pp.217-218.

중국 국가도서관 소장 清代 『玉樞寶經』 神將圖
청대 옥추보경 신장도

二、東華教主
동화교주

一、萬法教主
만법교주



四、神功妙濟許眞君

신공묘제허진군

三、大法張天師

대법장천사



六、洛陽薩真人
낙양살진인

五、海瓊白真人
해경백진인



八、判府辛天君
판 부 신 천 군

七、主雷鄧天君
주뢰 등 천 군



十、月孛朱天君
월 배 주 천 군



月孛朱天君

九、飛捷張天君
비 침 장 천 군



飛捷張天君

十二、清微教主祖元君

청미교주조원군

十三、清微教主魏元君

청미교주위원군

十一、洞玄教主辛祖師

통현교주신조사



十五、混元教主路眞君

혼 원 교 주 노 진 군

十六、混元教主葛眞君

혼 원 교 주 갈 진 군

十四、洞玄教主馬元君

통 현 교 주 마 원 군

混元教主葛眞君

混元教主路眞君

洞玄教主馬元君



十九、火德謝天君
화 덕 사 천 군

十七、神霄鍾離呂二真君
신 소 종 리 여 이 진 군



二一、 甯任二大天君
 영 임 이 대 천 군

二十、 玉府劉天君
 옥 부 유 천 군



二四、雷門畢元帥
뇌 문 필 원 수

二三、雷門苟元帥
뇌 문 구 원 수

雷門畢元帥

雷門苟元帥



二六、都督趙元帥
도독조원수

二五、靈官馬元帥
영관마원수

都督趙元帥



靈官馬元帥



二九、混元龐元帥
혼 원 방 원 수

二七、虎丘王高二元帥
호 구 왕 고 이 원 수
二八、

混元龐元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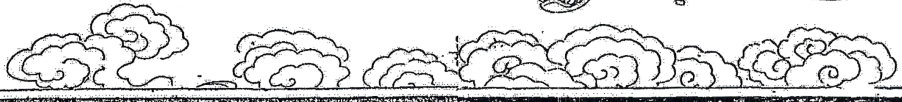


虎丘王高二元帥



三一、豁落王元帥
활락왕원수

三十、洞神劉元帥
통신유원수



三三、監生高元帥
감 생 고 원 수

三二、神雷石元帥
신뢰석원수



三五、地祇楊元帥
지 기 양 원 수

三四、風輪周元帥
풍 른 주 원 수



三七、忠靖張元帥
충 정 장 원 수

三六、郎靈關元帥
낭 령 관 원 수

忠靖張元帥

朗靈關元帥



三九、太歲殷元帥
태 세 은 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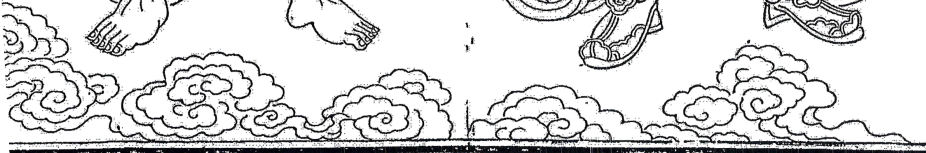
三八、仁聖康元帥
인 성 강 원 수



太歲殷元帥



仁聖康元帥



四一、豐都孟元帥
풍도맹원수

四十、考校党元帥
고교당원수



四三、糾察王副帥
규찰왕부수

四二、翊靈溫元帥
익령은원수



四五、猛烈鐵元帥
맹 령 철 원 수

四四、先鋒李元帥
선 봉 이 원 수



猛烈鐵元帥



先鋒李元帥

朝鲜刊本『玉枢宝经』中的神像研究

尹志华

中国道教协会副研究员·国际部副主任

- | | |
|---------------------|---------------------|
| 一、万法教主 | 二十四~二十五、宁大天君、任大天君 |
| 二、东华教主 | 二十六、雷门荀元帅 |
| 三、大法天师 | 二十七、雷门毕元帅 |
| 四、神功妙济许真君；七、旌阳许真君 | 二十八、灵官马元帅 |
| 五、弘济丘天师 | 二十九、都督赵元帅 |
| 六、许静张天师 | 三十~三十一、虎丘王元帅、虎丘高元帅 |
| 八、海琼白真人 | 三十二、混元庞元帅；四十五、洞神刘元帅 |
| 九、洛阳萨真人 | 三十三、仁圣康元帅 |
| 十、主雷邓天君 | 三十四、太岁殷元帅 |
| 十一、判府辛天君；十四、洞玄教主辛祖师 | 三十五、考校党元帅 |
| 十二、飞捷张天君 | 三十六、酆都孟元帅 |
| 十三、月孛朱天君 | 三十七、翊灵温元帅 |
| 十五、清微教主祖元君 | 三十八、纠察王副帅；四十六、豁落王元帅 |
| 十六、清微教主魏元君 | 三十九、先锋李元帅 |
| 十七、洞玄传教马元君 | 四十、猛烈铁元帅 |
| 十八、混元教主路真君 | 四十一、风轮周元帅 |
| 十九、混元教主葛真君 | 四十二、地祇杨元帅 |
| 二十、神霄传教钟离真仙 | 四十三、朗灵关元帅 |
| 二十一、神霄传教吕真仙 | 四十四、忠靖张元帅 |
| 二十二、火德谢天君 | 四十七、神雷石元帅 |
| 二十三、玉府刘天君 | 四十八、监生高元帅 |

『玉枢宝经』全称『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说玉枢宝经』，约出于宋代，是著名的道教经典。¹⁾按道经记载，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为高上神霄玉清真王长生大帝之化身。『无上九霄玉清大梵紫微玄都雷霆玉经』说：“昔在劫初，玉清神母元君是浮黎元始天尊之后，长子为玉清元始天尊，其第九子位为高上神霄玉清真王长生大帝，专制九霄三十六天。”²⁾白玉蟾注『玉枢宝经』说：“自浮黎元始天尊生九子，玉清真王化生雷声普化天尊。”³⁾『雷霆玉枢宥罪法忏』说：“恭惟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号应九天贞明之大圣，寔乃玉清真王之化身。”⁴⁾

宋元以降，『玉枢宝经』在中国广泛流传，影响深远。明世宗和明神宗都曾亲自为该经重刊本作序，推崇备至。大约在明代，集注本『玉枢宝经』传入朝鲜。集注本题“海琼白真人注，祖天师张真君解义，五雷使者张天君释，纯阳孚佑帝君赞”。海琼白真人即南宋道士白玉蟾，祖天师张真君即东汉创立道教的天师张道陵，五雷使者张天君为天上雷部神将之一，纯阳孚佑帝君即“八仙”之一的吕洞宾。

传入朝鲜的集注本『玉枢宝经』，于隆庆四年(1570)在全罗道无等山安心寺首次刊板印刷。据载，昔日有朝鲜官员出使明朝，带回一部『玉枢宝经』，但只藏于家中，未予刊刻流传。后来此本为成均进士吴訢访得。吴訢去世后，经书被赠送给安心寺，该寺遂刊刻传世。此次刊本，缺变相首张及经文一张。⁵⁾雍正十一年(1733)，经宋梦三、徐斗枢等倡议，宁边妙香山普贤寺重刊，缺页如故。丙辰年(1736)，偶然得到缺失的二张，始成全本。⁶⁾光绪戊子(1888)，金滄重校，在鸡龙山刊刻。⁷⁾

1) 关于『玉枢宝经』的介绍，参见任继愈主编：『道藏提要(修订本)』(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1年)，第17-18页；Kristofer Schipper and Franciscus Verellen edited, *The Taoist Canon: A History Companion to the Daoza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Vol 2, p.1092.

2) 载明代『道藏』(北京：文物出版社，上海：上海书店，天津：天津古籍出版社，1988年)第1册，第750页。

3) 载明代『道藏』第2册第570页。

4) 载明代『道藏』第3册第552页。

5) 隆庆安心寺刊本后跋。

6) 雍正普贤寺刊本后跋。

收入明代『道藏』的集注本『玉枢宝经』，没有神像。⁸⁾但朝鲜刊刻的3个版本，都有神像。据日本学者三浦国雄教授『「玉枢经」的形成与传播』⁹⁾一文的考察，与朝鲜刊本同一系统的还有英国大英图书馆藏本和日本天理大学图书馆藏本。笔者在中国国家图书馆古籍馆看到的一部清代刻本，也有神像。

据香港中文大学尹翠琪教授『道教版画研究：大英图书馆藏「玉枢宝经」四注本之年代及插画考』¹⁰⁾一文的考证，大英图书馆藏本大约刊刻于明代永乐年间(1403-1424)或以后。该本绘有45位神仙。笔者发现的中国国家图书馆古籍馆藏清代刊本，与大英图书馆藏本一样，也绘有45位神仙。笔者受大巡宗教文化研究所的委托研究朝鲜时代『玉枢宝经』里收录的48位神将¹¹⁾与大巡真理会『典经』里出现的48位神将¹²⁾是否有共同之处时，据大巡真理会提供的资料发现，朝鲜时代一共三个版本的『玉枢宝经』¹³⁾。1570年安心寺板有41将，1733年普贤寺板有47将，1888年鸡龙山板有48将。关于神像数目不同的原因，笔者尚不知晓。

明代余象斗编『北方真武祖师玄天上帝出身志传』(简称『北游记』)中所载玄帝部将，与『玉枢宝经』中所载神将，相同者甚多。『北游记』卷四说，玉帝加封真武祖师为混元六天万法教主玉虚师相玄天上帝荡魔天尊，上管三十六员天将。御封玄帝部将有：神功妙济许真君，海琼白真君，东华教主，济微(应为清微)传教祖元君，洞玄教主辛真君，清微教主魏元君，混元教主路真君，龟蛇封为水火二将，都督金轮如意赵元帥，关羽封为朗灵

7) 光绪鸡龙山刊本黄一漱跋。

8) 载明代『道藏』第2册第569-587页。

9) 载日本道教学会编：『东方宗教』第105号(2005年出版)，第1-19页。

10) 载香港中文大学『道教研究学报』第2期(2010年出版)，第135-183页。

11) 雍正普贤寺版本和光绪鸡龙山版本的『玉枢宝经』当中在神像图和本文之间都并列了48位神将。但雍正普贤寺版本里缺少旌阳许真君而只有47个神像，而且并没有出现像48神位这样的词汇。

12) “行其工夫的某一天，上帝在甄山上背诵真法咒，行了五方神将、四十八将和二十八将公事”，“位列四十八将，开启玉枢门时，将会失魂落魄。”『典经』中文版，金勋翻译(大巡真理会出版部，2010第一版)，p20, 342。

13) 在开始进行研究时本应参考韩国权威的朝鲜时代『玉枢宝经』研究学者具重会的研究成果。但是具重会的书籍还没有翻译成中文，而且笔者的韩语水平尚无法阅读韩语书籍，有关他的观点今后将加以补充，敬请读者谅解。

关元帅，新兴王、田华封为苟毕二元帅，张健封尽忠张元帅，庞乔封混炁庞元帅，副应封为纠察副元帅，正一灵官马元帅，朱彦夫封管打不信道朱元帅，李伏龙封先锋李元帅，催庐二将军，雨田封降妖辟邪雨元帅，邓成、辛江、张安封为邓、辛、张元帅，任无别、宁世夸封为二太保，刘后封为玉府刘天君，萧琼封为威灵瘟元帅，石神封为神雷石元帅，广泽封为风轮周元帅，谢仕荣封火德谢元帅，离娄、师旷封聪明二圣，康席封为仁圣康元帅，高员封为降生高元帅，孟山封为酆都孟元帅，王铁、高铜封为虎丘王、高二元帅，王恶封九州豁落王元帅，雷公封为九天霹雳大将军酆都章元帅，杨彪封地祇杨元帅，殷高封地司太岁殷元帅，铁头封为猛烈铁元帅，朱佩娘封为雷部雷母，朱孛娘封为月孛天君。¹⁴⁾ 根据小说前文所述，此处所列神将遗漏了“党归籍封为考校党元帅”。¹⁵⁾

兹将『玉枢宝经』大英图书馆藏板、安心寺板、普贤寺板、鸡龙山板、中国国家图书馆藏板与『北游记』所载神将列表如下：

大英圖書館藏板 (45將)	安心寺板(1570) (41將)	普賢寺板(1733) (47將)	鷄龍山板(1888) (48將)	中國國家圖書館 藏清代板(45將)	北遊記(明代)
1.萬法教主	1.萬法教主	1.萬法教主	1.萬法教主	1.萬法教主	萬法教主
2.東華教主	2.東華教主	2.東華教主	2.東華教主	2.東華教主	東華教主
3.大法天師	3.大法天師	3.大法天師	3.大法天師	3.大法張天師	
4.神功妙濟許真君	4.神功妙濟許真君	4.神功妙濟許真君	4.神功妙濟許真君	4.神功妙濟許真君	神功妙濟許真君
		5.弘濟丘天師	5.弘濟丘天師		
			6.許靜張天師		
		6.旌陽許真君	7.旌陽許真君		
5.海瓊白真人	5.海瓊白真人	7.海瓊白真人	8.海瓊白真人	5.海瓊白真人	海瓊白真人
6.洛陽薩真人	6.洛陽薩真人	8.洛陽薩真人	9.洛陽薩真人	6.洛陽薩真人	
7.主雷鄧天君	7.主雷鄧天君	9.主雷鄧天君	10.主雷鄧天君	7.主雷鄧天君	鄧元帥(鄧成)
8.辛(判府辛天君)	8.判府辛天君	10.判府辛天君	11.判府辛天君	8.判府辛天君	辛元帥(辛口)
9.飛捷張天君	9.飛捷張天君	11.飛捷張天君	12.飛捷張天君	9.飛捷張天君	張元帥(張安)

14) 余象斗编：『北方真武祖师玄天上帝出身志传』(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1年)，第225-227页。

15) 同上注，第164页。

10.月孛朱天君	10.月孛朱天君	12.月孛朱天君	13.月孛朱天君	10.月孛朱天君	月孛天君(朱孛娘)
11.洞玄教主辛祖師	11.洞玄教主辛祖師	13.洞玄教主辛祖師	14.洞玄教主辛祖師	11.洞玄教主辛祖師	洞玄教主辛真君
12.清微教主祖元君	12.清微教主祖元君	14.清微教主祖元君	15.清微教主祖元君	12.清微教主祖元君	清微傳教祖元君
13.清微教主魏元君	13.清微教主魏元君	15.清微教主魏元君	16.清微教主魏元君	13.清微教主魏元君	清微教主魏元君
14.洞玄教主馬元君	14.洞玄傳教馬元君	16.洞玄傳教馬元君	17.洞玄傳教馬元君	14.洞玄教主馬元君	
15.混元教主路真君	15.混元教主路真君	17.混元教主路真君	18.混元教主路真君	15.混元教主路真君	混元教主路真君
16.混元教主葛真君	16.混元教主葛真君	18.混元教主葛真君	19.混元教主葛真君	16.混元教主葛真君	
17.神霄傳教鍾呂真仙	17.神霄傳教鍾呂真仙	19.神霄傳教鍾呂真仙	20.神霄傳教鍾離真仙	17.神霄鍾離呂二真仙	
18.神霄傳教鍾呂真仙	18.神霄傳教鍾呂真仙	20.神霄傳教鍾呂真仙	21.神霄傳教呂真仙	18.神霄鍾離呂二真仙	
19.火德謝天君	19.火德謝天君	21.火德謝天君	22.火德謝天君	19.火德謝天君	火德謝元帥(謝仕榮)
20.玉府劉天君	20.玉府劉天君	22.玉府劉天君	23.玉府劉天君	20.玉府劉天君	玉府劉天君(劉俊)
21.審任二大天君	21.審任二大天君	23.審任二大天君	24.審大天君	21.審任二大天君	任無別、寧世諤 二太保
22.審任二大天君	22.審任二大天君	24.審任二大天君	25.任大天君	22.審任二大天君	任無別、寧世諤 二太保
23.雷門苟元帥	23.雷門苟元帥	25.雷門苟元帥	26.雷門苟元帥	23.雷門苟元帥	苟元帥(新興王)
24.雷門畢元帥	24.雷門畢元帥	26.雷門畢元帥	27.雷門畢元帥	24.雷門畢元帥	畢元帥(田華)
25.靈官馬元帥	25.靈官馬元帥	27.靈官馬元帥	28.靈官馬元帥	25.靈官馬元帥	正一靈官馬元帥
26.都督趙元帥	26.都督趙元帥	28.都督趙元帥	29.都督趙元帥	26.都督趙元帥	都督金輪如意 趙元帥
27.虎丘王高二元帥	27.虎丘王高二元帥	29.虎丘王高二元帥	30.虎丘王元帥	27.虎丘王高二元帥	虎丘王高二元帥 (王鐵、高鈞)
28.虎丘王高二元帥	28.虎丘王高二元帥	30.虎丘王高二元帥	31.虎丘高元帥	28.虎丘王高二元帥	虎丘王高二元帥 (王鐵、高鈞)
29.混元龍元帥	29.混元龍元帥	31.混元龍元帥	32.混元龍元帥	29.混元龍元帥	混炁龍元帥 (龍喬)
30.洞神劉元帥	38.洞神劉元帥	44.洞神劉元帥	45.洞神劉元帥	30.洞神劉元帥	
31.豁落王元帥	39.豁落王元帥	45.豁落王元帥	46.豁落王元帥	31.豁落王元帥	豁落王元帥 (王聖)
32.神雷石元帥	40.神雷石元帥	46.神雷石元帥	47.神雷石元帥	32.神雷石元帥	神雷石元帥 (石神)
33.監生高元帥	41.監生高元帥	47.監生高元帥	48.監生高元帥	33.監生高元帥	隆生高元帥 (高良)
34.風輪周元帥		40.風輪周元帥	41.風輪周元帥	34.風輪周元帥	風輪周元帥 (廣澤)
35.地祇楊元帥		41.地祇楊元帥	42.地祇楊元帥	35.地祇楊元帥	地祇楊元帥 (楊彪)
36.朗靈關元帥		42.朗靈關元帥	43.朗靈關元帥	36.朗靈關元帥	朗靈關元帥 (關羽)
37.忠靖張元帥		43.忠靖張元帥	44.忠靖張元帥	37.忠靖張元帥	盡忠張元帥(張健)
38.仁聖康元帥	34.仁聖康元帥	32.仁聖康元帥	33.仁聖康元帥	38.仁聖康元帥	仁聖康元帥(康帝)
39.太歲殷元帥	35.太歲殷元帥	33.太歲殷元帥	34.太歲殷元帥	39.太歲殷元帥	地可太歲殷元帥(殷尚)
40.考校黨元帥	36.考校黨元帥	34.考校黨元帥	35.考校黨元帥	40.考校黨元帥	考校黨元帥(黨歸籍)

41. 鄴都孟元帥	37. 鄴都孟元帥	35. 鄴都孟元帥	36. 鄴都孟元帥	41. 鄴都孟元帥	鄴都孟元帥(孟山)
42. 翔靈溫元帥	30. 翔靈溫元帥	36. 翔靈溫元帥	37. 翔靈溫元帥	42. 翔靈溫元帥	威靈溫元帥(蕭瓊)
43. 糾察王副帥	31. 糾察王副帥	37. 糾察王副帥	38. 糾察王副帥	43. 糾察王副帥	糾察副元帥(副廳)
44. 先鋒李元帥	32. 先鋒李元帥	38. 先鋒李元帥	39. 先鋒李元帥	44. 先鋒李元帥	先鋒李元帥(李伏龍)
45. 猛烈鐵元帥	33. 猛烈鐵元帥	39. 猛烈鐵元帥	40. 猛烈鐵元帥	45. 猛烈鐵元帥	猛烈鐵元帥(鐵頭)
					水火二將(龜蛇)
					管打不信道朱元帥(朱彥夫)
					催麻二將軍
					降妖辟邪雨元帥(雨田)
					聰明二聖(離婁、卮曠)
					九天霹靂大將軍 鄴都章元帥(雷公)
					雷部電母(朱佩娘)

研究朝鮮時代『玉樞寶經』里出現的48將與大巡真理會『典經』中提到的48將之間的關係對闡明大巡真理會的信仰體系與玉樞寶經的內在關係有重要的意義，而且這還將是以道教的觀點研究大巡思想的一項重要的基礎性工作。筆者首先將對鷄龍山版本里收錄的48神將的來歷進行考察。因為目前還沒有資料可研究大巡真理會的48神將。唯一能借鑑的資料是在大巡真理會靈台上奉安的48神像圖。如果要進行比較研究那麼將需要各神位的形態特徵，這項工作將在大巡真理會的48神像圖入手之後進行。

本文根據鷄龍山刊本，對48將的來歷作初步的考察。該本“人集”署“龍門歸依臣趙復振編輯”，可知系全真道龍門派傳本。“復”字輩為全真道龍門派第14代。

筆者認為，『玉樞寶經』中的神像可分為兩類：一是傳法祖師，二是雷部將帥。傳法祖師主要是道教神霄派、清微派的神仙和歷史人物，如萬法教主(即真武大帝)、大法天師(即張道陵天師)、神功妙許真君(即許遜)、海琼白真人(即白玉蟾)、洛陽薩真人(即薩守堅)、清微教主魏元君(即魏華存)等。由於集注本『玉樞寶經』刊印於元代，其時全真道十分興盛，因而『玉

枢宝经』中又增加了全真道的祖师东华教主(即东华帝君王玄甫)、钟吕真仙(即钟离权和吕洞宾)。『玉枢宝经』中所列雷部将帅大多可在道教经典『道法会元』中查到。

虽然『北游记』影响巨大, 但该书将各神将都描述成真武大帝收服的对象, 因而都有一个由邪转正的过程, 这不符合道教中的说法, 乃小说家言, 故本文所述各神将来历, 不以之作凭据。

一、万法教主

万法教主即真武大帝。真武大帝又称玄天上帝, 其“万法教主”的称呼见于明代『道藏』。『清微神烈秘法』称“万法教主玉虚师相紫皇太一天君”,¹⁶⁾ 『诸师圣诞冲举酌献仪』称“万法教主玉虚师相玄天上帝”,¹⁷⁾ 『道法会元』卷四十一称“万法教主紫皇天一天君玄天上帝”,¹⁸⁾ 卷八十二称“万法教主紫皇玄天元圣仁威上帝”。¹⁹⁾

真武, 本名玄武, 乃天上二十八宿中北方七宿之总名。后来玄武被视为北方黑帝的象征。²⁰⁾ 按照中国古代关于方位配五行的观念, 北方属水, 玄武被视为水神。宋真宗大中祥符五年(1012), 为避赵宋始祖赵玄朗名讳, 改称“玄武”为“真武”。²¹⁾ 在宋代, 真武与天蓬、天猷、黑煞(翊圣)一起被称为“四圣”, 为四大护法神。真宗天禧二年(1018), 诏加真武封号为“真武灵应真君”。²²⁾ 徽宗大观二年, 加封“佑圣真武灵应真君”。²³⁾ 钦宗靖康

16) 载明代『道藏』第4册第152页。

17) 载明代『道藏』第9册第65页。

18) 载明代『道藏』第29册第27页。

19) 载明代『道藏』第29册第321页。

20) 汉代纬书『河图』说:“北方黑帝, 神名叶光纪, 精为玄武。”又说:“北方黑帝, 体为玄武。”

21) 李焘:『续资治通鉴长编』卷七十九。

22) 『宋大诏令集』卷一百三十六, 李焘:『续资治通鉴长编』卷九十二。

23) 『真武灵应真君增上佑圣尊号礼文』, 载明代『道藏』第18册, 第42页。

元年(1126), 再加号曰“佑圣助顺真武灵应真君”。²⁴⁾ 据元代刘道明『武当福地总真集』卷下称, 有宋一代, 真武封号累加至二十四字: “北极镇天真武佑圣助顺灵应福德仁济正烈协运辅化真君”。²⁵⁾ 元成宗大德七年(1303), 加真武封号为“元圣仁威玄天上帝”。²⁶⁾ 此后, 真武遂通称为“真武大帝”或“玄天上帝”。

『道藏』中所收『元始天尊说北方真武妙经』, 谓古时有净乐国太子, 不愿继承王位, 入武当山修道四十二年, 功成升天, 奉玉帝敕命, 镇守北方, 统摄真武之位, 以断天下妖邪。²⁷⁾ 『太上说玄天大圣真武本传神咒妙经』谓真武大帝为太上老君第八十二次化身。²⁸⁾ 『董真君实录』载, 玉帝加封真武为太上紫皇天一真人、玉虚师相玄天上帝, 领九天采访使职。²⁹⁾

二、东华教主

东华教主, 名王玄甫, 系全真教(又称全真道)所奉祖师。

『道藏』所收秦志安撰『金莲正宗记』(成书于1241年), 序言中说, 全真教“源于东华(东华帝君), 流于重阳(王重阳), 派于长春(丘处机)”。³⁰⁾ 该书卷一载东华帝君传, 谓帝君姓王, 字玄甫, 道号东华子。生有奇表, 幼慕真风, 白云上真见而爱之, 称为天上谪仙, 乃引之入山, 授以道法。王玄甫精修三年, 尽得其妙。韬光晦迹百余年, 而世人不识。后授度门人正阳真人钟离权, 全真之道由此滥觞, 故立之以为全真第一祖。³¹⁾ 这是目前所

24) 马端临: 『文献通考』卷九十。

25) 载明代『道藏』第19册第658页。

26) 『元史·成宗本纪』。

27) 载明代『道藏』第1册第813页。

28) 载明代『道藏』第18册第38页。

29) 『太上说玄天大圣真武本传神咒妙经注』引『董真君实录』, 载明代『道藏』第17册, 第91页。

30) 载明代『道藏』第13册第344页。

31) 同上。

见较早记载东华帝君王玄甫生平事迹的文献。

元代道士赵道一所撰『历世真仙体道通鉴』(成书于1294年)卷二十有王玄甫传,谓:“上仙姓王,名玄甫,汉代东海人也。师白云上真得道,一号华阳真人。六月十五日降世,十月十六日上升,不记是何朝代。后传与钟离觉,即正阳子钟离权也。”³²⁾

元世祖至元六年(1269)封东华教主为东华紫府少阳帝君,元武宗至大三年(1310)加封东华紫府辅元立极大帝君。³³⁾

三、大法天师

大法天师即东汉时期创立道教的天师张道陵。

晋代葛洪『神仙传』载,天师张道陵,字辅汉,沛国丰县人。本太学书生,博采五经。晚乃叹曰:此无益于年命。遂学长生之道,时年五十岁。得『黄帝九鼎丹经』,修炼于繁阳山。后于万山石室中得隐书秘文,及制命山岳众神之术。六十岁道成,闻蜀地民风淳朴,可以教化,且多名山,乃率弟子入蜀,隐居鹤鸣山中,遇太上老君授以道法。与诸天魔鬼战斗,夺二十四治,改为福庭。³⁴⁾

『三国志·张鲁传』说:“张鲁字公琪,沛国丰人也。祖父陵,客蜀,学道鹤鸣山中,造作道书,以惑百姓,从受道者出五斗米,故世号米贼。”“米贼”的说法,显然是当时统治者对兴起于民间的宗教的贬称。

唐代道士孟安排『道教义枢』卷二载:“昔汉末,天师张道陵精思西蜀,太上亲降,汉安元年(142)五月一日授以三天正法,命为天师,又付正一科术要道法文。其年七月七日,又授『正一盟威妙经』、三业六通之诀,重

32) 载明代『道藏』第5册第215页。

33) 『金莲正宗仙源像传』,载明代『道藏』第3册第366-367页。

34) 葛洪撰,胡守为校释:『神仙传校释』(北京:中华书局,2010年),第190-191页。

命为三天法师、正一真人。”³⁵⁾

后世道门中尊称张道陵为“三天扶教大法师正一辅玄静应真君”。³⁶⁾

四、神功妙济许真君；七、旌阳许真君

神功妙济许真君与旌阳许真君是同一神仙，即道教净明派尊奉的祖师许逊。

据道书记载，许逊字敬之，晋代南昌人。少以射猎为业，一日入山射鹿，射中一只怀孕的母鹿，鹿胎从箭疮中堕出，母鹿舐其子，未竟而死。许逊怆然感悟，折弩而归，潜心修道。后举孝廉，于晋太康元年(280)出任旌阳令，多有德政。岁大疫，死者十之七八，许逊以所授神方拯治，符咒所及，登时而愈。知晋室纷乱，乃弃官东归，在南昌地区传播孝道。据说许逊的教团有上百人规模，其中骨干有12人，后世称为十二真君。传说他们曾斗蛟斩蛇，为民除害。宁康二年(374)许逊合家飞升，鸡犬悉去。³⁷⁾

道门中尊称许逊为“九州都仙太史高明大使至道玄应神功妙济真君”。³⁸⁾

五、弘济丘天师

丘(邱)弘济天师之名见于明代小说『西游记』，与张道陵、葛玄、许逊一

35) 载明代『道藏』第24册第815页。

36) 见『道门定制』卷三，载明代『道藏』第31册第685页。

37) 参见『云笈七签』卷一百零六『许逊真人传』(载明代『道藏』第22册第727页)，白玉蟾撰『旌阳许真君传』(收入『修真十书』卷三十三『玉隆集』，载明代『道藏』第4册，第755-761页)，以及『许真君仙传』(载明代『道藏』第6册第809-814页)。

38) 『神功妙济真君礼文』，载明代『道藏』第9册第801页。

起被称为“四大天师”。如该书第一回载：“邱弘济真人启奏道：‘万岁，通明殿外，有东海龙王敖广进表，听天尊宣诏。’”第六回载：“至通明殿前，早有四大天师、赤脚大仙等众，俱在此迎着菩萨，即道玉帝烦恼，调遣天兵，擒怪未回等因。菩萨道：‘我要见见玉帝，烦为转奏。’天师邱弘济即入凌霄宝殿，启知宣入。”第三十一回载：“早有张葛许邱四大天师问道：‘大圣何来？’”第五十八回载：“直至凌霄宝殿，马元帅同张葛许邱四大天师奏道……”第八十七回载：“邱洪济、张道陵与葛、许四真人引至凌霄殿下。”

与张道陵、葛玄、许逊并列的邱弘济天师是何人？笔者查阅道经，发现是历史上有名的神仙浮丘公。元代道士陈致虚（字观吾，号上阳子）『太上洞玄灵宝无量度人上品妙经注』卷下说：“如天师、旌阳、浮丘真君之道备德隆，而皆为金阙之臣也。”³⁹⁾ 这里明确把浮丘公与天师张道陵、许逊并列，而且指出他们都天上宫廷之臣。陈致虚『上阳子金丹大要』卷八说：“至若七真五祖，慈悲接人，张、葛、许、浮丘诸祖师，乘时救劫，伺诏飞升者也。”⁴⁰⁾ 这里“张、葛、许、浮丘”四人并列，已与『西游记』完全一致。此外，『无上九霄玉清大梵紫微玄都雷霆玉经』说：“在昔元始天尊敕太清无上元君，令九州都仙太史高明大使（即许逊）判雷霆秦省事，太上玉京太极左宫仙翁（即葛玄）判雷霆玄省事，三天扶教辅元大法师（即张道陵）判雷霆都省事，复以浮丘大仙签书雷霆三省事。”⁴¹⁾ 『太清道德显化仪』载“泰玄上相张真君、天机上相葛真君、天枢上相许真君、金书上相浮丘真君。”⁴²⁾ 『道法会元』卷四十载：“三天圣师泰玄上相正一真君（张道陵），太极仙公冲应孚佑真君（葛玄），九州都仙太史神功妙济真君（许逊），九天掌禄上卿浮丘真君。”⁴³⁾ 这都是将浮丘公与张葛许三位天师并列，因此可以确定“弘济丘天师”就是浮邱公。但“弘济”之号出于何处，笔者尚未查到。

按，浮丘公是著名神仙王子乔的师父。『列仙传』载：“王子乔者，周灵

39) 载明代『道藏』第2册第432页。

40) 载明代『道藏』第24册第29页。

41) 载明代『道藏』第1册第752页。

42) 载明代『道藏』第18册第265页。

43) 载明代『道藏』第18册第265页。

王太子晋也。好吹笙，作凤凰鸣。游伊、洛之间，道士浮丘公接以上嵩高山。”⁴⁴⁾

四十三代天师张宇初于永乐五年(1407)作『华盖山三仙事实序』说：“浮丘者，与容成子、黄帝游，周末授灵王太子晋，汉授诗于申公，与楚元王友，度王褒以仙，即古浮丘公也。”⁴⁵⁾

六、许静张天师

许静张天师，应为“虚靖张天师”，即三十代天师张继先。

张继先(1092-1127)，字遵正(或说字嘉闻，又字道正)，汉代天师张道陵后裔，北宋末著名道士。九岁袭教职。为人渊默寡言，相貌清癯白皙。宋徽宗四次召至京师，建醮内廷，赐号虚靖(一作虚静)先生，视秩中散大夫，并赐昆玉所刻“阳平治都功印”。诏有司在开封东建崇道观，以安置张继先。又赐钱修缮龙虎山上清宫。张继先在京以符水为百姓驱邪疗病。徽宗遣使问道要，乃作『大道歌』以进。大观二年(1108)还山，继游蜀、秦等地。丁未(1127)，钦宗召赴阙，至泗州解化，享年三十六岁。⁴⁶⁾有『三十代天师虚靖真君语录』行世。⁴⁷⁾

南宋楼钥有『恭题徽宗赐张继先御诗』，谓嘉定五年(1212)太一宫知宫事易如刚以所藏徽宗皇帝赐虚靖先生张继先诗翰出示，求跋其后。楼钥对张继先颇为推崇，谓“汉天师道成于蜀，而教传于龙虎山，至三十代而虚靖出，仙姿绝人，道术惊世，人谓天师复生，诚不为过”。⁴⁸⁾

44) 载明代『道藏』第5册第68页。

45) 见『华盖山浮丘王郭三真君事实』，载明代『道藏』第18册第44页。

46) 参见元代张雨『玄品录』卷五(载明代『道藏』18册第139页)、赵道一『历世真仙体道通鉴』卷十九(载明代『道藏』第5册第211-212页)、『汉天师世家』卷三(载明代『道藏』第34册第826-828页)。

47) 载明代『道藏』第32册第368-389页。

48) 楼钥：『攻媿集』卷六十九。

八、海琼白真人

海琼白真人，即南宋道士白玉蟾。道教金丹派南宗实际创始人，又被奉为全真道南五祖之一。

元代道士赵道一所撰『历世真仙体道通鉴』卷四十九有白玉蟾传，谓：“先生姓白，母以玉蟾名之，应梦也。字以阅众甫，一字如晦。”本为福建人，因其祖父在琼州(今海南岛)任官职，故生于海南，乃自号为海琼子。少年中秀才，成年后弃科举，游方外。师事金丹派传人陈楠(号翠虚，又号泥丸)。当时士大夫欲以异科荐之，弗就。往来罗浮、武夷等名山，蓬头跣足而神清气爽。“博洽儒书，究竟禅理。出言成章，文不加点，随身无片纸，落笔满四方”。受上清篆，精通雷法。⁴⁹⁾

『道法会元』卷一百四十七所载『洞玄玉枢雷霆大法』，则谓：“宗师白真人，海琼人也，元姓诸葛，名猛。生而聪明，长而奇异。睹石火之无光，叹白驹之过隙，遂舍富贵而志慕神仙，混名曰白玉蟾，盖欲隐其姓名也。”又谓白玉蟾路遇辛天君，得其传授“洞玄玉枢雷法”。并感叹说：“白君得法于陈泥丸，得法于辛天君，皆神仙聚会，非偶然也。”⁵⁰⁾

按，白玉蟾弟子留元长在『海琼问道集序』中说，他于丁丑年春天“遭遇真师海琼君，姓白讳玉蟾，或云海南人，疑其家于襄沔也”。⁵¹⁾传为白玉蟾另一弟子彭韶所撰『海琼玉蟾先生事实』则说：“先生姓葛，讳长庚，字白叟，先世福之闽清人。”⁵²⁾可见，关于白玉蟾的本名，他的弟子已有不同的说法。

白玉蟾是神霄雷法的重要传人。他不仅为『玉枢宝经』作注，亦为神霄派始祖王文卿所撰『玄珠歌』作注，⁵³⁾并为王文卿所传『汪火师雷廷奥旨』作序。⁵⁴⁾

49) 载明代『道藏』第5册第385-386页。

50) 载明代『道藏』第29册第763-764页。

51) 载明代『道藏』第33册第140页

52) 载『白真人集』卷一，收入萧天石主编：『道藏精华』(台北：自由出版社，1980年)，第10集之二上，第29页。

53) 见『道法会元』卷七十，载明代『道藏』第29册第234-239页。

他本人则撰有『雷霆三帅心录』等著作。⁵⁵⁾他曾将『都天大雷玉书』传授给彭耜。⁵⁶⁾他又对弟子留元长说：“今都天大雷，尽出神霄玉枢之上，谓之景霄大雷。景霄虽在神霄之下，乃元始驻蹕之司。向者天真遣狼牙猛吏雷部判官辛汉岳，授之先师陈翠虚，翠虚以授于我，我今付子，子宜秘之。”⁵⁷⁾

九、洛阳萨真人

洛阳萨真人，即宋代道士萨守坚。“洛阳”疑为“汾阳”之误。

元代道士赵道一所撰『历世真仙体道通鉴续编』卷四有萨守坚传，谓萨真人名守坚，南华人，一云西河人，自称汾阳萨客。原本学医，误用药杀人，遂弃医，欲学道。闻三十代天师张继先及林灵素、王文卿三人道法高妙，遂往访之。出四川至陕西，路费已尽。正坐在一块石头上发愁，忽遇三位道人。一人授其咒枣术，咒一枣可取七文钱；一人授其棕扇一柄，曰：有病者扇之即愈；一人授其雷法。萨守坚至信州龙虎山天师府，投信，方知天师已羽化，而书信为天师亲笔。另外两人正是林灵素和王文卿。萨守坚曾焚毁一座要以牲畜祭祀的城隍庙，⁵⁸⁾庙神王善跟踪十二年，⁵⁹⁾要趁其犯戒之时进行报复。萨守坚持戒谨严，王善无从下手，转而感化，为其护法部将。⁶⁰⁾王善即后来道观中的护法神王灵官。

『道法会元』卷二百四十一至二百四十三所收“雷霆三五火车灵官王元帅秘法”、“豁落灵官秘法”和“南极火雷灵官王元帅秘法”，都以萨守坚为传法祖师。

54) 见『道法会元』卷七十六，载明代『道藏』第294册第262页。

55) 『雷霆三帅心录』载明代『道藏』第29册第328-330页。

56) 见『静余玄问』，载明代『道藏』第32册第411页。

57) 见『海琼白真人语录』卷一，载明代『道藏』第33册第115页。

58) 『绘图三教源流搜神大全』则说是以童男童女生祀庙神。

59) “十二年”原作“三年”，可能是误刻。白玉蟾撰『道法九要』之“持戒第四”说，萨真人烧狩神庙，其神暗随左右，经十二载，真人未尝有丝毫犯戒。(见『道法会元』卷一)

60) 载明代『道藏』第5册第438页。

十、主雷邓天君

主雷邓天君为雷霆三帅(邓、辛、张)之首。道经中称之为雷霆焮火律令大神炎帝邓天君,名燮,字伯温。『道法会元』卷八十描绘其形象是:“赤发金冠,三目,青面,凤嘴,肉翅,左手执钻,右手执槌,赤体珠缠络,手足皆五爪,上带金环,绿风带,红吊(衤+敦)裙,两翼下二头,左主风,右主雨,遍体烈火,乘赤龙。”⁶¹⁾『法海遗珠』卷二十四载其形象是:“青面,凤嘴,银牙,朱发,蓝身,长百丈,右手雷锤,左手雷钻,生两肉翅,眼放光,足龙爪,飞行三界,吞啖鬼神。”⁶²⁾

关于邓天君的来历,据『道法会元』卷五十六、卷五十七所载,黄帝时有邓伯温,为统军领兵使,从黄帝战败蚩尤,封河南将军。大神见黄帝登天,遂弃位入武当山修行。因为曾经吃过人肉,不能升天。上帝念之,封于武当。因见世人不行忠孝,杀害日甚,侵欺日增,以强凌弱,以贵虐贱,遂日夜发愿,欲为神雷,代天诛伐此等恶人。念念不忘,怒气冲天,忽一日身体变化,状若蝙蝠,凤嘴银牙,两腋生出大翅,手足皆龙爪。遂飞游太空,吞啖精怪,斩伐妖龙。上帝封为律令神,隶属神雷。其雷于五月五日午时升入南宫火铃之宅。⁶³⁾

『道法会元』说,此神威力最大,劫坏之时,以两翼鼓动四溟之水,翻浸昆仑之丘,崩倒山河大地。⁶⁴⁾又载:“此神喜饮鹅血,当图其形供养。祷之随意,灵验莫可测度。无鹅血,以羊血代之。又有焮火神符,能断鬼祟,治救百病,祛剪瘟疫。悬于厅堂门户,镇宅消灾,辟除百恶。”⁶⁵⁾

61) 载明代『道藏』第29册第300页。

62) 载明代『道藏』第26册第861页。

63) 载明代『道藏』第29册第139页,第153页。

64) 载明代『道藏』第29册第153页。

65) 载明代『道藏』第29册第154页。

十一、判府辛天君；十四、洞玄教主辛祖师

判府辛天君与洞玄教主辛祖师是同一神仙。他既是“雷霆三帅”之一，又是将洞玄雷法传至人间者，故被尊为祖师。

辛天君在道经中称为雷霆正令青帝辛天君、雷霆正令都督尚书辛天君、掌雷霆火光银牙耀目提点三界铁笔演法大判官、负风猛吏，名汉臣，一名忠义。『道法会元』卷八十一描绘其形象是：“戴牛耳幞头，朱发铁面，银牙如剑，披翠云裘，皂靴，左手执雷簿，右手执雷笔，上有火光。”⁶⁶⁾『清微元降大法』卷十三载其形象是：“牛耳幞头，青面，金甲，金发须，电目，银牙，绿袍，着皂靴，左执簿，右执火笔。”⁶⁷⁾

十二、飞捷张天君

飞捷张天君为雷霆三帅(邓、辛、张)之三。道经中称之为雷霆行令飞捷报应张天君、火雷飞捷报应使者、直符飞捷报应使者。名亚，一名珏，字元伯。『道法会元』卷八十一描绘其形象是：“天丁冠，恶鬼相，青色，金甲朱衣红履，执斧。”卷九十载其形象是：“肉角肉翅，朱发，赤身，凤爪，天丁冠，风带，左手召雷旗，右手雷斧，跨黑龙。”『法海遗珠』卷四十描述其形象是：“面带赤色，交脚幞头，黄抹额，身穿黄金甲，窄袖小袍，风衣飞带，结袴绿靴，执铁斧，乘雷电火光。”⁶⁸⁾

据『无上玄元三天玉堂大法』卷二十四说，张元伯本为五部鬼帅之一，后为祖天师张道陵收伏，归心正道，以忠信位列雷府直符使者。⁶⁹⁾

66) 载明代『道藏』第29册第315页。

67) 载明代『道藏』第4册第214页。

68) 载明代『道藏』第26册第948页。

69) 载明代『道藏』第4册第89页。

按『女青鬼律』卷六载有五方鬼主：“东方青炁鬼主姓刘，名元达，领万鬼，行恶风之病；南方赤炁鬼主姓张，名元伯，领万鬼，行热毒之病；西方白炁鬼主姓赵，名公明，领万鬼，行注炁之病；北方黑炁鬼主姓钟，名士季，领万鬼，行恶毒霍乱心腹绞痛之病；中央黄炁鬼主姓史，名文业，领万鬼，行恶疮痈肿之病。”⁷⁰⁾ 这五方鬼主因祖天师张道陵收伏而归正，受命总摄瘟司，不再为恶。

署名宋代道士王文卿(神霄派祖师)作的『火雷序』认为，雷霆三帅都是元始祖炁所化生。火雷由一炁兆形，强名飞捷张珏，谓之玄炁，乃洞神之尊神。从一生二，二炁兆形，强名都督辛(火+利)，谓之元炁，乃洞玄之尊神。由二生三，三炁兆形，强名焯火邓燮，谓之始炁，乃洞真之尊神。三神本一神，一体分三身，初无分别，随机变化。⁷¹⁾

白玉蟾『雷霆三帅心录』则认为，三帅都是伏羲的后裔。太昊伏羲氏，风姓，有子二人，长曰祝融，字伯庸，即今南斗火宫；次曰郁光，字伯温，就是焯火大神邓帅。邓帅以功封于邓墟，因以为氏，本出风姓，故号曰风后温。自伏羲、神农、黄帝递传至帝啻高辛氏，有二子，长曰傒，次曰隆延。辛帅为隆延第二子。帅本高辛氏之后，以祖之字为氏，故姓辛。隆延长子曰扶风，扶风之子曰摯收明，即张帅。以功封于张地，因以名氏，故姓张。白玉蟾认为，“雷霆三帅，本一家人也。自前至今，莫不知主帅为焯火邓伯温，判官为负风辛汉臣，使者为直符张元伯”。⁷²⁾

十三、月孛朱天君

月孛朱天君，道经中称为太乙月孛流光朱天君、太乙玉玄元帅华阴流光朱天君、太乙月孛流光冲元符使、九天飞罡捉祟轰雷掣电太乙月孛雷君。

70) 载明代『道藏』第18册第250页。

71) 见『道法会元』卷八十四，载明代『道藏』第29册第342页。

72) 载明代『道藏』第29册第328-329页。

『道法会元』卷一百四十八载其形象是：“玉色，女质，三日，皂服，朱履，玉冠，手执金钺斧，有一月像，带剑。”⁷³⁾卷二百一十五说该神“姓朱讳光，天人相，披发裸体，黑云掩脐，红履鞋，左手提早魁头，右手仗剑，骑玉龙，变相青面獠牙，绯衣，仗剑，驾熊”。⁷⁴⁾『清微元降大法』则谓神名朱兴，该书卷二十五描绘其形像是“金凤翅，兜鍪，绿面，三日，赤发，满月相，金甲，朱衣，朱履，左手执火珠，右手执戟”。⁷⁵⁾

月孛为道教所崇奉的星宿神“十一曜”(日、月、五星、罗喉、计都、紫炁、月孛)之一，称“太一月孛星君”。李思聪编『洞渊集』卷七载：“太一月孛星君，主九天之下一切凶杀。星君戴星冠，蹀朱履，衣玄霞鹤寿之帔，执五简，带七星宝剑，垂白玉环佩。逆行黑道，顺之则吉，逆之则凶。”⁷⁶⁾

『太上三洞神咒』卷六有“召月孛朱天君咒”：“至阴之精，金木化生。玉枢救命，太一雷君。裸形披发，三界横行。手持宝剑，掣电流金。雷霆听令，役使万灵。神剑一下，邪鬼灭形。”⁷⁷⁾

十五、清微教主祖元君

清微教主祖元君，即道教清微派的创始人祖舒。据『清微仙谱』，祖舒，一名遂道，字昉仲，乃月孛星神化身，降生于唐昭宗时。广西零陵郡人。面枣黑色，大目，身長七尺。生而灵异，父母莫能禁，遂入道，遍历名山。至桂阳军江渚石上，遇护明元妃化身灵光圣母，授以清微自然先天之奥。继至西京附近山中，遇泰清太玄文元君，授以上清、灵宝、道德、正一之旨，于是祖舒乃会通道教五派之奥，统辖雷霆。治清微洞照府，主持

73) 载明代『道藏』第29册第768页。

74) 载明代『道藏』第30册第335页。

75) 载明代『道藏』第4册第274页。

76) 载明代『道藏』第23册第849页。

77) 载明代『道藏』第2册第95页。

教法。道经中尊称“清微侍元上宸玄都总真九气元灵夫人、太皇景明洞阳金阙昭凝妙道保仙元君”。⁷⁸⁾

十六、清微教主魏元君

清微教主魏元君，即道教上清派祖师魏华存，清微派尊之为“清微教主高元宸照太初元君”。清微派以魏元君为祖师，祖元君为宗师。

魏华存(251-334)，字贤安，晋代女道士，道教称之为紫虚元君、南岳魏夫人。山东任城人。司徒魏舒之女。幼而好道，静默恭谨。志慕神仙，常服胡麻散、茯苓丸，吐纳摄生。欲别居闲处，父母不许。年二十四，父母强命嫁给太保掾南阳刘乂(字幼彦)。生二子，长名璞，次名瑕。刘乂任修武县令，夫人随往。二子长大后，即别居，专心修习于静室。晋成帝时，清虚真人王褒等众真下降，授以『上清经』三十一卷。夫人于咸和九年(334)羽化。后又于兴宁二年(364)降神，授杨羲上清经箓。⁷⁹⁾

十七、洞玄传教马元君

洞玄传教马元君，名士清，为白玉蟾弟子。『道法会元』卷一百四十七载，泉州马居士有女，及笄，不愿成家，自幼焚香斋戒，愿遇至人。一日感召白玉蟾真人降临，付以洞玄之法。至元十八年(1281)，泉州大旱，中书左丞蒲寿庚命僧道祈祷无应。其门人曰：“市舶司马居士有女，道法昭著，可令祈祷。”蒲左丞带属官翁法建诣坛下请雨。元君约以三日为限。

78) 载明代『道藏』第3册第330-331页。

79) 参见『太平广记』卷五十八『魏夫人传』、『太平御览』卷六百七十八引『南岳魏夫人内传』、『云笈七签』卷四『上清源统经目注序』及『上清经述』。

至期，果然降雨。蒲左丞束帛来谢，元君不受，愿遵神命，收翁法建为徒。蒲左丞应允。元君遂传法于翁法建，翁法建传法于薛师淳、赵菊存、丁松隐等人。⁸⁰⁾

『法海遗珠』卷一载洞玄雷法传承是：洞玄教主妙行真人神霄玉枢青灵雷霆天君辛忠义 → 太微侍宸洞玄高明君白玉蟾 → 紫霞扶风洞玄元明君马士清 → 洞玄通明中侍卿翁法建 → 洞玄元明崇侍卿薛师淳。⁸¹⁾

明郑真『荜阳外史集』卷五十『洞玄传宗画像赞』，谓世言洞玄雷法以刘真君为宗，其次则白玉蟾、马玄君。“玄君，马太守之女，渡海不死，闭目随风，至泉州坠地，叩泉之道观，即其故宅也。遂事玉蟾为弟子。又其次则汪雷日、薛洞玄、丁松隐、倪了然，凡七传。”此文所说的马玄君，应为“马元君”之误。刘真君，即玉府刘天君。

十八、混元教主路真君

混元教主路真君，即路大安。元代道士赵道一所撰『历世真仙体道通鉴』卷二十一有传，谓真人姓路名光，又名大安，西蜀大宁军内黄县人，后徙居婺州。生于汉顺帝汉安元年(142)九月十五日。博通经史，历三国鼎分，晋室肇造，仕途不顺，遂舍家修道。晋武帝太康五年(284)，遇一老叟，授以六天如意大法经篆。后又梦太上老君命玉童赐玉钥匙十事。永康元年(300)，疫毒流行，真人敬施符水，点混元灯，越三旬间方息。次年，野兽入城，真人以混元法治之。惠帝赐以金帛，真人不受，遂居华山，以混元篆传丁义，以混元经传郭璞，以混元法传许逊，以混元针灸传朱桃椎。太安元年(302)八月十二日辞世，其混元法行于世。⁸²⁾

道经中尊称路大安为混元开教大慈普惠路真君、混元启教祖师路真君。

80) 载明代『道藏』第29册第764页。

81) 载明代『道藏』第26册第725-726页。

82) 载明代『道藏』第5册第219-220页。

十九、混元教主葛真君

混元教主葛真君，即道教灵宝派祖师葛玄。

葛洪『神仙传』卷八载，葛玄，字孝先，丹阳人。生而秀颖，性识英明，经传子史，无不遍览。年十余岁，父母俱丧，乃遁迹名山，参访学道。从仙人左慈受『九丹金液仙经』。修道虔诚，感太上老君与太极真人降于天台山，授『灵宝经』、『洞玄经』、『大洞经』及上清、灵宝、洞神、太一、涂炭诸斋法。吴大帝孙权召见，强留之，不久即仙逝。⁸³⁾

葛洪『抱朴子内篇·金丹』载，葛玄以其书传弟子郑隐，郑隐再传葛洪。道经中尊称葛玄为“太极左宫仙公冲应孚佑真君”。

二十、神霄传教钟离真仙

神霄传教钟离真仙，即道教全真派北五祖之一的钟离权，也是世传“八仙”之一。

元代道士赵道一所撰『历世真仙体道通鉴』卷三十一有钟离权传，谓真人姓钟离，名权，后改名觉，字寂道，号和谷子，一号正阳子，又号云房先生，燕台人，一云京兆人。及壮，仕晋为大将，统兵出战西北土蕃。两军交锋，忽天大雷电，风雨晦冥，不战自溃。真人独骑奔逃山谷，迷失道路。遇一胡僧，引至一村庄，见一老人披白鹿裘，即东华帝君王玄甫也。真人哀求度世之方，老人授以长生真诀。真人遇师之后，云游天下。后在长安点化吕洞宾。二人关于学仙之事的回答，施肩吾编为『钟吕传道集』。⁸⁴⁾

元世祖至元六年(1269)，敕封正阳开悟传道真君。元武宗至大三年(1310)，加封正阳开悟传道垂教帝君。⁸⁵⁾

83) 葛洪撰、胡守为校释：『神仙传校释』，第269-270页。

84) 载明代『道藏』第5册第276-277页。

二十一、神霄传教吕真仙

神霄传教吕真仙，即道教全真派北五祖之一的吕洞宾。他是世传“八仙”中名气最大的一位。

据载，吕真人名岩，字洞宾，号纯阳子，常自称回道人或回山人，故世人亦呼为回仙。其籍贯一云关中(今陕西)，一云河中府永乐镇(今属山西芮城县)。传为唐代礼部侍郎吕渭之孙。生于唐德宗贞元十四年(798)四月十四日。早年业儒，热衷科举。或云屡举进士不第，或云唐文宗开成年间(836-840)中进士，或云唐敬宗宝历元年(825)中进士。传说在长安酒肆中遇钟离权以“黄粱一梦”点化，遂弃儒学道。后又遇火龙真人传天遁剑法，苦竹真人传驱使鬼神之术，崔希范真人传内丹术。得道后，发宏大誓愿，以度尽众生为己任。常显迹世间，慈心接物，传道度人。⁸⁶⁾北宋时流传最广的吕洞宾事迹，一为过岳阳楼，唯有城南老树精识其为神仙⁸⁷⁾；二为过吴兴沈东老家，饮酒题诗。⁸⁸⁾

元世祖至元六年(1269)，敕封纯阳演正警化真君。元武宗至大三年(1310)，加封纯阳演正警化孚佑帝君。⁸⁹⁾

二十二、火德谢天君

火德谢天君，又称太乙火铃大将流金飞火谢神君、流金火铃谢大仙火、苍牙霹雳大仙谢仙火。『法海遗珠』卷十一说：“有神人谢仙火，即七十二

85) 『金莲正宗仙源像传』，载明代『道藏』第3册第366-367页。

86) 参见南宋吴曾『能改斋漫录』卷十八，元代秦志安『金莲正宗记』卷一，元代赵道一『历世真仙体道通鉴』卷三十一。

87) 见载于王珣『闻见近录』、范致明『岳阳风土记』、张舜民『画墁集』、叶梦得『岩下放言』等书。

88) 见阮阅『诗话总龟后集』卷三十九，胡仔『苕溪渔隐丛话后集』卷三十八。

89) 『金莲正宗仙源像传』，载明代『道藏』第3册第366-367页。

部风火之总领也。”⁹⁰⁾『道法会元』卷一百二十二载其形象为：“虎头，熊耳，象牙，鸟喙，龙爪，鹿角，额上一小羊头，浑身龙甲，手足上各有一蛇，乃四蛇缠于手足，蛇各吐火。”⁹¹⁾卷一百四十八载其名为谢炎，其形象是：“黑面黑须，怒容，三目，玉冠，绛服，朱履，手执玉钺斧，其上有一日像，带剑。”⁹²⁾

“谢仙火”之名在宋代曾广为流传。欧阳修撰『集古录』卷十载，岳州华容县废玉真宫的柱子上有倒书“谢仙火”三个字。有人问衡山女子何仙姑，仙姑说，谢仙为雷部之鬼，夫妇皆长三尺，其色如玉，掌行火于世间。后有闻其说者，于『道藏』中检之，确实载有谢仙名字，主行火。王得臣撰『麈史』卷二则说是岳州太守滕宗亮(字子京)问永州何仙姑，答以雷部中神，兄弟二人，并长三尺。

『三教源流搜神大全』载谢天君的事迹是：天君姓谢，名仕荣，字雷行。生于唐贞观初。性烈貌恶，不畏豪强。为山阴令时，上司索贿千金，仕荣不从，反举报上司贪污行为。上司怒，以各种方式刁难他，甚至欲置之于死地，他都能一一化解。“役愈苦而才愈辩，事愈险而功愈奇。”其赤心烈节，炳于天日，玉帝授以火德真君之职，“执金鞭，驾火轮，头顶道冠，以司九阳之令”。⁹³⁾

二十三、玉府刘天君

玉府刘天君，又称玉府主帅九阳上将苍牙铁面刘天君、九斗阳芒流金火铃威雷浮光刘天君、火铃大将、洞玄三五少阳铁面神王、洞玄九阳苍牙铁面神王。其名一作刘明，一作刘矩，字神光。『道法会元』卷一百四十八载

90) 载明代『道藏』第26册第787。

91) 载明代『道藏』第29册第583页。

92) 载明代『道藏』第29册第768页。

93) 『绘图三教源流搜神大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0年)，第181页。

其形象，一是：黑面少颜，怒容，绯袍，撒开红发，金鞭金甲，足蹶水轮，手擎火轮⁹⁴⁾；二是：黑面老颜，苍牙朱发，绯袍金甲朱履，手执戟，足蹶火轮。⁹⁵⁾

刘天君为洞玄雷法主将。『道法会元』卷一百四十七载，白玉蟾遇辛天君，辛天君“击案三声，而刘帅立现。辛君曰：‘此将司雷霆风雨之权，掌枢机二台之职，护帝驾出入，能救民疾苦，事无大小，叩之即应。今以授汝。’其职则上殿卷帘大将军、九天云路护驾使、枢机二台节制使、神霄玉枢洞玄执律苍牙铁面刘神君，其法则名洞玄玉枢雷法。”⁹⁶⁾

『三教源流搜神大全』则说：刘天君名后，东晋人，岁次庚子八月十二日生于岷江渔渡中。一日，其母来到江边取水，刘后从母亲背上掉入江中，恰好旁边有飘浮的木板，幸免溺水。其父异之。家贫，送给罗真人作侍读，遂精于五雷掌诀。祈雨祷晴，无不反应，民众为之立祠。皇帝敕封玄化慈济真君，玉帝敕封掌玉府事。⁹⁷⁾

二十四~二十五、宁大天君、任大天君

宁、任二大天君在道经中常常一起提到。『道法会元』卷一百四十七称为阳光霹雳宁神君、阴精霆烈任神君。⁹⁸⁾卷一百四十八载，宁天君为左垣运雷阳光元命大将，名烈，字中慈，其形象是：青色面，狼牙，火冠，绯袍，金甲，执雷斧钻；任天君为右垣运雷阴精元应大将，名忠，字居仁，其形象是：火色面，狼牙，火冠，皂袍，金甲朱履，执雷斧钻。⁹⁹⁾『法海遗

94) 载明代『道藏』第29册第768页。

95) 载明代『道藏』第29册第769页。

96) 载明代『道藏』第29册第763页。

97) 『绘图三教源流搜神大全』，第196页。

98) 载明代『道藏』第29册第765页。

99) 载明代『道藏』第29册第769页。

珠』卷一亦载：阳光胜威轰火大神宁烈，青红色面，狼牙，火冠，朱发，绯袍，金甲，执雷斧钻；玄精火铃黑律大神任忠，青鬼面，朱发，绯袍，执火剑。又相：水色面，狼牙，火冠，皂袍，金甲，朱履，执雷斧钻。¹⁰⁰⁾

二十六、雷门苟元帅

雷门苟元帅，又称阳雷神君、神烈阳雷苟天君、上清主火运阳赤灵神烈阳苟天君、雷门左伐魔使知南极天枢院事总辖雷霆都司一府二院三司事苟元帅。名留吉，一名翌冲。

清微派尊之为行法主帅。『清微神烈秘法』称之为“清微主帅上清神烈阳雷神君苟留吉”，其形象是：“金冠，黑面，三日，赤发，金甲，朱衣，朱履，手执金锤钻。”¹⁰¹⁾『清微元降大法』卷二十四载其形象为：“金冠，赤发，青面，金甲，朱衣，金锤钻，统兵二万众。”¹⁰²⁾『道法会元』卷四十六载其形象为：“红须发，金冠，青面，赤衣，手执斧槌。”¹⁰³⁾卷一百四十六载其形象为：“焮火相，无翅，髻不尖，青面，红天衣，紫结巾，焮火脚，执雷锤钻。”¹⁰⁴⁾

『三教源流搜神大全』载：古雍州地界有神雷山。每年二月惊蛰时，雷气发扬。至秋天，雷藏地中，作鸡状，入于鸡岩内。时值八月，当地有姓新名兴者，字震宇，家贫，入山采薪以养母。见岩石中有五只鸡，获而归，献与其母。母将其中四只纳入鸡棚，另一只准备烹食。鸡作人言，称自己是雷，不能吃。其母不听，被雷击死。新兴卖薪买酒回来，见母被雷击死，大恸，欲槌死鸡棚中的四只雷鸡。由于其母将内衣覆于鸡棚上，雷鸡

100) 载明代『道藏』第26册第725页。

101) 载明代『道藏』第4册第136页。

102) 载明代『道藏』第4册第272页。

103) 载明代『道藏』第29册第58页。

104) 载明代『道藏』第29册第759页。

不能震雷。雷神哀其孝心，遂变为道士，到他家里，说愿意听从他的驱使。新兴吃了雷神给的十二火丹，变成妖头鸟嘴，两肩生翼。天帝感其至孝，封为雷门苟元帅。¹⁰⁵⁾

二十七、雷门毕元帅

雷门毕元帅，又称阴雷神君、神化阴雷毕天君、上清主水运阴黑灵神化毕天君、雷门右伐魔使知北极驱邪院事主管雷霆都司军籍事毕元帅。名宗远，一名山则。

清微派尊之为行法主帅。『清微神烈秘法』称之为“清微主帅上清神烈阴雷神君毕宗远”，其形象是：“披发，面赤，皂衣，金甲，跣足，手执铁筒”。¹⁰⁶⁾『清微元降大法』卷二十四载其形象为：“玉冠，微黑面，略有须，全身金甲，皂衣，执斧。”¹⁰⁷⁾『道法会元』卷四十六载其形象为：“披黑发，赤面皂袍，手执金筒铁札。”¹⁰⁸⁾卷一百四十六载其形象为：“焮火相，青面，皂衣，焮火脚，执斧锤。”¹⁰⁹⁾

『三教源流搜神大全』载：雷藏地中，寄胎于田间千年石乳，诞生成人。长大后自名田毕，修炼于法泸岩下。曾助女娲氏炼石补天，又助轩辕黄帝打败蚩尤。轩辕拜以龙师之职，田毕不受，隐于华胥之境，因名田华。唐尧时十日并出，赤地千里，田华奉上帝之命，巡行天上，人间得以风调雨顺。到了汉末，妖魔纵横，奸邪百出，玉帝封以雷门毕元帅之职，敕掌十二雷霆，辅佐玄天上帝诛瘟役鬼，上管天地水旱，下纠群魅出没，中击不仁不义等辈。¹¹⁰⁾

105) 『绘图三教源流搜神大全』，第230-231页。

106) 载明代『道藏』第4册第136页。

107) 载明代『道藏』第4册第272页。

108) 载明代『道藏』第29册第58页。

109) 载明代『道藏』第29册第759页。

二十八、灵官马元帅

灵官马元帅，又称都天罡主正一灵官横天马元帅、正一魁神灵官马元帅、混元都统灵官马元帅、金臂圆光火犀大仙正一灵官马元帅、南宮都统大元帅节度火府斗司兵马三界防御大将军炎灵赤明真君马元帅。名胜，字德先。

『道法会元』卷三十六载马元帅的形象是：“青面朱发，白蛇冠，三目，金甲绛袍，绿靴，背火瓢，仗剑，白蛇从后。”¹¹¹⁾卷二百二十四载马元帅“三头九目，六臂蓝身，两手火铃火索，两手金枪金砖，两手斗诀仗剑，青面赤须，竖红发，蹙金罗帽，绯抹额，绛袍金甲，玉束带，天带绿吊鞞靴，足踏火轮，白蛇绕轮，中吐火，背负火瓢，火鸦万群，部领十二员副将，乃南方火帝也”。¹¹²⁾

『道法会元』卷二百二十二、卷二百二十四说，今之法官但知灵官姓名名胜，皆未究其源流。灵官其实乃天将，天将岂有姓名？且散则成炁，聚则成形。灵官即南方火中之精，火中之王，火中旺炁。南方属午，午属马，灵官即借马字为姓。南斗有六星，第六星为(鬼+胜)，即为灵官之名。又说，午上月是胜先，故以“胜”字为名，字德先。玉帝观其威烈，赐以“旭”字为隐讳。盖旭字阳极也。¹¹³⁾

『三教源流搜神大全』载：马元帅凡三显圣。原是最妙吉祥如来化身，以其灭焦火鬼魂，有伤于慈，降凡投胎于马氏金母，面露三眼，因号三眼灵光。生下三日，能战斩东海龙王，以除水孽。继以盗紫微大帝金枪，而寄灵于火魔王公主为儿，复名灵耀。受业于大惠尽慈妙乐天尊，获授三角金砖，变化无边。遂奉玉帝敕，收服妖魔，造福百姓。帝授以左印右剑，掌南天事。琼花宴上，因金龙太子傲侮，灵耀发怒，火烧南天矣。不得已，

110) 『绘图三教源流搜神大全』，第200页。

111) 载明代『道藏』第29册第1页。

112) 载明代『道藏』第30册第392页。

113) 载明代『道藏』第30册第376页，第392页。

又入世投胎，为一胞五兄弟。后为救母出地狱，又大闹酆都。如来佛祖为之解和，玉帝敕封为玄帝部将。¹¹⁴⁾

马元帅又被称为华光天王，其演义故事，见于明代余象斗编『五显灵官大帝华光天王传』(简称『南游记』)。

二十九、都督赵元帅

都督赵元帅，又称正一玄坛赵元帅、金轮执法赵元帅、神霄如意玄坛赵元帅、正一龙虎玄坛金轮如意执法赵元帅、九天雷路神捷上将玄坛赵元帅，其全称为：高上神霄玉府大都督、五方巡察使、九州社令都大提点、直殿大将军、主领雷霆副元帅、北极侍御史、三界大都督、应元昭烈侯、掌事定命帐设使、二十八宿都总管、上清正一玄坛飞虎金轮敕法赵元帅。¹¹⁵⁾

『道法会元』卷二百三十二『赵元帅录』载，元帅姓赵名朗，一名昶，字公明，终南山人。秦时避世山中，精修至道，功行圆满，玉帝敕封为神霄副帅。到了东汉时期，祖天师张道陵在龙虎山修炼大丹，飞神奏帝，请威猛神吏为之守护，上帝即派赵公明任正一玄坛元帅，护卫天师。天师飞升之后，永镇龙虎山。¹¹⁶⁾

『赵元帅录』又说，凡是公平买卖，求财运亨通，对神祈祷，无不如意。¹¹⁷⁾ 故民间亦奉赵公明为财神。¹¹⁸⁾

按『女青鬼律』所载，赵公明本乃五方鬼主之一，为西方白炁鬼主。¹¹⁹⁾ 『无上玄元三天玉堂大法』卷二十四说，五部之鬼，自受祖天师张道陵誓约

114) 『绘图三教源流搜神大全』，第220-221页。

115) 『道法会元』卷二百三十二，载明代『道藏』第30册第445-446页。

116) 载明代『道藏』第30册第445页。

117) 同上注。

118) 关于奉赵公明为财神，请参考刘仲宇著『正逢时运：接财神与市场经济』(上海：上海辞书出版社，2005年)，第9-16页。

119) 载明代『道藏』第18册第250页。

之后，归心正道，故赵公明以威直充玄坛大将。¹²⁰⁾

『道法会元』卷一百八十八载其形象是：“面黑色，须胡，穿皂靴，金甲皂袍，手执铁鞭。”¹²¹⁾

三十~三十一、虎丘王元帅、虎丘高元帅

王、高二元帅在道经中常常一起提到，称之为左垣大将王元帅，名真；右垣大将高元帅，名万。¹²²⁾

『三教源流搜神大全』则说：王帅名铁，高帅名铜，生于福州之南，周厉王时人。二人相遇于洛阳，结金兰之交。二人同仕于韩王，力谏而不听，遂辞官而去。一日，王铁得知高铜出门往南岭，大吃一惊，说南岭是虎穴所在，急往救之。不久，高铜返回，得知王铁为救他而往南岭，赶紧追去。王铁遇虎，力杀之。二人相遇，互道缘由，欣然携手而归。时人视为真正的铜铁友谊。玉帝敕封二人为虎丘长。¹²³⁾

三十二、混元庞元帅；四十五、洞神刘元帅

庞元帅与刘元帅在道经中常常一起提到。

混元庞元帅，在道经中称为八卦洞神天魂正将、上清八卦洞神主法大元帅、妙道广济真君，名灵。其副帅为刘元帅，称八卦洞神地魄副将、上清八卦洞神掌法副元帅、妙道显济真君，名通。

120) 载明代『道藏』第4册第89页。

121) 载明代『道藏』第30册第192页。

122) 『道法会元』卷二百三十六，载明代『道藏』第30册第471页。

123) 『绘图三教源流搜神大全』，第197页。

『道法会元』卷一百九十五载，庞元帅“坐镇中宫，统摄八卦将吏所任之事。凡有行持，先召此将，动报吉凶，然后行事”；刘元帅“辅佐主帅，运守中宫，统隶八将。凡进遣章表应干事务，先召此将，如意行事”；“二将并如玄帝相，披发跣足，左红袍，右皂袍，仗剑”。¹²⁴⁾卷一百九十七载：“主帅庞灵，青面蓝身，红袍红裙仙带，左手斗印，右手仗剑，乘青龙，云气从之。副帅刘通，黑面黑身，皂袍青裙仙带，左手雷局，右手执雷槌，乘白虎，风声从之。”¹²⁵⁾

“混元庞元帅”，『三教源流搜神大全』作“混炁庞元帅”，谓帅姓庞，名乔，字长清，汉口人，生于汉代。以摆渡为业。重阳日，一客急归，遗百金于船上。次日来寻，庞乔原封不动归还。除夕前二日，观音菩萨化身一妇人求渡，庞乔事忙，其父摆渡，返回时江风大作，船覆。庞乔跳入江中，奋勇救父。众鬼为找替身，屡掀狂澜，庞乔乃水府之精气化身，得以无恙。玉帝敕封庞乔为混炁元帅，手执金刀，降阴魔，除阳恶。¹²⁶⁾

三十三、仁圣康元帅

仁圣康元帅，道经中称为急报无佞康元帅、灵佑灭瘟忠烈元帅、广灵昭惠使。名应，一名保裔。为东岳十太保之一。

关于东岳十太保，『道法会元』卷一百五十五说是温玉(即温琼)、李真、铁胜、刘琦、姚正、张蕴、康应、岳胜、孟云、韦彦。¹²⁷⁾卷二百五十八则说是温玉、李文真、铁胜、刘仲、杨文贵、康应、张蕴、岳昊、孟云、韦彦卿。¹²⁸⁾『东岳大生宝忏』载十太保是：翊灵昭武使温元帅，顺灵昭化

124) 载明代『道藏』第30册第235页。

125) 载明代『道藏』第30册第248页。

126) 『绘图三教源流搜神大全』，第189-190页。

127) 『道藏』第29册，第821页。

128) 『道藏』第30册，第584页。

使李元帅，协灵昭济使铁元帅，镇灵昭赞使刘元帅，通灵昭佑使杨元帅，宣灵昭庆使张元帅，广灵昭惠使康元帅，安灵昭应使岳元帅，显灵昭利使孟元帅，永灵昭助使韦元帅。¹²⁹⁾

南宋吴自牧撰『梦粱录』卷十四亦提到东岳十太保：“广灵庙在石塘坝，奉东岳温将军，请于朝，赐庙额，封自温将军以下九神，皆锡侯爵。曰：温封正佑，李封孚佑，铁封灵佑，刘封显佑，杨封顺佑，康封安佑，张封广佑，岳封协佑，孟封昭佑，韦封威佑。”

康元帅本为东岳大帝佐神，称康舍人。『宋会要辑稿』载：“威济善利孚应王庙，在江南东路信州弋阳县东岳行宫内，佐神康舍人威济公祠，光尧皇帝(即宋高宗)建炎二年(1128)九月封威济王。四年(1130)十二月，加封‘善利’二字，以王师收捕魔贼，助功显灵，从都统辛企宗请也。绍兴二十六年(1156)正月加封今号。”¹³⁰⁾又载：“英烈王庙，弋阳县威济善利孚应王，庆元二年(1196)六月加封威济善利孚应英烈王。”¹³¹⁾『地祇上将温太保传』所载康应封号，与『宋会要辑稿』所载，相差一个字，为“威济善利孚惠英烈王”。该『传』说康应“奉都大城隍委掌监司，检察善恶”，后虚靖天师张继先收为地祇十将之第六将。

明代周思得编纂的『上清灵宝济度大成金书』卷三十五载东岳大帝佐神有“忠显威济善利孚应昭烈王”，即康元帅。¹³²⁾

『三教源流搜神大全』载：康元帅负龙马之精，于仁皇炎德九年降生于黄河之界。父康衢，母金氏。生而慈惠，不伤胎，不折夭，不虐孤寡，不履生气，即使是虫蚁也不轻杀。时有鸛为老鹰所逐，帅救而哺之。后鸛舍长生草以献。仁慈之名声闻于天，天帝封之为仁圣康元帅，以掌四方社令。¹³³⁾

到南宋后期，北宋名将康保裔也被人们尊奉为康元帅，与康应合而为一。

129) 载明代『道藏』第10册第5页。

130) 『宋会要辑稿』礼二一之二〇，第860页。此条又见该书礼二〇之一六，第772页，但“佐神”误作“佑神”。

131) 『宋会要辑稿』礼二一之一二，第856页。

132) 载『藏外道书』(成都：巴蜀书社，1994年)，第17册，第465页。

133) 『绘图三教源流搜神大全』，第240页。

据『宋史·忠义传』，康保裔，河南洛阳人。出生将门，祖父、父亲都战死沙场。保裔为人谨厚好礼，喜宾客，善骑射。承世荫，也做了将领，在后周屡立战功。开宝中，又从诸将破契丹于石岭关。累迁至高阳关都部署。咸平二年(999)，契丹大举入侵，保裔率兵赴战，陷入重围。手下劝他化装突围，保裔说：“大难当前，不能苟且偷生。”于是率兵与敌人决战二日，杀伤甚众。最后矢尽粮绝，援兵不至，全军覆没。当时真宗皇帝驻扎在大名，听到康保裔战死了，非常震惊难过，罢朝两日，追赠康保裔为侍中。

康保裔殉国后，其忠烈事迹广为流传，民间多立庙祀之。由于此前民间已有康王(东岳太保康元帅)信仰，二者遂逐渐合而为一。南宋欧阳守道撰『灵佑庙记』，已明确称康王即康保裔：“敕赐灵佑庙威显善利灵应英烈王，神姓康讳保裔，国初北边名将也。”欧阳守道说，康保裔是洛阳人，死于河间，平生未曾到过江南，但宋室南渡以后，却屡著威灵于江南，其故何在？欧阳守道认为是其生前忠烈，死后英灵之气仍以宋室为依归，中原沦陷，宋室南渡，康保裔之英魂毅魄也随之显灵于江南。¹³⁴⁾

三十四、太岁殷元帅

太岁殷元帅，道经中称为都天太岁至德殷元帅、地司猛吏殷元帅、上清武春猛吏太岁至德尊神、天心地司起煞猛吏太岁殷元帅、北极御前显灵体道助法馘精灭魔地司猛吏太岁大威力至德元帅、上清北帝地司太岁大威德神王至德主帅殷元帅。

殷元帅名郊，乃殷纣王之子。至元庚寅(1290)彭元泰为『天心地司大法』所作后序称，殷元帅“乃三天纠察使，上古帝子，悟道成真，功高所著，变化难量。上帝以其有神通之力，委降伏星煞，普济黎庶”。¹³⁵⁾

134) 欧阳守道：『巽斋文集』卷十六。

『法海遗珠』卷三十载：“地司太岁殷郊将军，天人相，碧色面，项带十二骷髅，绯袍，皂带缠於腰间，跣足，左手黄钺，右手金钟。”¹³⁶⁾『道法会元』卷三十七载其形象是：“青面束发，顶中作髻，红须鬣，朱衣大神。顶上一骷髅，项下九骷髅，左手持金钟，右手执黄钺，乘九头金牛。”¹³⁷⁾卷二百四十六描述其形象是：“丫髻，青面，孩儿相，项带九骷髅，额带一骷髅，裸体，风带红裙，跣足，右手黄钺，左手执金钟。”¹³⁸⁾卷二百四十七谓其形象是：“青面青身，金冠，朱发，绯袍阜缘，绞扎腰间，上左手托日，右手托月，下右手钺斧，下左手金钟，项上悬挂十二骷髅，自午方五色云中至。”¹³⁹⁾

『三教源流搜神大全』载：殷元帅为纣王皇后姜氏所生。出生时为肉球包裹，纣王爱妃妲己奏为怪物，遂弃之于郊野。适逢申真人经过，识为仙胎，乃抱归。取法名金叮奴，正名金哪吒，缘其弃郊之故，乳名殷郊。七岁，乳母告以出身。殷郊得知母后为妲己所害，誓愿报仇。申真人悯其孝心，命其往八宝洞中取宝物，殷郊挑选黄钺、金钟。先乘海马下山，收二神将；又往扫帚山歼灭十二丧门哭鬼，将其头串成骷髅挂于颈上。后助武王伐纣，斧劈妲己。玉帝敕封为地司九天游奕使至德太岁杀伐威权殷元帅。¹⁴⁰⁾

三十五、考校党元帅

考校党元帅，笔者尚未在道经中找到出处。『地府十王拔度仪』载酆都岱岳府有考校罪魂司。¹⁴¹⁾

135) 『道法会元』卷二百四十六，载明代『道藏』第30册第520页。

136) 载明代『道藏』第26册第893页。

137) 载明代『道藏』第29册第7页。

138) 载明代『道藏』第30册第518页。

139) 载明代『道藏』第30册第521页。

140) 『绘图三教源流搜神大全』，第236-237页。

141) 载明代『道藏』第3册第596页。

『三教源流搜神大全』载：党元帅名归籍，怀州人。父名何，母陈氏。其人貌黑心不黑。任昭察使，廉明正直，狱无冤案，民无怨辞。民谣赞之曰：“党不党，见五脏。案临籍，秉天日。黑判官，人鬼泣。何家宰相民考妣。”玉帝敕封，掌考校，以察天下恶过。¹⁴²⁾

三十六、酆都孟元帅

酆都孟元帅，道经中称为酆都巨天力士孟元帅、酆都巨天力士追摄行刑元帅、典狱鞫勘使者、拷鬼大将。名锬。酆都“飞天八将”或“内坛八将”之一。¹⁴³⁾

『道法会元』卷二百六十一载其形象是：“赤枣面，困眼，四方口，须胡，紫方巾，掩心铁甲，内青衫，外皂袍，穿靴，短裙，执八角大铁槌。”¹⁴⁴⁾卷二百六十二载其形象是：“黄巾青鬼，面赤发白，笠紫麻鞋，白袍银甲，手执铁棒。”¹⁴⁵⁾『法海遗珠』卷三十九载其形象是：“人形，恶鬼貌，胡须，黄包巾，皂(ㄴ+卓)袍，铁甲，白结袴，黄皮鞣鞋，手提短柄金锤，出火光。”¹⁴⁶⁾

『三教源流搜神大全』载：孟元帅名山，生于戊申年八月十二日。为狱官，至年终，怜囚犯思亲之苦，约以十二月二十五日暂释还家，正月初五返回。届时800囚犯无一人爽约。孟山见囚犯有改过迁善之心，遂把他们全部放了。上司得知后，严令他将囚犯一一追回来，他决定以自己的一死来换取800囚犯的生命。遂立枪于窟中，欲自杀。天神适至，传玉帝敕命，封为酆都元帅。¹⁴⁷⁾

142) 『绘图三教源流搜神大全』，第206页。

143) 见『道法会元』卷二百六十、卷二六十二。载明代『道藏』第30册，第594页，第602页。

144) 载明代『道藏』第30册第600页。

145) 载明代『道藏』第30册第602页。

146) 载明代『道藏』第26册第942页。

147) 『绘图三教源流搜神大全』，第245-246页。

三十七、翊灵温元帅

翊灵温元帅，道经中称为地祇上将温太保、地祇上将亢金昭武显德元帅、东岳地祇翊灵昭武使正佑侯温元帅、地祇司翊灵昭武显德上将火鸳鸯雷使者一炁温元帅。东岳十太保之首。

据『地祇上将温太保传』，神姓温，名琼，字子玉，乳名卓郎，温州平阳县人。生于唐朝。身長九尺二寸，武勇敢为。随大将郭子仪出战，担任先锋。在军中屡显神异，郭子仪欲杀之。温琼觉其意，遂逃至泰山下屠牛卖酒为生。后遇东岳大帝三太子炳灵公所化道人点化，遂悟而不再杀牛，为东岳庙化缘三年。一日在岳峰遇黄衣道人，道人告诉他，东岳大帝已写上他的名字，待其去世后，就可以成为岳府太保。道人让他塑自己的像立于庙前，温琼照办。殿前太保灌丘休告诉他，塑像若变，他就可以归职了。有孟云、韦彦二人，将其塑像改变模样，温琼来到庙里，站着便去世了，肉身不倒。温琼成神后，不受民间庙食，不以朝廷敕封为荣，行事无丝毫过失，东岳大帝诏封为“地府冥司争取人案大典者”。人之生死，皆由其掌管。宋太祖即位次年，温州大旱，温琼应民祈祷，降下甘霖。后虚靖天师张继先授以地祇正法。天师至青城山，遇魔鬼慈利大帝，温琼为其护法，殄灭群魔。天师保奏其为“助法翊灵昭武大使太保”。后又助天师徒裔吴道显灭邪神，道显奏闻东岳大帝，加封为四海都巡、九州检讨使。后又敕封提点天下神庙。¹⁴⁸⁾

『道法会元』卷二百五十四『东岳温太保考召秘法』载温琼的事迹是：年方十二岁，秉性平直，容貌异常，不治世事，不务营家。诸书一览无遗，阴阳造化无不洞晓。及长不娶，不破天真。一夕遇神人入，身披金甲，执剑，祝曰：“子稟性不凡，东岳奏上天帝，差汝充东岳都统兵太保，须立生容於岳下，然后必得魂神附归。”温琼礼谢神人，遂命工塑容於东岳行宫殿内，日夕参拜东岳大帝。一日至殿内，忽见泥身变成青色，红发獠牙

148) 载明代『道藏』第18册90-94页。

金眼。温琼在殿内站立解化。时人以其身供养，凡有告求，无不遂愿。因西蜀叶天师借岳兵收管瘟疫之鬼，太保现身，述说其事，愿与擒捉瘟鬼，救病安民。蜀民不经月皆获痊愈。后复现身曰：“愿辅佐天下法官行持，捉祟治病。今有符文秘法，望为阐扬。”叶天师乃将此法流传后学。¹⁴⁹⁾

明初宋濂『温忠靖王庙堂碑』载，温琼字永清，温州平阳人。以唐长安二年(702)五月五日午时生。七岁习禹步。十四岁通五经百氏及佛、道二教。二十六岁举进士不第，乃拊几叹曰：“吾生不能致君泽民，死当为泰山神，以除天下恶厉。”后来四川叶天师用其符除瘟疫，各地乃广为立祠。初封翊灵昭武将军正佑侯，宋末加封正福显应威烈忠靖王。¹⁵⁰⁾

『道法会元』卷二百五十四说温琼又名褒，其形象是：“身長九尺余，青面青手，獠牙唇红，发赤眉须赤，金眼狰狞，裹紫巾方顶，着雁花绿袍，金束带，黑吊鞞绿靴，豹皮棍，手执金骨朵，捉祟，仗剑出入。”¹⁵¹⁾『法海遗珠』卷三十七载其形象是：“青鬼面，金睛，四利牙，头戴三尖帽，红抹额，皂长袍，红锦缘，小金束带，黄勒帛，袒胸前露，金甲掩心，绿靴，手提狼牙杖，骑白马，诸将侍从。”¹⁵²⁾

三十八、纠察王副帅；四十六、豁落王元帅

纠察王副帅与豁落王元帅可能是同一神将，即王灵官。道经中称为：雷霆都天豁落三五火车纠罚灵官铁面雷公王元帅、都天豁落猛吏赤心忠良制鬼缚神火雷霹雳灵官王元帅、南极火雷赤心忠良猛吏王元帅。

王灵官原为民间邪神，后经萨守坚真人感化而改恶从善，成为雷部神将。元刻『新编连相搜神广记』载，萨守坚行至湖南湘阴县，见人用童男童

149) 载明代『道藏』第30册第559-560页。

150) 宋濂：『文宪集』卷十六。

151) 载明代『道藏』第30册第560页。

152) 载明代『道藏』第26册第929页。

女生祀本处庙神。真人曰，此等邪神，应焚其庙。言讫，雷火飞空，庙立时焚烧，人莫能救。庙神在空中说：“愿法官常如今日。”自后庙不复兴。真人至龙兴府，在江边濯足，见水中有神影，黄巾金甲，左手拽袖，右手执鞭。真人问：“尔何神也？”答曰：“吾乃湘阴庙神王善，被真人焚吾庙后，今相随一十二载，只候有过，则复前仇。今真人功行已高，职隶天枢，望保奏以为部将。”真人曰：“汝凶恶之神，坐吾法中，必损吾法。”其神即立誓不敢背盟。真人遂奏帝授职，收为部将，其应如响。¹⁵³⁾

据『道法会元』卷二百四十一载，王善向萨真人立下的誓言是：“萨君曾有令，敕法以度人。滴血以为誓，普救诸众生。强邪并顽崇，疾速灭真形。早晚闻吾号，凭誓现真形。吾不助玄教，甘受天灭形。不是呼吾号，决不怨汝名。”¹⁵⁴⁾

『道法会元』卷二百四十一载其形象是：“赤面红须发，双目火睛，红袍绿靴风带，左手火车，右手金鞭，状貌躁恶”。¹⁵⁵⁾卷二百四十二载其形象是：“赤面赤发，黄结巾，金甲红罩袍，左手执索，右手持铁鞭，绿靴，背负虎皮袋，状貌威恶”。¹⁵⁶⁾

三十九、先锋李元帅

先锋李元帅，道经中称为顺灵昭化使。东岳十太保之一。

『三教源流搜神大全』载：李元帅名封，于隋帝壬午年五月五日托胎于锦江口李芳之妻。素刚直，膂力过人。为邻居报冤仇，杀人后逃亡南海为寇。一日入海神庙，遇强盗，李封擒之，尽释其所掠男女。后于海中杀一巨鳄，使航船无风浪之虞。玉帝敕封先锋之职。¹⁵⁷⁾

153) 『新编连相搜神广记』，附于『绘图三教源流搜神大全』后(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0年)，第517-518页。

154) 载明代『道藏』第30册第491页。

155) 载明代『道藏』第30册第488页。

156) 载明代『道藏』第30册第493页。

四十、猛烈铁元帅

道经中称为英雄猛烈铁元帅、协灵昭济使。名定。东岳十太保之一。

『三教源流搜神大全』载：铁元帅名头，生于商纣王丙午年五月七日。幼而武勇，气排山岳，胆落天地。歼魔鬼于野火庙中，擒妖狐于紫虚楼下。玄帝邀其同升，封为猛烈元帅。¹⁵⁸⁾

四十一、风轮周元帅

道经中称为北方风轮荡邪周元帅。名巨夫。

『太上三洞神咒』卷四有召风轮周将军咒：“混沌浩荡，一炁初分。北方有将，号曰风轮。身長千丈，铁面将军。兴云吐雾，顷刻而生。队仗千万，涂荡凶神。或魔或鬼，或妖或精，或远或近，或亲或邻，风轮一荡，鬼无逃形。吾奉帝命，敢不遵承。火速荡动，要见分明。”¹⁵⁹⁾

四十二、地祇杨元帅

道经中称为酆都主将杨元帅、通灵昭佑使。东岳十太保之一。

『三教源流搜神大全』载：杨元帅名彪，汉代人，生于庚申年十月十六日。任廷尉长，秉公执法，不屈君命，不徇私情。上帝敕封地祇之任，下察五方之凶秽，幽按十二阎君之横纵，阳纠人间囹圄之曲直，阴鉴海岳之魑魅。¹⁶⁰⁾

157) 『绘图三教源流搜神大全』，第192-193页。

158) 『绘图三教源流搜神大全』，第233页。

159) 载明代『道藏』第2册第72页。

四十三、朗灵关元帅

道经中的称呼有：朗灵义勇关元帅，鄂都馘魔朗灵关元帅，鄂都追摄元帅，轰雷摄正青灵上卫上将关元帅，雷部斩邪使、兴风拨云上将、馘魔大将、护国都统军、平章政事、崇宁真君。即三国名将关羽。

关羽，字云长，河东解州(今山西运城)人。与刘备、张飞为结义兄弟。受命统兵镇守荆州，后兵败被擒杀，谥为壮缪侯。事迹见『三国志·关羽传』，此不赘述。

关羽在大功垂成之际被吴将吕蒙袭杀，临死自然是满腔怨怒。荆州民间惟恐关羽灵魂将其怨怒发泄于人间，危害一方，遂纷纷立祠祭祀。随着时间的流逝，关羽怨怒而死已被荆州人淡忘，而其勇武、忠义的高大形象逐渐植根于荆州民间信仰之中，成为平乱驱害、保护一方的善神。¹⁶¹⁾

关羽是何时进入道教神将系统的，尚不清楚。宋代一个著名的“解州平妖”故事，使关羽的神威广为人知。解州是北方重要的产盐之地。据出于元代的『宣和遗事』载，宋徽宗崇宁五年(1106)夏，解州有蛟，在盐池作祟。徽宗诏命三十代天师张继先治之。不旬日，蛟祟已平，继先入见，帝问是何妖魅。继先回答说，昔轩辕黄帝斩蚩尤，后人立祠于池侧以祭祀蚩尤。近日其祠宇破败，故变为蛟，作祟境内，以求祭祀。帝问继先用何神除灭此蛟。继先回答是蜀将关羽，并让其在殿上显灵。¹⁶²⁾关羽成为斩蛟的主角，可能与解州是关羽的家乡有关。另据『道法会元』卷二百五十九记载，关羽在殿上显灵后，“拽大刀，执蛟首于前，不退”，希望得到宋徽宗的敕封。宋徽宗“擢崇宁钱，就封之为崇宁真君”。张继先责其强求敕封，罚下鄂都五百年，故为鄂都尉。¹⁶³⁾

160) 『绘图三教源流搜神大全』，第214-215页。

161) 参见蔡东洲、文廷海著：『关羽崇拜研究』(成都：巴蜀书社，2001)，第54-55页。

162) 『宣和遗事』(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1年)，第21页。

163) 载明代『道藏』第30册第594页。

『道法会元』卷二百五十九载关元帅形象是：“重枣色面，凤眼，三牙须，长髯一尺八寸，天青结巾，大红朝服，玉束带，皂朝靴，执龙头大刀，有赤兔马随。”¹⁶⁴⁾

『道藏』中有『太上大圣朗灵上将护国妙经』，谓关元帅受上帝救命，为三界都总管，昼察阳元功过，夜判冥府鬼神。¹⁶⁵⁾

四十四、忠靖张元帅

忠靖张元帅，鸡龙山刊本作“忠翊张元帅”，误。

忠靖张元帅，本为东岳大帝佐神，称张舍人。后来与唐代忠臣张巡合而为一。道经中称为铁轟地雷东平忠靖王张元帅、通天斩邪大将东平忠靖威烈元帅、宣灵昭庆使。东岳十太保之一。

据『宋要会辑稿』『临汀志』[忠]靖王祠条说，神为淮阴人张有严之子。唐开元元年(713)八月十八日生，十四年(726)七月二十五日入灭为神，护国救民，封成济侯。宋太祖亲征太原，川水泛滥，上忧之，冰忽合，师遂济。空中见神来朝，加征应护圣使者。熙宁五年(1072)，升济物侯。宰相王安石令有司勘会灵显事迹，再封忠懿文定武宁嘉应侯。南渡以来，神复响答于浙间，而福建临汀尤显著，累封东平忠靖王。¹⁶⁶⁾『宋要会辑稿』又载，沅州城西的南岳张太保祠，政和二年(1112)九月封灵佑侯。六年(1116)十月，封佑顺灵显公。宣和七年(1125)九月，赐庙额昭烈。高宗建炎二年(1128)，封忠靖王。绍兴十七年(1147)十月，封其妻曰协惠夫人。二十二年(1152)二月，加封忠靖威显王。孝宗隆兴元年(1163)七月，加封忠靖威显灵佑王。乾道七年(1171)正月，加封忠靖威显灵佑英济王。¹⁶⁷⁾

164) 载明代『道藏』第30册第588页。

165) 载明代『道藏』第34册第746-747页。

166) 『宋要会辑稿』礼二〇之一三四，第831页。

南宋『咸淳毗陵志』卷十四载：“嘉应侯庙在资圣寺后，神姓张，夫人吕氏。始封嘉应侯，后封东平忠靖孚应王。东岳庙西庑亦有象设。”

宋洪迈『夷坚支志』戊卷七“信州营卒郑超”条载，郑超梦至东岳第八司，主者升殿，语超曰：“吾乃东平忠靖王，管人间生死案，正真无私。汝还世与人说不妨。”¹⁶⁸⁾此神疑即张太保。

明王鏊撰『姑苏志』卷二十八载东平忠靖王祠，在苏州虞山南麓东。王鏊所述忠靖王之生平与加封情况，与据『宋要会辑稿』所引『临汀志』相同。

『古今图书集成·博物汇编·神异典』第五十一卷『神庙部』“昭烈庙”条载，庙在玉山县治南，元倪中记神在宋代封为王，元朝至正四年(1344)始改封护国忠靖威显景佑真君。七年(1347)，护佑海漕有功，复加洪济封号。奉祀官员皆以神为唐御史中丞张巡，惟蔡荐所记，神为张抃，系睢阳城陷时遇害的三十六人之一。¹⁶⁹⁾

明田汝成撰『西湖游览志』卷十二载，杭州石佛山海会寺附近有康张庙，供奉威济善利孚应昭烈康元帅、东平忠靖洪济景佑张元帅。

明代周思德编纂的『上清灵宝济度大成金书』卷三十五载东岳大帝佐神有“东平忠靖威显灵佑英济王”，即张元帅。¹⁷⁰⁾

有学者指出，可能是出于将民间信奉的张元帅纳入朝廷祀典的需要，人们逐渐将张元帅与受到历朝褒封的唐代名臣张巡合而为一。¹⁷¹⁾

按，张巡(709-757)，祖籍蒲州河东(今山西省芮城县)，出生于邓州(今河南省邓州市)。天宝十五年(755)，安史之乱中，张巡以真源(今安徽亳州市西)县令的身分，起兵守雍丘(今河南杞县)。至德二年(757)，移守睢阳(今河南商丘)，与太守许远共同作战，在内无粮草，外无援兵的情况下，城破被俘，英勇就义。他以区区几千兵力，苦守雍丘、宁陵、睢阳等城，挡住数十万叛军近二十个月的围攻，显示了杰出的军事才能。朝廷追赠张巡

167) 『宋会要辑稿』礼二〇之一六，第772页。

168) 『夷坚志』(北京：中华书局，2006年)，第3册第1104-1105页。

169) 『古今图书集成』(上海：中华书局影印本，1934年)，第493册，第51页。

170) 载『藏外道书』第17册，第465页。

171) 王健：『神灵入祀与地方社会：明代无锡张巡信仰考略』，载『史林』2013年第4期。

为扬州大都督。其事迹见『旧唐书』和『新唐书』本传。

张巡死后，民间立祠祀之。奉祀的原因，一是感其忠义，二是惧其疫厉（因张巡死前曾有为厉鬼以杀贼之语）。

本来，祀张巡的庙称为协忠庙、双忠庙（与许远合祀），祀东岳太保张元帅的庙称为东平忠靖王祠。但后来张巡也被称为东平忠靖王，取代了原来的张有严之子。

『道法会元』卷二百五十七载其形象是青鬼面，白翻檐毡帽，白袍，玉束带，绿靴，手仗剑。¹⁷²⁾

四十七、神雷石元帅

『道法会元』卷二十九载：副将石元帅讳圆，服色黑面红袍，尖帅巾，长巾带。¹⁷³⁾

『三教源流搜神大全』载：石元帅名神，相溪人，生于周宣王七年三月初四日。生时风雨骤至，龙挂天空，其父母曰：“阿儿恐怕是个龙种。”性敏净，长游矣中，受业于矣尹子，结庐于眉山之阳。时大旱，石氏虔诚祈祷，大雨立至，遂死而成神。上帝封为五雷之长，典威福击伐事。¹⁷⁴⁾

四十八、监生高元帅

早期道经中载有“监生度命君”、¹⁷⁵⁾“九天监生大神”，¹⁷⁶⁾为主管生育

172) 载明代『道藏』第30册第579页。

173) 载明代『道藏』第11册第224页。

174) 『绘图三教源流搜神大全』，第207页。

之神。监生大神主掌九天监生司，属下有催生、保产等官将吏兵。高元帅应为监生司神将。『无上黄箓大斋立成仪』卷五十六载有“催生保产高天丁”。177)『道法会元』卷一百九十六载有“高元帅催生符”。178)

一说高元帅即“天蓬神咒”中所说的“高刁北翁”。『道法会元卷』一百五十五载“催生保产天丁高刁”。179)『法海遗珠』卷四十五载高刁北翁姓高名伯真。180)『道法会元』卷一百五十六说：“高刁北翁神将，姓起名渊。即三洞天中三元神王北都三杀大神。玄布缠头，皂衣大袖，左执金锤，右执玉锤，领兵万众，制御五瘟疫厉之鬼。”181)

『三教源流搜神大全』载：高元帅名员，受气于始元太乙之精，托胎于苍州高春公家，母梅氏。甲子年十二月甲子日生。生时一团火光耀日，父母以为怪，投之江中。药师天尊抱之为徒。善医药，各种奇症皆能治愈。遇一仙木，虫蛙大洞，血水沥沥不止，高员怜而补之，结果虫子死于树中。虫子托于人言责之，高员以回生之术救活虫子。玉帝悯其为仁之不易，遂封以九天降生高元帅之职。182)

以上对『玉枢宝经』中48神的来历作了初步探讨。更进一步的研究，尚俟来日。因为语言问题这次未能参考的韩国的有关玉枢宝经的研究成果以及其他的调查结果今后将加以补充而进行更加深入的研究。并且希望能够尽早对大巡真理会的48神将进行比较研究。

175) 见『赤松子章历』卷六，载明代『道藏』第28册第839页。

176) 见『太上老君说五斗金章受生经』，载明代『道藏』第11册第418页。

177) 载明代『道藏』第9册第718页。

178) 载明代『道藏』第30册第242页。

179) 载明代『道藏』第29册第816页。

180) 载明代『道藏』第26册第999页。

181) 载明代『道藏』第29册第824页。

182) 『绘图三教源流搜神大全』，第217-218页。

【參考文獻】

- 『典經』, 韩国: 大巡真理会出版部, 2010年版。
- 『玉枢宝经』
隆庆安心寺刊本。
雍正普贤寺刊本。
光绪鸡龙山刊本。
- 『道藏』, 文物出版社、上海书店、天津古籍出版社, 1988年影印本。
- 『金莲正宗仙源像传』, 『道藏』, 第3册。
『道门定制』, 卷三, 『道藏』, 第31册。
『道法会元』, 『道藏』, 第29、30册。
『雷霆三帅心录』, 『道藏』, 第29册。
『神功妙济真君礼文』, 『道藏』, 第9册。
『云笈七签』, 卷一百零六, 『许逊真人传』, 『道藏』, 第22册。
『赤松子章历』, 卷六, 『道藏』, 第28册。
『静余玄问』, 『道藏』, 第32册。
『真武灵应真君增上佑圣尊号礼文』, 『道藏』, 第18册。
『太上老君说五斗金章受生经』, 『道藏』, 第11册。
『太上说玄天大圣真武本传神咒妙经注』, 『董真君实录』, 『道藏』, 第17册。
『汉天师世家』, 卷三, 『道藏』, 第34册。
『海琼白真人语录』, 卷一, 『道藏』, 第33册。
『许真君仙传』, 『道藏』, 第6册。
『华盖山浮丘王郭三真君事实』, 『道藏』, 第18册。
白玉蟾撰『旃阳许真君传』, 『修真十书』, 卷三十三, 『玉隆集』, 『道藏』, 第4册。
张雨, 『玄品录』, 卷五, 『道藏』, 第18册。
赵道一, 『历世真仙体道通鉴』, 卷十九, 『道藏』, 第5册。
- 葛洪撰、胡守 校释, 『神仙传校释』, 北京: 中华书局, 2010年版。
- 欧阳守道, 『巽斋文集』, 卷十六, 台北: 台湾商务印书馆, 1971, 年版。
- 楼钥, 『攻媿集』, 卷六十九
- 李焘, 『续资治通鉴长编』, 北京: 中华书局, 1979年版。

- 马端临,『文献通考』,北京:中华书局,2006年版。
- 范致明,『岳阳风土记』
- 吴曾,『能改斋漫录』,卷十八。
- 阮阅,『诗话总龟后集』,卷三十九,北京:人民文学出版社,1998年版。
- 王巩,『闻见近录』
- 张舜民,『画墁集』,上海:商务印书馆,1935年版。
- 赵道一,『历世真仙体道通鉴』,三卷十一。
- 秦志安,『金莲正宗记』,卷一。
- 叶梦得,『岩下放言』
- 胡子,『苕溪渔隐丛话后集』,卷三十八,北京:北京图书馆出版社,2006年版。
- 『宋大诏令集』
- 『宋會要輯稿』
- 『元史』,成宗本纪。
- 『夷坚志』,北京:中华书局,2006年版。
- 『藏外道书』,成都:巴蜀书社,1994年版。
- 『河图』
- 『绘图三教源流搜神大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0年版。
- 刘仲宇,『正逢时运:接财神与市场经济』,上海:上海辞书出版社,2005年版。
- 余象斗编,『北方真武祖师玄天上帝出身志传』,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1年版。
- 王健,『神灵入祀与地方社会:明代无锡张巡信仰考略』,『史林』2013年第4期。
- 日本道教学会编,『东方宗教』第105号,2005年版。
- 任继愈主编,『道藏提要(修订本)』,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1年版。
- 蔡东洲、文廷海著,『关羽崇拜研究』,成都:巴蜀书社,2001年版。
- 香港中文大学,『道教研究学报』第2期,2010年版。
- 『古今图书集成』,上海:中华书局影印本,1934年版。
- 『白真人集』,卷一,萧天石主编,『道藏精华』,台北:自由出版社,1980年版。
- 『宣和遗事』,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1年版。
- Kristofer Schipper and Franciscus Verellen edited, *The Taoist Canon: A History Companion to the Daozang*, Vol 2,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국문 요약■

조선시대 『옥추보경』(玉樞寶經) 중의 신장(神將)에 관한 연구

인즈화(尹志华)

중국도교협회

『옥추보경』(玉樞寶經)은 송대의 유명한 도교 경전으로 정식 명칭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설옥추보경』(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說玉樞寶經)이다. 송·원시대 이후 『옥추보경』은 중국 각 지역에 광범위하게 전해지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명나라의 세종(世宗)과 신종(神宗)은 『옥추보경』을 새로 간행하여 직접 서문을 쓰고 동시에 매우 숭앙하였다.

『옥추보경』의 집주본이 조선에 전해진 시기는 대략 명대 시기로 보고 있으며, 조선시대에 전해졌던 『옥추보경』 집주본은 융경(隆慶) 4년(1570)에 전라도 무등산(無等山) 안심사(安心寺)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당시 안심사 판본은 첫 페이지와 경문 중의 또 다른 페이지가 없는 불완전한 판본이었다. 옹정(擁正) 11년(1733)에 송몽삼(宋夢三), 서두추(徐斗樞) 등의 제안에 따라 영변(寧邊) 묘향산(妙香山) 보현사(普賢寺)에서 『옥추보경』을 새로 간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불완전한 판본이었으며, 병진년(1736)에 잃어버린 두 페이지를 우연히 찾게 되면서 완전한 판본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광서(光緒) 무자년(1888)에 김흡(金滄)이 『옥추보경』을 새로 교정하였고, 계룡산(鷄龍山)에서 이를 다시 간행하였다.

명대의 『도장』에 수록된 『옥추보경』 집주본에는 신장도(神將圖)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시대 세 종류의 판본은 모두 신장도(神將圖)가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조선시대 간행본과 비슷한 판본으로 영국의 대영도서관 소장본과 일본 천리대학(天理大學) 도서관의 소장본 및 중국 국가 도서관 고적관의 소장본이 있다. 그런데 안심사 판본은 41명, 보현사 판본은 47명, 계룡산 판본은 48명의 신장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영도서관은 45명, 중국 국가 도서관은 45명 등으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판본들에 수록된 신상의 수가 다른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에 본문에서 필자는 먼저 계룡산 판본 『옥추보경』에 근거하여 48신장의 내력에 대한 초보적인 고찰을 진행하였다. 언어상의 문제로 『옥추보경』과 관련된 한국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옥추보경』의 48장과 대순진리회의 『전경』에 등장하는 48장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조명하는 데 유의미한 기초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토대로 나아가 대순진리회의 48신상도와 『옥추보경』의 판본 간의 형태적 특징에 주목하여 면밀한 상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대순진리회의 신앙체계와 『옥추보경』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옥추보경, 도장(道藏), 신장도(神將圖), 대순진리회, 48장

- ◎ 투 고 일 : 2013년 8월 31일
- ◎ 심 사 기 간 : 2014년 3월 17일~24일
-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3월 26일